

이 책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 수련활동의 기본철학과 방법론

◎ 수련활동의 기본철학

지금까지 우리는 청소년을 문제의 시각에서 그 증상을 진단하고 처방하려는 소위 원인(cause) → 결과(effect)의 환원주의적 접근으로 일관해 왔다. 물론 원인 → 결과의 정형화된 시각으로 인간현상을 밝히려는 시도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총체적인 시각이 요청되는 청소년문제에 원인 → 결과의 패러다임을 적용할 경우 그 패러다임에 내재된 오류가 명백히 드러남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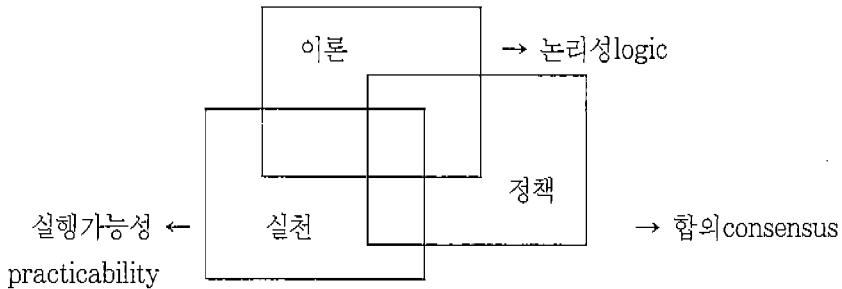
검은색 안경을 쓰면 온세상이 검게 보이는 것과 같이 청소년에 대한 이와 같은 정형화된 시각은 청소년의 삶을 왜곡시킨다. 이 패러다임으로 현상을 들여다보면, 현상을 파악하려는 주체(subject)와 파악되는 대상인 객체(object)간의 엄격한 상호분리를 전제로 인식의 과정이 시작된다. 예컨대, 청소년문제를 인식할 경우에 어른이 주체가 되고 아이들은 탐구의 객체로 분리되어 문제의 원인을 아이들에게서 찾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수련활동은 청소년문제가 본질적으로 원인 → 결과의 정형화된 시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기본가정을 갖는다. 청소년문제는 본질적으로 실천과 정책지향적이어서 이론적 논의를 중시하는 원인 → 결과의 접근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말 청소년문제는 학자(이론가)들의 전문적 논의로 해결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이해 당사자(청소년, 어른, 사회)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그 조정이 요구되는 정책지향적인 동시에 실제적인 장면에서 행동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천지향의 문제이다.

실천적 맥락에서 청소년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을 전제하는 수련활동의 기본 철학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청소년문제는 본질적으로 실천지향이다

흔히 인간사는 [그림 1]과 같이 이론, 실천, 정책 등 세 가지 문제영역으로 구



[그림 1] 세 영역과 해결의 준거

분된다. 대체로 이론의 영역은 해결의 관건이 논리적 타당성에, 실천의 영역은 실행가능성에 그리고 정책영역은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에 있다.

청소년문제가 이론적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실천과 정책적 성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소년문제가 원인→결과의 단순한 인과관계로는 분석해 낼 수 없는 복잡한 인간행위라는 점에서 뿐 아니라 청소년문제의 대부분이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그들의 합의도출과 즉각적인 실천이 해결의 관건이 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그렇다.

지금껏 우리 사회는 청소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민의 광범위한 합의와 즉각적인 실천으로 해결을 모색치 않고 선—이론적 논의, 후—실천의 잘못을 범해왔다. 실행 가능성과 합의가 청소년 문제해결의 관건이기 때문에 실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청소년지도자)의 역할이 학자나 전문가의 역할보다 강조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청소년문제는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이 이해해야 한다

실천의 사태는 이론적인 삶의 세계와는 달리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며, 독특성과 가치의 갈등을 특징으로 하는 지극히 상황지향적인 장면이다. 어떤 문제상황이 발생하면 그곳에서 즉시 대처해야 하는 일상의 삶의 사태인 것이다. 따라서 어떤 문제에 대처하는 데 유일한 해결책은 찾을 수 없다. 마치 테니스 선수가 자기 코트에 공이 넘어왔을 때 공식에 대입하여 공을 쳐 넘길 수 없는 것처럼, 우선 넘겨 보내고 나중에 따져 보는 것과 같은 상황지향적인 것이다. 사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유일한 정답(true)을 찾는 이론

의 문제가 아니라 사려깊은 판단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실천지향의 문제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문제는 사실(facts)을 만들어 내는 예술적 행위의 삶이라 는 표현이 보다 적절할 것 같다.

의미는 상황지향적이며, 상황은 주체와 객체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 바로 청소년문제는 어른과 아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한 편의 드라마처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미 시작된 영화를 감상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 영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중요치 않은가? 이런 시각으로 아이들의 삶을 들여다 볼 때 비로소 그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문제의 해결은 현장 실천가들의 몫이다

청소년문제의 본질이 실천과 정책지향적이라는 점은 바로 청소년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이 현장 실천가들의 몫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상황에 부딪혔을 때, 전문가나 학자들로부터 정답을 받아 적용할 여유가 없다. 신중한 판단과 사려깊은 행동만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이다. 실천의 상황에서 현장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최첨단 기기를 갖춘 최신형 비행기의 추락사건, 즉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보다 경제적인 운항을 추구하려는 기장의 판단에 의해 시설이 낙후된 비행장에 몇 번의 착륙을 시도하다가 추락한 사건을 상정해 생각해 보자.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조종의 기술이나 조종팀의 지휘 그리고 컴퓨터화된 첨단 기기들의 성능보다도 조종사가 상황에 대처하는 판단능력이 항공기 안전에 훨씬 중요한 것임을 보여준다. 조종사의 행위는 매순간마다 그가 내리는 판단에 의해 좌우되며, 또 그의 판단은 그가 처한 상황 때문에 겪는 온갖 개인적 · 직업적 스트레스나 걱정거리 같은 것들에 직접 · 간접으로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상정한 추락사고는 조종사가 직업적으로 받게 되는 압력이 적어도 간접적 요인인 것은 분명하다. 제대로 기기도 갖춰지지 않은 비행장에 몇 번의 착륙을 시도하다 실패했고 사고가 일어날 징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착륙을 시도했다. 만일 그가 아무런 압력을 받고 있지 않았더라면 왜 그렇게 위험스런 착륙을 시도했겠는가? 아마 첫 번째 착륙 시도에서 실패한 뒤 기상 등을 고려하여 다른 공항으로 회항했어야 했을 것이다.

악천후에도 목적지에 착륙해야 한다는 압력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를 항공사가 요구하는 「경제운항」의 압력이라고 생각한다. 조종사는 이 경우에 「이 윤을 위한 비행」과 「안전을 위한 비행」의 갈등적인 사태에 처하게 된다. 안전을 위해 조종사는 무리한 비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조종사의 판단과 상반되는 것을 항공사가 강하게 요구하더라도 최후의 상황판단과 행동의 수행은 실천의 사태에서 사려깊게 행동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조종사의 몫인 것이다.

청소년문제에 대처하는 현장지도자들에게도 그 실천자로서의 역할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는 조종사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사려깊은 판단과 행동이 요구되는 것이다. 청소년 지도의 문제는 어떤 정형화된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론가나 학자들이 실천의 현장지도자들에게 그 상황에 대한 유일한 해결방안을 제공해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장지도자들 또한 그것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시급한 실천의 문제인 것이다. 실천의 최전선에 있는 청소년지도자를 제외하고서 실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지나친 과장은 아닐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청소년 지도자들은 수련활동의 의미와 그 적용에 관한 기본틀(안경)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들은 이 틀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창의성과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실천의 장면에서 수련활동을 하는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없기 때문에 수련활동을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 적절하게 변형하고 수정하는 것은 당연히 현장지도자들의 일이 되어야만 한다. 청소년들의 문제를 다루는 일은 하나의 정답을 발견해 내는 과학적인 활동이라기 보다는 그들에게 의미있는 삶을 안내해 주거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술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 수련활동의 방법론

흔히 수련활동을 지도하는 데에는 실습, 답사, 견학이나 봉사활동 등과 같은 구체적인 경험적 방법으로부터 강연이나 강좌 또는 토론과 같이 추상적이고 전달적인 방법까지 다양한 지도기법이 사용된다.

수련활동지도를 위해서 전성연(1983)이 제시한 청소년 교육기법의 분류모형 [그림 2]은 지도하는 활동의 목적과 여러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것을 제안해 준다.

이 모형에 의하면, 「전달－수용적 방법」은 흔히 지적인 학습을 요하는 경우나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정보를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효과적인 방법이다. 청소년 수련활동에서 보다 많이 강조되는 「참여－탐구적 방법」은 상호작용의 역동적 맥락이 중시되며 「전달－수용적 방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정의적인 특징을 갖는 「수련－체득적 방법」은 일종의 생활훈련식 방법으로 집단활동을 통해서 인간관계 기술, 리더쉽과 멤버쉽, 가치와 창조의 순종, 자치능력의 함양 등 사회적·정의적 능력확대에 중요한 것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 모형의 사용은 한 가지 기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방법을 상황에 적합하게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점이 중요하다.

추상적 ← → 구체적 (지적) (정의적)		
전달－수용적	참여－탐구적	수련－체득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 • 강연 • 강의 • 시청각매체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의·대화 • 토론·세미나 • 회의 • 버즈분단세미나 • 역할연기 • 실험·조사 • 표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 • 답사·견학 • 야영수련회 • 봉사활동 • 행군·행진 • 훈련

[그림 2] 청소년 교육기법의 분류모형

상호작용의 인식론과 방법을 특히 강조하면서 본 프로그램은 수련활동의 일반적인 지도기법으로 다음의 10개의 형태를 제시한다.

- 강의
- 강연식 공개토론
- 시청각
- 게시 및 전시
- 토론
- 분임토의
- 역할연기

- 현지답사
- 워크샵
- 구안법

위 10개 지도기법에 대해 각각의 특징과 준비 그리고 진행절차를 살펴보자.

1) 강의(Lecture)

○ 특징 :

강의는 짧은 시간내에 많은 내용을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참여자들이 수동적으로 강의에 참여하는 약점이 있다. 강사는 참여자들이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결한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말의 속도와 고저를 적절히 구사하여 참여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강사는 강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참여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 사전준비 :

- 지도자는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알맞는 강사를 선정한다.
- 강사에게 집단의 욕구와 흥미, 시간제한 등에 대해 설명한다.

○ 진행절차 :

- 강사는 주제를 소개하면서 참여자들의 관심을 모은다.
- 준비된 내용의 진행순서에 따라 정해진 시간동안 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 강의가 끝난 후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다.
- 강사는 중요점을 강조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면서 강의를 마무리 짓는다.

2) 강연식 공개토론(Seminar)

○ 특징 :

주제나 의제에 대해 여러가지 견해를 가진 몇몇 연사들이 자기의 의견이나 준비한 내용을 발표한다. 청중은 발표자들의 발표를 듣고 난 다음 질문을 하고, 발표자는 그것에 답하는 식으로 진행시키며 토의에 청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발표자 중에서 좌장을 선정한다. 좌장은 주제를 제시하고 강사를 소개하며 논의를 명확히 해주고 청중들의 질문을 받아 토론을 주재한다.

- 사전준비：
 - 특정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4~5명의 발표자를 선정한다.
 - 발표자 중에서 사회자를 선출한다.
- 진행절차：
 - 좌장은 참가자들에게 강연의 진행절차를 설명한다.
 - 좌장은 논의 주제를 설명하고 발표자를 소개한다.
 - 발표자들은 준비된 내용을 발표하고 좌장은 발표자들의 내용이 적절히 연결되도록 사이사이 발언을 한다.
 - 발표가 끝나면 좌장은 청중들로부터 질문을 받는다. 질의와 응답 이후에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좌장이 논의된 주제의 핵심과 결론을 요약한다.

3) 시청각(Audio-Visual)

- 특징：

시청각교육은 눈이나 귀를 통해 전달되는 시청각자료(VTR, 슬라이드, 챠트, 모형 등)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참여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참여자들은 언어라는 추상적 전달매체 이외에 구체적 경험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를 접함으로써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게 된다. 자료는 정보전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사용해야 한다. 단순하게 참여자의 흥미를 유발한다고 관련없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활동내용을 이해하는 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 사전준비：
 - 필요한 정보를 선정한다.
 - 참고자료를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를 선택한다.
 - 청 각 : 녹음테이프, 음반 등
 - 시 각 : 흑판, 챠트, 도표, 실물 및 모형, 환등기 등
 - 시청각 : TV, VTR, 슬라이드 등
 - 발표자를 미리 선정한다.
 - 장비를 설치하고 자료를 미리 검토한다.
- 진행절차：
 - 지도자는 주제와 발표자를 소개한다.
 - 발표자는 시청각자료를 소개하고, 주의해서 볼 점을 지적한다.

- 발표가 끝나면 질의 응답시간을 갖는다.
- 지도자는 논의 주제를 요약하고 모임을 마무리 짓는다.

4) 게시 및 전시(Demonstration)

○ 특징 :

게시 및 전시는 참여자들의 학습욕구를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내용을 설명하며 요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전시장소는 참여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고, 전시내용은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이후 활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한다.

○ 사전준비 :

- 전시의 목적과 내용을 결정한다.
- 시각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는 실물이나 모형·그림 등의 자료를 구한다.

○ 진행절차 :

- 전시의 목적에 따라 자료를 전시(혹은 게시)한다.
- 참여자들에게 전시의 목적과 전시물을 볼 때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알린 후 전시물을 관람하도록 한다.
- 관람후에는 참여자들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전시나 게시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다.

5) 토론(Debate)

○ 특징 :

토론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이 해결방법을 체계적으로 모색해 가는 것이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타인의 의견을 주의깊게 들으면서 협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한다. 토론에서는 참여자가 모두 참여하여 여러가지 생각과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태도를 익히게 할 수 있지만, 참여자들이 주제에 대한 사전경험과 지식이 있어야하고, 너무 인원이 많으면 원활하게 토론이 진행될 수 없고 주제에서 자주 이탈되는 단점이 있다.

○ 사전준비 :

- 주제를 참여자들에게 알려주고 자료를 제공한다.
- 주제 발표할 사람을 선정한다.

- 의장을 선출한다.
- 진행절차 :
- 의장은 참여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토의목적과 진행방법 등에 관해 간단히 설명하면서 모임을 시작한다.
 - 의제를 발표하게 한다.
 - 주제에 관하여 참여자 전원이 토의에 참가하도록 유도한다.
 - 한 사람이 너무 오래 이야기하거나, 반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방관자나 소외자가 없도록 참여자들을 통제한다.
 - 토의가 의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 의견이나 제안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유도한다.
 - 문제의 처리방법, 실천방법들이 제시되었다면 이후의 실천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천의욕을 고취시킨다.
 - 의장은 토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중요점을 강조하면서 모임을 종결한다.

6) 분임토의(Group Discussion)

○ 특징 :

소규모의 공개토론으로 모든 구성원이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한 집단을 3~8명의 소집단으로 편성하여 각 집단별로 과제를 맡겨 토론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전체집단에 발표하게 하는 방법이다. 분임토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제를 완전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짧은시간 동안 모든 참여자들이 토론에 참가하여 많은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분임토의는 장난으로 흐르기 쉬우며 토의 내용이 주제에서 벗어나기 쉽고 넉넉한 토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 사전준비 :

- 다른 활동방법의 일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지도자는 논의될 주제를 명확히 하고 질문을 준비한다.

○ 진행절차 :

- 토의 목적과 분임토의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설명하며, 분임토의가 시작되면 분임토의 집단으로 모이도록 한다.
- 각 분임집단은 사회자와 서기를 선출하도록 한다.
- 토론의 주제를 소개하고 참여자들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 각 분임의 서기는 토론의 내용을 기록한다.
- 분임의 수가 적으면 모든 분임이 전체 앞에서 토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하도록 하고, 그 수가 많으면 원하는 분임만 발표하도록 한다.
- 지도자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서 모임을 마무리 짓는다.

7) 역할연기(Role Play)

○ 특징 :

역할연기 및 극화는 집단구성원들 자신이 설정된 구체적 상황이나 희곡대본에 따라 정해진 역할을 실연해 보는 것이다. 연기자는 자신이 맡은 배역이나 역할에 따라 행동하고 반응함으로써 그 배역이나 역할의 의무나 느낌을 알 수 있게 된다. 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다 자유롭게 감정과 태도를 표현할 수 있게 되어 개방적이 되고 참여를 즐기게 된다. 극화는 기존의 희곡대본을 사용하거나 참여자들이 찬 촌극에 따라 배역을 맡고 연기를 하지만, 역할 연기는 특정 상황이 기술되면 그 상황에 맞게 연기자들이 연기를 해낸다.

○ 사전준비 :

- 문제에 관련된 구체적 상황을 설정하거나, 희곡 대본을 선정한다.
- (극화일 경우) 배역을 선정하고 대본을 나눠주어 대본에 따라 연습을 하도록 한다.

○ 진행절차 :

- 지도자는 상황과 인물에 대해 간단히 묘사한다.
- (역할연기일 경우) 지도자는 설정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연기자를 선출한 다음 역할과 대사를 스스로 구성해 보도록 한다.
- 극을 상연한다.
- 참여자들은 극을 본 다음 느낀 점들을 이야기하고,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 지도자는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고 연기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8) 관찰 · 현지답사(Field Trip)

○ 특징 :

관찰과 현지답사는 목표는 서로 다르지만 활동진행 절차는 유사하다. 이러한

활동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므로 참여자들의 참여의욕을 높여주어야 성공적으로 활동을 이끌 수 있다. 관찰과 현지답사 전에 목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방문 후에는 경험을 정리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 사전준비 :

-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 관찰대상 기관으로부터 방문 허가를 받는다.
- 관찰대상 기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숙지한다.
- 관찰해야 할 점과 배경지식에 대해 알아둔다.

○ 진행절차 :

- 방문 목표에 대해 논의하고, 지도자는 관찰대상 기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나 주의점 등을 참여자들에게 알린다.
- 관찰이나 현지답사를 실시한다.
- 방문경험을 논의하고 방문을 마친다.

9) 워크샵(Workshop)

○ 특징 :

워크샵은 프로그램이나 특정주제(예 : 신문만들기)의 과정을 설명하기에 유용한 방법으로, 참여자들이 직접 활동을 해보도록 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하위집단별로 모여 전과정의 일부분을 맡아 수행한다. 활동이 끝나면 하위집단별로 각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한다. 워크샵은 집단이 작으므로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고 자유로운 형태의 활동이므로 참여자들의 긴장이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

○ 사전준비 :

- 참여자들이 참여할 다양한 주제 영역을 선택한다. 참여자들이 여러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간제한을 둔다.
- 교재와 준비물을 분배한다.
- 완성된 작품을 예시로 보여준다.

○ 진행절차 :

- 참여자들이 원하는 워크샵 내용이나 과정을 선택하도록 한다.
- 선택한 워크샵에 참여하도록 하고 시간이 허락되면 여러 워크샵에 참여해

보도록 한다. 여러 워크샵에 참여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간제한을 두고 신호에 따라 다음 워크샵으로 옮겨가도록 한다.

- 워크샵이 끝나면 전체가 모여서 경험을 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10) 구안법 (Project Method)

○ 특징 :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과제를 선택, 계획, 추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참여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과제 내용을 익히게 된다. 일종의 실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실습과 다른 점은 실습기간 동안 할 일을 참여자들이 자치적으로 선택하고 해결해 나간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안법에서 수행되는 과제는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사전준비 :

- 과제를 선택한다. 과제의 선택은 지도자가 임의로 선택하거나,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거나, 지도자가 몇 가지 과제목록을 제시하고 참여자들이 그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 진행절차 :

- 과제 수행계획을 세운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과제의 개요, 세부일정
 - 과제에 필요한 내용, 설비
 - 과제 수행 순서
 - 과제 진척도 기록방법
 - 평가방법과 평가시기
- 과제를 수행한다.
- 과제를 평가한다.

위에서 제시한 10개의 수련활동 방법은 지극히 일반적인 것이다. 수련활동 지도자는 이 방법들을 상황에 적절하게 변형시킬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청소년문제는 원인→결과의 환원주의적 시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인간행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단일한 정형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인간(청소년)은 목적과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계획을 구상하고 문화를 만들며, 가치를 가지며 인간의 행위는 여러가지 계획, 가치, 목적들에 의해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다. 한 마디로 인간은 자신에게 의미로운 세계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 행동이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인간 이외의 대상들과 구분이 된다. 인간에 대한 이러한 특징은 인간을 부분의 합으로 써가 아니라 분리될 수 없는 통합적인 전체로 이해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실천지향의 청소년문제는 사실(facts)을 발견해 내는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의미(meaning)를 만들어 내는 예술적 행위의 삶이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하다. 의미는 상황지향이며 상황은 주체와 객체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 바로 청소년문제는 어른과 아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해되어야 한다. 수련활동 속의 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들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다.

□ 지역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구성

청소년 지역사회봉사활동은 다음과 같은 네 단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1. 인식프로그램 : 활동소개

봉사활동의 의미와 목적 등에 대한 포괄적인 소개를 담는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들이 왜 그 활동을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활동이 적극적이 되고 열성을 띠게 되며 한번의 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흥미와 보람을 느끼며 주체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 또한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예비지식을 입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이 곳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봉사활동들을 할 수 있는가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2. 이해프로그램 : 간접체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인식된 내용들을 간접체험케 함으로서 활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시키고 봉사활동에 실제로 참여케 하는 동기를 갖게 한다. 여기에는 수련회 등에서 다른 활동들과 함께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따라서 봉사활동 현장에서의 활동이라기 보다는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단계의 프로그램들로 구성했다.

3. 실행프로그램 : 직접체험

인식활동을 통해 봉사활동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이해활동을 통해 간접체험 활동을 하여 직접체험활동을 위한 기반을 다진 후 실행활동에 들어 간다. 앞의 두 과정에서 전개되는 활동들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후 이번 과정에서의 활동들을 통해서는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수혜대상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 즉 인식하고 이해한 내용을 현장에서 실제로 행함으로써 직접경험을 하게 하는 과정이다. 여기서는 주로 장기간에 걸쳐 전개되는 활동 프로그램들을 담고 있다.

4. 평가프로그램 : 나눔과 평가

위의 활동들을 통해 생각하고 깨닫고 느낀 점들을 스스로 평가해 보고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응용활동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 4단계의 활동프로그램들은 대체로 주제의 논리와 난이도에 따른 단계적 접근이나 각 단계별 활동들 간에 심리적인 면에서의 엄격한 순서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각 프로그램은 3개의 활동들로 구성되며 각 활동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1) 활동개요 – 활동의 필요성이나 의미를 서술한다.
- 2) 활동목표 – 구체적 행동지향으로 진술한다.
- 3) 활동과정 – 4~5개의 단위활동으로 구성된 활동과정을 간단하게 서술한다.
- 4) 활동내용 – 수련활동의 각분으로 가능한 구체적인 지도요령(instruction)으로 제시한다. 필요하면 활동내용을 그림으로 구성한다. 상기 4개의 과정들은 독립적이면서 상호연관이 있는 순차적으로 심화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한다.
- 5) 유의사항 – 활동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 6) 도움자료 – 활동을 심화시키거나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를 소개한다.

프로그램 내용은 활동 프로그램의 융통성을 고려하면서 실제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활동방법과 그 활동내용을 구성할 구체적인 자료, 그리고 이해를 돋거나 활동을 발전시킬 국내외의 봉사활동 사례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학교의 봉사클럽(장기), 청소년단체의 봉사활동(단기), 수련활동에서의 봉사활동(일회적) 등에서 자신들의 목적과 규모, 그리고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 과정에 있어서 융통성을 기했다.

또한 활동별로 관련 자료와 관련 기관을 소개하여 지도자들이 활동 지도시 쉽게 필요한 정보와 자문에 접할 수 있게 하였다.

청소년 지역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활동들로 구성되었다.

지역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구성

	활동명	활동과정	활동내용
인 식 프 로 그 램	기쁨은 배로 고통은 반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상식수준 • VTR 작품감상 • 자원봉사활동 바로알기 • 자원봉사 표어·로고 만들기 	자원봉사활동은 이웃과 행복을 나눔으로써 더 큰 행복을 누리는 활동이다.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청소년 지역사회봉사 활동을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사랑의 지도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마을 알기 •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 • 우리동네 탐방 • 사랑의 지도만들기 	「사랑의 지도만들기」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들을 조사하여 지도를 만들어 봄으로써 지역과 봉사활동의 영역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활동이다.
	백문이 불여일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TR 작품감상 • 방문일정표 짜기 • 선물준비 • 시설견학 • 느낌 나누기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 청소년들은 봉사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환경과 생활상을 들려봄으로써 지역사회 안에 자신과 또 다른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이 해 프 로 그 램	『내』가『네』 가 되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글 소개 • 즐겁게 노래를 • 장애체험활동 • 함께 나누기 	청소년들은 장애인들이 지난 고통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봄으로써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함께 살아갈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 들일 자세를 지니게 된다.
	손끝으로 사랑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 「작은세상」 배우기 • 지화로 「가,나,다,라…」를 • 간단한 수화단어 익히기 • 「작은세상」을 수화로 	인간은 누구나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체험이 있으며 이것을 남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청각 장애인들의 수화동작을 함께 배워 보고 수화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 봄으로써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해 본다.
작은 정성 큰 기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민지역 탁아시설 소개 • 「놀이방의 하루일과표」 작성 • 「우유팩 외자」 만들기 • 놀이방 어린이와 하루를 	도시의 화려함과 밝은 면 속에 가려져 언뜻 보아서는 알 수 없는 도시빈민의 탁아시설과 빈민아동에 대해 알아 보고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봉사활동들을 찾아 보도록 한다.	

	활동명	활동과정	활동내용
실 행 프 로 그 램	꽃동네를 찾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동네」 소개 · 방문계획 · 우리는 한가족 · 사랑의 모금활동 	종합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를 찾 아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조건없는 사랑을 받고 살아가 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랑을 느끼고, 배우고 실천으로 옮겨 본다.
	세대를 넘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공원 나들이 · 재가노인복지봉사반 · 도우미 활동기술 익히기 · 손주역할 해보기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청소년들 이 노인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들을 이해하고 공경할 수 있게 하는데 한 몫을 담당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재활용으로 복지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매립장 견학 · 우리집 쓰레기부터 · 학교쓰레기 분리수거 · 재활용으로 복지를 	쓰레기 매립장 견학을 통해 환경과 분리되어 살 수 없는 인간의 조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쓰레기 재활용이 환경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배워 간단한 재활용활동부터 전개해 본다.
평 가 프 로 그 램	사랑 나누기 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계획 · 포스터 제작과 홍보 · 봉사지를 향하여 · 시상 및 사례발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누가 더 잘 하 나, 더 많이 하나를 재어 본다면, 청 소년들은 선의의 경쟁이 무엇인가를 진실로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봉사활동 이미지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봉사활동 이미지 측정 · 봉사활동 참여 · 2차 봉사활동 이미지 측정 · 나눔의 자리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우리는 저마다 막연한 상을 갖고 있다. 봉사활동에 관한 간단한 이미지 테스트를 통 해 봉사활동의 가치를 바로 알고 지속적인 참여의욕을 북돋아 준다.

I. 인식 프로그램



기쁨은 바로 고통은 반으로
사랑의 지도만들기
백문이 불여일견

기쁨은 배로 고통은 반으로

자원봉사활동은 이웃과 행복을 나눔으로써 더 큰 행복을 누리는 활동이다.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청소년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남과 행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1. 활동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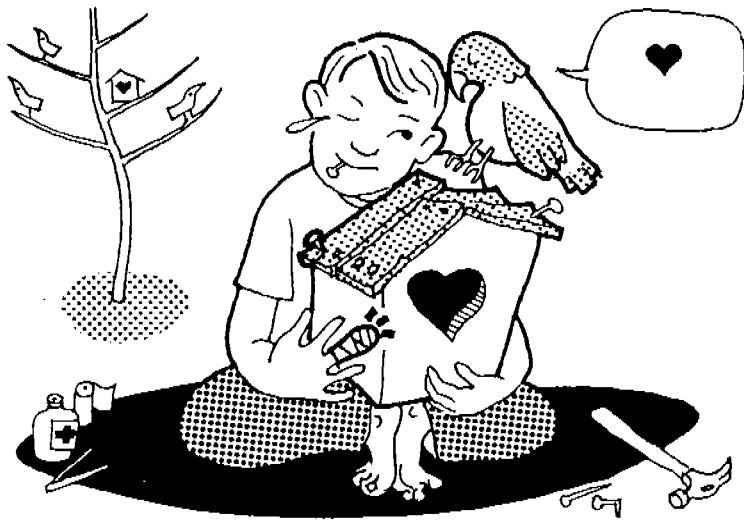
목표	자원봉사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되도록 한다.			
활동과정	자원봉사 상식 수준 이미 알고 있거나 경험해 본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자신의 자원봉사활동 인식수준을 측정해 보게 한다.	VTR 작품감상 자원봉사활동을 포괄적으로 소개해 줄 수 있는 VTR 작품을 감상하고 느낌을 나누게 한다.	자원봉사활동 바로알기 지도자나 전문강사의 강의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바른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한다.	자원봉사 표어·로고 만들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표어나 로고를 만들어 보게 한다.

2. 활동 내용

과정 1 자원봉사 상식수준

자원봉사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고 실태를 알게 한다.

- ▷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5~6명씩 조를 만든다.
- ▷ 지도자는 간단하게 토의 주제와 소재를 제시해 준다.
 - ▶ 자원봉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가 ?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 ▶ 각자의 활동경험 나누기



- ▶ 자원봉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각 조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게 한다.
- ▷ 조 토론 후 대표들로 하여금 토의된 내용을 발표하게 한다.
- ▷ 모든 조의 발표가 끝난 후 제기된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하여 정리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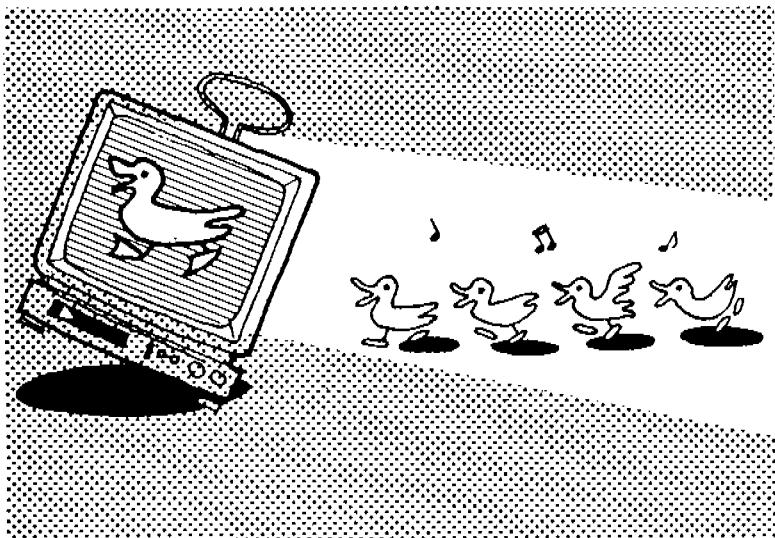
과정 2 VTR 작품감상

자원봉사활동을 포괄적으로 소개해 줄 수 있는 VTR 작품을 선정하여 감상한 후 토론을 통해 느낀 바를 서로 나누게 한다.

- ▷ 지도자는 자원봉사활동을 총체적으로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한다(도움자료 ①).

▶ 강옥선씨의 위기탈출(93.5.10/60분 MBC 제작)

가진 재산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사람은 마음이 넉넉해질 수 있고, 또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일단 아름답다. 15년전에 분양받은 20평짜리 산비탈 연립주택을 하늘이 준 복이라고 여기고 죽을 때까지 감사히 거기서 살겠다는 마음 하나만 봐도 그렇고, 게다가 어떻 게 하면 자신이 가진 여유를 남들에게 베풀까를 걱정하는 것을 봐도 그렇다. 세평짜리 지하실 구석에서 온종일 재봉틀을 돌리며 사는 고



단한 생활이면서도 쓰레기 문제에 쏠는 지대한 관심에다가 누군지도 모르는 소년가장에게 생활비를 쪼개어 보내는 정성에, 외로운 할머니들을 초대하여 밤새워 대접을 하기도 하는 그야말로 가진 것에 비하여 부자처럼 사는 넉넉한 주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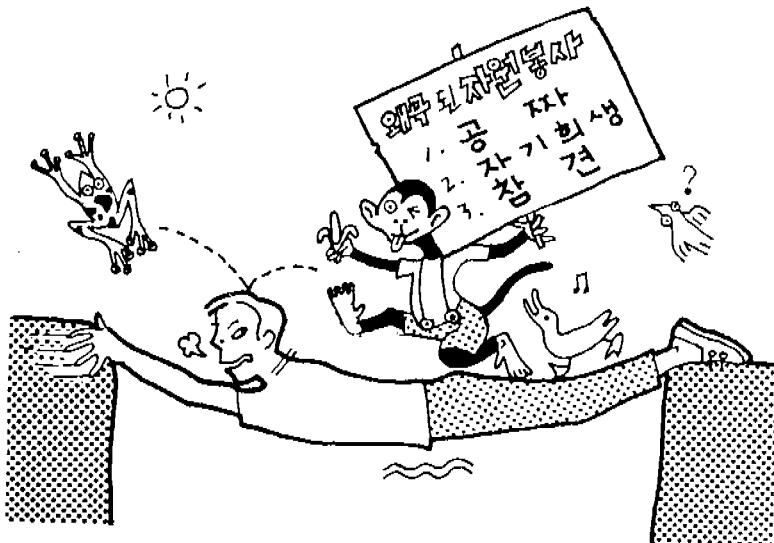
▶ 산악인 이기영씨(87.11.2/60분 MBC 제작)

치과의사인 이기영씨는 본업보다는 내장산 보호운동에 더 열심이다. 20년간 1천번도 넘게 내장산만 오르내리며 사재로 음료시설을 설치하거나 등산로를 개발하고 슬라이드, 비디오, 책자 등도 만들어 내장산 홍보에 열중하고 있다.

- ▷ 작품은 관람하는 청소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하고 방영시간도 연령을 고려하여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비교적 짧은 것으로 한다.
- ▷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지하게 감상하도록 한다.
- ▷ 느낀 내용을 활발하게 발표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시켜 준다.
- ▷ 발표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수렴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준다.

과정 3 자원봉사활동 바로알기

지도자나 초청강사는 소그룹토의와 VTR 작품 감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접한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의 의의와 필요성 그리고 활동 시 요구되는 기초 지식들을 강의를 통해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한다.



- ▷ 자원봉사란 무엇인가?(도움자료 ②③)
- ▷ 자원봉사는 왜 하는가?(도움자료 ④)
- ▷ 우리나라에서의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의미를 지닌 풍속에 대해 알아 본다(도움자료 ⑤).
- ▷ 자원봉사자의 자세(도움자료 ⑥)
- ▷ 자원봉사활동시 기타 참고할 사항
- ▷ 왜곡된 자원봉사의 개념을 예로 소개하며 자원봉사의 참 의미를 명확히 인식시킨다(도움자료 ⑦).

과정 4 자원봉사 표어·로고 만들기

상기된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에 대해 인식한 내용을 정리하고 창의력도 발휘할 수 있도록 표어나 로고를 만들어 보게한다.

- ▷ 앞에서 진행된 활동들을 통해 얻은 주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게 한다.
- ▷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이미 만들어진 표어나 로고를 예로 제시하여 아이디어를 준다(도움자료 ⑧).
- ▷ 각자 개성을 살려 자신이 생각한 표어나 로고를 만들게 한다.
- ▷ 다함께 작품 품평회를 갖는다.

3. 유의사항

- ▷ 지도자는 활동 전에 봉사활동에 대해 나름대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 집단의 성격과 활동시간, 연령 등을 고려하여 활동내용과 순서를 융통성 있게 조정한다.
- ▷ 지도자는 문제제기만 하여주고 청소년 스스로 모든 과정을 해나가도록 유도해 준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정리하여 봄으로써 부족함을 느끼고 탐구욕을 갖도록 동기유발 시킨다. 그러나 그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좋다.
- ▷ 진행하는 지도자는 성과가 좋았거나 인상깊었던 활동사례 그리고 재미있었던 사건들을 결돌여 활동이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배려한다.

4. 도움자료

① VTR 작품소개

▶ 섬마을 정선생님(1985/60분/MBC)

낙도인 내도의 분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정소설 선생은 이발소와 세탁소의 무료운영, 경로 위안잔치, 독서실과 유아교실의 운영 등의 봉사활동을 지금껏 계속해 오고 있다.

▶ 조원일씨의 겨울나는 두 가지 방법(1985/60분/MBC)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에서 소규모의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조원일씨(41세)는 그 자신이 재단사와 미싱사를 겸하면서 공원 4명과 함께 태권도복과 기성복 등을 주문 생산하고 있다. 조원일씨는 우연한 기회에 공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야학교와 인연을 맺고, 1981년 화양동에 경동 중·고등 청소년학교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해 오고 있다. 자원대학생 18명으로 강사진을 짠 이 학교에서는 70여 명의 근로청소년 학생들이 배움의 길을 닦고 있으며 조씨는 근로 청소년들에게 취업 상담 등 생활지도도 맡아 하고 있다. 밤낮이 따로 없는 그의 성실한 삶과 함께 불우하지만 건강한 미래상을 그리고 있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담았다.

▶ 천사님, 우리들의 천사님(1986/60분/MBC)

1972년부터 14년동안이나 경남 산청군 성심 인애병원에서 불치의 나환자를 돌보고 있는 기시다 테레사 수녀(53세)는 일본 동경에서 태어난 이국여성. 불구하고 3도 이상의 양성환자와 60세 이상의 무의탁 환자 4백60여명이 수용되어 있는 이 병원에는 간호 인력이 부족해 잠시도 쉴 틈이 없지만 테레사 수녀는 환자들의 편지까지 대신 써주는 정성을 보이며 이들로부터 「우리들의 천사님」이라는 또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마침 「민속의 날」을 맞아 환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테레사 수녀의 일상을 통해, 봉사와 사랑으로 일관된 그녀의 삶을 조명해 보았다.

▶ 수와 진의 여름나기(1987/1987/MBC)

심장병 어린이를 돋기 위해 명동성당 앞에서 노래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는 안상수, 안상진 쌍동이형제. 그동안 모금한 돈으로 30여

명의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건강을 되찾아온 그들은 새로운 20여명의 수술비를 더 마련하기 위해 1천 5백만원 목표액으로 정하고 다시 전국일주 모금운동에 나섰다.

▶ **목발의 골목대장 베로니카(1987/60분/MBC)**

소아마비의 불편한 몸이지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김영매씨(26세)는 고입·대입 검정고시를 거쳐 신학대학 2학년까지 다니다가 지금은 휴학중인 성당 유아부 교사이다. 장사를 하는 어머니와 아파트 경비원인 아버지를 도와 살림을 꾸려나가는 그녀의 아름다운 삶.

▶ **부름의 전화(1988/60분/MBC)**

부름의 전화는 노인, 환자들이 봉사자가 필요할 때 전화를 요청하면 봉사자가 파송되어 무보수로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그 봉사대원 우종득씨는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물질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손길과 보살핌이 더 절실할 때가 많다고 생각하며,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 **이발사 조성기씨의 금요일(1988/60분/MBC)**

다섯살때 제주 4.3폭동사건으로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그곳 한림읍에 사는 조성기(44세)씨는 어려운 집안형편 때문에 열네살 때부터 이발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1남1녀의 화목한 가정과 자기 이름으로 된 이발관을 갖게 된 30대 이후, 그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소망을 한가지씩 달성하면서 살아간다.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학비를 보태주고, 이발료 없는 벽지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무료이발을 해 주는가 하면, 마을금고 이사를 8년째 맡고 있다. 자그마한 소망을 달성해 가면서 기쁨속에 살아가는 조성기씨의 삶을 조명해 본다.

▶ **넓고 넓은 바닷가에(1988/60분/MBC)**

자연보호, 지방문화재보호운동 등에는 늘 앞장서는 농부 윤대현씨는 공고를 졸업 하였기 때문에 동네의 전자제품 수리를 해주기도 하고, 학교 행사때마다 자진해서 방송시설 설치를 도맡아 해서 방송국이라는 별명을 가졌다. 그간 자식처럼 돌봐온 문화재 쳐용암을 두고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자신이 동네를 떠나야 하는 그의 아쉬운 마음을 그렸다.

▶ 양영종 기자의 창간일지(1989/60분/MBC)

89년 4월 7일 창간한 주간신문 [장애인 복지뉴스]의 기자인 양영종씨와 그의 동료 10여명은 취재, 원고작성, 창간기금모금, 광고모집, 지사 및 지국장모집, 녹음실과 자료도서실 준비 등으로 바쁘다.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창간되었지만, 비장애인, 곧 정상인들도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는 젊은 언론인들의 생활을 함께 살펴본다.

▶ 진태 삼촌의 일곱손기락(1989/60분/MBC)

대학생이면서 야간업소 악사인 김진태(36세)씨는 소년원생들의 상담역으로 몇 해째 자원봉사를 해 오면서 요즘엔 8명의 소년원 출원자들을 자신의 집에서 기거시키면서 그들의 정상적 사회생활에의 적응을 돋고 있다. 갈수록 이기주의가 심화되고,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지는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결혼과 세속적 영달마저 단념하고 소년원 출원 청소년들을 둘보는 김진태씨의 삶을 통하여 참된 이웃사랑의 방법과 의미를 생각해 보고, 우리 청소년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해 본다.

▶ 밥집 할머니의 장타령(1990/60분/MBC)

종로구 예지동 시계골목에서 26년째 밥집을 운영하며 주변의 불우한 사람들에게 공짜밥을 먹여주면서 자신의 배고팠던 시절을 지워가고 있는 이경숙 할머니의 이야기.

▶ 철아! 올지마(1991/60분/MBC)

유난스레 사람을 좋아하고 활달한 윤혜숙씨는 몇 해 전 홀트복지회에서 주관하는 ‘해외입양아’들의 국내 위탁모를 하면서 하숙을 치기 시작했고 윤혜숙씨의 품을 거쳐 해외로 나간 아기들이 4명이 되었다. 다섯번째로 맡은 아기 철희는 뇌성마비로 국내입양이 예정되었었으나 취소되었고, 해외에서도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정박아 보호시설인 성락원에 보내지고 말았다. 윤혜숙씨네는 가족회의 끝에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서 호적에 친자로 입적시켰다. 철희가 가족으로 들어온 후 평범한 윤혜숙씨네는 많은 일들이 생겼다. 모든 일들이 장애자 아들, 장애자 동생 철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사정을 아는 이웃 사람들도 이런 저런 선물을 철희에게 하기 시작했고 남편 친구들은 돈을 모아서 매달 통장으로 보내주었다. 자신들은 감히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일을 윤혜숙씨가 하고 있다고 격려를 해주면서 자신들의 용기없음을 부끄러워 하기도했다. 평범한 가정에 느닷없이 끼어든 새 식구 철희를 통해서 윤혜숙씨는 세상에 아

직도 남겨져 있는 인정과 사랑을 확인하고 새삼 행복을 느낀다.

▶ **요한을 위하여(1991/60분/MBC)**

충남 천안군 성환읍에서 표구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영자씨에게는 청각장애인 아들 요한이 있다. 성환읍의 장애자 부모들은 장애자 전문학교인 인애학교 설립 부지를 마련하지만 인근 주민 700여명이 작성한 건립 반대 진정서는 장애자 부모들의 마음에 뜻을 박는다. 요한이 엄마는 인애학교 건립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의 명분이야 어찌 됐든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군청 사람들이 야속하기만 하다.

▶ **우리동네 한씨(1992/60분/MBC)**

신촌 연세대 입구 철둑길 아래에는 3백여평의 화단이 조성되어 꽃피는 계절이면 아름다운 꽃으로 뒤덮인다. 모르는 사람은 깜새조차 챌 수 없는 이 꽃동산을 가꾸는 사람은 이 동네에서 38년째 살아오는 한상태씨. 63세의 나이라 밑기지 않을 만큼 건강한 신체, 그 체력으로 그는 민둥산이었던 안산을 푸르게 하였고, 철둑길을 꽃동산으로 가꾸고, 동네의 온갖 길흉사를 다 떠맡는다. 명분과 도리를 중시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떳떳하면 누가 뭐라해도 그 길을 간다는 자조의 선비 정신을 체현하고 있다. 그러나 어지러운 세상은 그의 참뜻을 몰라준다. 엄격한 교육과 권위있는 어른으로서 한상태씨가 하는 실천은 요즈음 자주 벽에 부딪힌다.

▶ **어서옵쇼(1992/60분/MBC)**

단지 배곯지 않는다는 매력때문에 식당에 몸담은지 33년. 이제는 250석 규모의 큰 식당(온달면옥)의 주인이 되었지만 홍성옥씨는 아직도 자신이 식당 보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장님보다는 큰아저씨란 소리가 듣기 편하다. 그런 홍씨가 옥호를 온달이라고 지은데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인간이 세상을 가장 편하게 사는 방법은 온달처럼 바보스럽게 사는 것이라는 믿음때문이다. 그래서 11년 전 개업을 할 때의 설렁탕 값 1,300원을 아직 한푼도 올리지 못한다. 단골 손님들인 파고다공원 노인들의 주머니 사정 생각 때문이다. 젊은시절, 돈 못버는 처지에 결혼이란 한 여자 고생시키기 십상이라는 생각에 아직 혁신인 홍씨. 따스한 마음 하나로 우직하게 살아가는 홍씨의 ‘온달처세술’은 세상이 각박하기에 더욱 향기롭다.

▶ 상처(1992/60분/MBC)

6.25 포화속에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고아들을 가까이서 지켜본 뒤 전신씨는 고소득이 보장된 의사직을 마다하고 소외된 삶의 구제 사업에 뛰어들었고, 40년 넘는 세월을 그 한 걸로 살아왔다. 전씨는 현재 검정고시 준비생 가르치는 일, 서울역에 나가 결인과 중국 교포들을 무료로 이발해 주는 일까지, 잇속없이 오로지 사랑으로 바쁘기만 하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아직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한다.

▶ 장애인 도심 정복 훈련(1986/60분/KBS)

이제는 파란불이다.

장애인들의 자립의지를 고취하고 재활성취를 위한 교육의 승리를 실증하는 한편 사회 일반의 올바른 장애인관을 고양한다. 야영훈련, 북한강 탐사, 제주도, 한라산 적설기 등반, 도시환경 적응훈련 등의 전 훈련과정을 1년간의 장기 제작으로 밀도있게 기록한 다큐멘터리이다.

* 자료 : 한국청소년연맹, 1993.

KBS영상사업단, 1994.

MBC프로덕션, 1994.

② 참뜻

자원봉사활동이란 무엇인가 ? 자원봉사활동과 자원봉사자에 대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말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몇 개념정의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사회사업사전(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77)

「자원봉사란 개인·집단·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예방하거나 통제·개선하는 일이며 공적·사적 조직에서 서비스에 대응하는 보수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들에 의해 이루어 진다.」

▶ 한국 사회복지총람

「자원봉사자는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일하는 집단이나 기관의 책임 일부를 감당하는 차로 노력의 댓가를 지불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다.」

▶ H.B. Trecker(미국 사회복지 학자)

「자원봉사자는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관여하는 사회기관과 함께 책임을 나누고자 무보수로 자발적인 노력을 제공하는 지역사회내의 개인이다.」

* 자료 : 김영정 외, 1985.

③ 흐름

자원봉사의 기원이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으나 남을 돋겠다는 것은 인류가 생겨나면서부터 일것으로 추정한다. 그 대표적인 몇몇 예로 로마시대 아씨씨의 성프란체스코, 500 여년전 이탈리아의 성 베네딕또, 약 200년전의 영국에서의 어느 구두수선 노인과 바네트 목사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개척시대인 17세기 초 이민자들의 상부상조에 의해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지에서 19세기 부터 크게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자원봉사에는 크게 두가지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자선조직화운동(Charity Organization Movement)’이고 다른 하나는 ‘인보관운동(Social Settlement)’이다. 자원조직화운동은 사회진화적 접근으로서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초기에는 부유층이나 중상류층 부인들이 ‘친절한 방문자’로 불리며 봉사했으며 이를외에 다른 독지가나 종교단체들이 참여했다. 이 운동은 초기에는 빈민구제를 그 목적으로 하였으며 자선사업적 성격이 커졌다. 그러나 그 이념이나 활동에 있어서 양상을 달리하는 인보관운동은 주로 지식층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직접 가난한 지역에 들어가 함께 생활하면서 도와주고 이를 통해 사회개혁을 하려는 급진주의, 자유주의적 운동이라 할 수 있다. YMCA, YWCA, 걸·보이 스카웃 등이 이에 속한다.

* 자료 :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 1990.

④ 왜 하는가

그 댓가가 크기 때문이다.

자원봉사활동은 각 개인이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사회적 존재로 자각하게 하며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봉사하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적 성장과 발달 그리고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하는 기회를 갖게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자기발전과 성숙은 삶을

보다 의미 있고 보람되게 꾸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지극히 이해관계를 따지는 현대의 생활에서도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보다 풍부하고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실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사회성을 강화하고 있다.

솔로몬과 바우어즈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자원봉사는 마음의 평화, 자기 존엄성, 지역사회 존중의 감정을 가져다 준다.
즉 동료 인간들 사이에서 자신의 공지 내지 위치를 확인하게 되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를 통해서 자아를 발달시킬 수 있다.
- 일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후에 성취감으로 인해 자신감과 개인적인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 자원봉사는 자기가 지역사회에 가치있는 존재가 되는 방법은 좋은 일을 베푸는데 대한 보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 자원봉사는 인간이 무언가 가치있는 부분에 소속되고 남에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존재가 되며, 사회에 의해 높이 평가받는 한 부분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내적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 자원봉사는 개인을 활동적이고 유용하게 그리고 성장하게 유지시키며 새로운 삶의 목적을 제시하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가져온다.
- 자원봉사는 새로운 기술을 학습 할 수 있게 하고 이미 가진 기술을 더욱 발달시킨다. 즉 새로운 사물과 일들에 대한 흥미가 발전되기 때문에 지적인 활동과 교육적 활동이 자극을 받아 지식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다.
- 자원봉사는 많은 레크레이션의 가치들을 지니고 있다. 즉 개인적인 안정감을 증진시키면서도 권태, 단조로움, 그리고 외로움을 떨쳐 버리게 한다.
- 자원봉사는 현재에 할 수 있는 많은 흥미있고 훌륭있는 일감을 제공하며 동시에 미래를 위한 많은 계획들과 프로그램들을 제시해 준다.
- 자원봉사는 개인의 올바른 판단력과 잠재적인 지도력을 개발해 준다.
- 자원봉사는 사람들을 만나고 공적인 발언을 하거나 남들과 타협하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자신의 기지를 발휘하며 논쟁을 벌이는 등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의 훈련기회를 제공한다.
- 자원봉사는 개인의 사교범위를 넓혀 많은 새롭고 유익한 친구를 사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자원봉사는 개인의 직책, 직종, 성별, 연령에 따르는 인간관계의 전망을 발전시킨다.

⑤ 우리나라에서의 자원봉사활동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의 기원을 삼한 시대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상부 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계(契) 조직은 삼한시대에 성행했으며, 이는 순수한 주민 협동체 조직으로, 취미나 그밖의 생활의 공통된 분야에서 공동으로 회유(會遊), 제례(祭禮) 또는 회식(會食) 같은 행사를 통해 이해관계를 같이 해왔다. 이런 계조직은 신라시대에 이르러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오늘날까지 유사한 형태로 전달되어지고 있다. 이 계조직이 상부상조를 위한 조직임에는 틀림없으나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간주하기에는 성질상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신라시대에는 계 이외에도 두레라고 하는, 촌락단위로 조직된 농촌사회의 상호협력, 감찰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 협동체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상호협조 정신과 제도적 측면을 찾아 볼 수 있는 것 같다. 현대적 의미의 자원봉사활동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조선 이후로 기독교가 도래되고 그에 따르는 기독교 사상, 민주주의 사상이 유입되면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본다. 기독교인으로서의 개인적 봉사, 교회가 하는 봉사활동 이외에 YMCA, YWCA활동이 전개되고 인도주의와 자원봉사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적십자 운동이 활성화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대적 자원봉사활동이 가속화하여 발전하기 시작했다.

⑥ 자원봉사자의 자세

- 삶에 대한 철저한 자세 – 진실되고 적극적인 확신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 축복받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는 소명감을 가져야 한다.
-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안하면 안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 시간관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기관이나 단체의 목표를 이해하고 동조해야 한다.
-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참여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 자원봉사자간에 서로 존중하고, 관심을 가지며, 이해하고,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

⑦ 왜곡된 개념들

1) 자원봉사활동 : 공짜

텔레비전의 코미디 프로그램 등에서 텔렌트가 ‘자원봉사자’라는 용어를 계속적으로 강조할 때, 그것은 ‘출연료 없음’ 즉 ‘공짜출연’을 의미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일상회화 가운데서 ‘자원봉사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도 역시 ‘공짜’를 의미하고 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2) 자원봉사활동 : 자기희생, 멸사봉공

한 ‘노인보호’에 대한 비디오 드라마에서 20대 후반의 직장여성인 여주인공이 의모, 의조부, 의부, 그리고 남편으로까지 계속 이어지는 부양을 한탄하고 울면서 “나의 인생은 자원봉사였나?”라고 외치고 있다. 여기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이라는 용어에 내포된 의미는 ‘자기희생’, ‘멸사봉공’이라는 것이다.

3) 자원봉사활동 : 참견

일본에서 발행부수 500만부를 자랑하는 국민학생부터 직장인까지 애독하는 만화지인 ‘주간소년 점프’에 연재되었던 한 만화에 자원봉사자가 등장한다. 여기서 이 자원봉사자는 ‘세상물정 모르고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 취미라는 일종의 변태’, ‘참견하며 돌아 다니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 즉 “세상 물정 모르고”, “참견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취미”라고 하는 잘못된 의미의 특수한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

이상의 매스컴의 예를 근거로 하여 일반시민이 갖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이미지를 정리해 보면 우선 ‘자원봉사활동’을 ‘나쁜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선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좋은 일이라는 것에서 ‘공짜’, ‘자기희생’, ‘참견’등의 어둡고 수상한 느낌이 배어있다. 이 세가지 언어는 각각 봉사활동의 어떤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 ‘공짜’는 무상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희생’은 반대급부를 구하지 않는 이타주의를 의미하고, ‘참견’은 인간관계 형성의 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주변적인 단편을 설명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자원봉사활동의 가장 중심적인 성격이 빠져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 이미지로부터 잘못된 인식 즉 “자원봉사활동은 돈과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나는 자신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정도로 출중한 인간이 못 된

다.” “선의의 강매는 싫다.” 등이 파생되는 것이다.

* 자료 : 박태경·최경익 역, 1993.

⑧ 봉사활동 표어소개

- | | |
|-------------------------|-----------------------|
| ◀ 바로 지금 당신이 필요합니다 | ◀ 작은 나눔 큰 기쁨 |
| ◀ 작은 힘이 큰 힘으로 | ◀ 지금 여기에 내 작은 손이 |
| ◀ 봉사하는 당신 멋있는 당신 | ◀ 우리가 하나 되는 힘 |
| ◀ 나눔에서 오늘 인간의 향기 | ◀ 함께하는 봉사 함께 웃는 사회 |
| ◀ 가슴엔 사랑을 손길엔 봉사를 | ◀ 나눌수록 큰 기쁨 배풀수록 큰 보람 |
| ◀ 이웃에 사랑을 사회에 희망을 | ◀ 가슴마다 사랑 손길마다 봉사 |
| ◀ 나누는 마음 건강한 사회 | ◀ 한번 봉사 기쁨 두번 봉사 보람 |
| ◀ 오늘의 자원봉사 내일의 밝은 사회 | ◀ 자원봉사 생활화로 한가족 사회 |
| ◀ 이웃사랑 자원봉사 살맛나는 열린사회 | ◀ 이웃에 관심을 사회에 봉사를 |
| ◀ 남을 위한 봉사 나를 위한 완성 | ◀ 나누는 사랑 더하는 기쁨 |
| ◀ 이웃을 기쁘게 사회를 환하게 | ◀ 나눔도 함께 기쁨도 함께 |
| ◀ 내민 손 고운 마음 잡은 손 밝은 마음 | ◀ 서먹한 이웃도 도우면 한 가족 |
| ◀ 따뜻한 손길 정다운 이웃 | ◀ 으뜸사랑 자원봉사 |
| ◀ 아낌없는 자원봉사 구김없는 밝은 사회 | ◀ 봉사는 내가 먼저 기쁨은 우리모두 |
| ◀ 조그만 봉사도 기쁨은 한아름 | ◀ 나눌 때 큰 기쁨 배풀 때 큰 보람 |
| ◀ 봉사는 나의 뜻 기쁨은 우리 뜻 | ◀ 작은 정성으로 이루는 큰 사랑 |
| ◀ 너도 나도 자원봉사 이웃사랑 나라사랑 | ◀ 봉사하는 이웃 밝아지는 사회 |
| ◀ 사랑은 너에게 보람은 나에게 | ◀ 작은 나눔으로 이루는 참세상 |
| ◀ 둠는 기쁨을 아십니까? | ◀ 당신이 먼저 나설 때입니다 |
| ◀ 작은 봉사 큰 보람 | ◀ 주고 보니 내 기쁨 |
| ◀ 마음을 열면 우리는 하나 | |

* 자료 : 중앙일보 자원봉사사무국, 1994.

사랑의 지도만들기

「사랑의 지도만들기」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들을 조사하여 지도로 만들어 보는 활동이다. 기존의 봉사활동 영역을 알아 보고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예 : 서초구)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사람들에 대해 조사하고 지도로 만들어 본다.

1. 활동 과정

목표	「사랑의 지도만들기」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주인의식과 연대의식을 고취시키며 지역사회 안에서의 봉사활동의 분야를 알게 한다.			
활동과정	우리마을 알기 지도자는 마을의 환경과 주요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청소년이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의 윤곽을 잡을 수 있게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 과정 1과 연계하여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의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들을 발견하게 한다.	우리동네 탐방 청소년들은 조단위로 자신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과 장소를 탐방하고 표시하여 「동」단위의 복지지도를 만든다.	사랑의 지도만들기 각 조가 만들어 온 「동」의 지도를 토론을 거쳐 「구」를 위한 하루의 「사랑의 지도」로 완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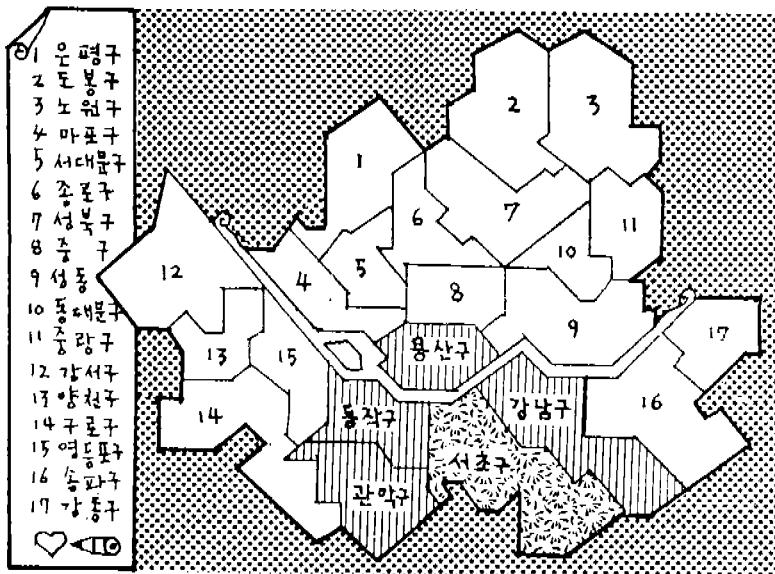
2. 활동 내용

과정 1 우리마을 알기

지도자는 우선 마을의 주변환경과 주요 공공·민간시설과 그 기능에 대해 설명해 주어 청소년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의 윤곽을 잡을 수 있게 한다.

▷ 지역의 여건, 지리적 위치, 지역의 상징물 등에 대해 알려준다.

- ▶ 우리마을은 어떻게 생겼나 ?
- ▶ 간략한 소개(도움자료 ①)
- ▶ 우리마을의 상징물



▷ 지역의 주요 공공시설과 그 기능에 대해 알게 한다.

- ▶ 주요 행정기관과 교육기관
- ▶ 주요 의료시설
- ▶ 주요 교통시설
- ▶ 공원과 문화공간
- ▶ 복지기관 및 시설
- ▶ 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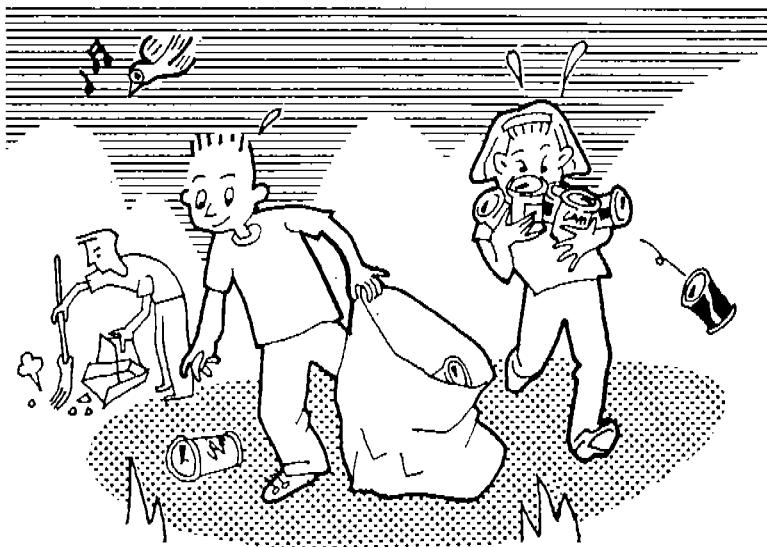
▷ 몇 개의 조로 나눠 배운 내용을 한 지역씩 정리하게 한다.

(서초구는 10개의 동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10개의 조로 나누어 각각 한 동씩 정리하게 한다.)

과정 2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

봉사활동의 영역을 활동과정 1과 연계하여 알려주고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들이 소화해 낼 수 있는 봉사활동들을 발견하게 한다.

- ▷ 지도자는 기존의 봉사활동들을 소개한다(도움자료 ②).
- ▷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분야별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고 어떤 활동을 하기를 원하는가 발표하고 토론하게 한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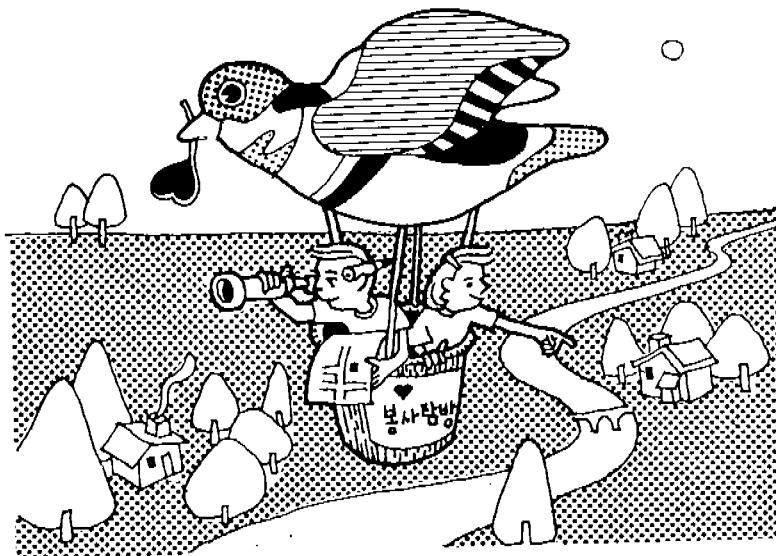
음자료 ③).

- ▷ 발표와 토론이 끝나면 지도자는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으로 비교적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활동 종류들을 정리해 준다.
- ▷ 활동과정 3을 위해 활동과정 1에서와 같이 몇 개의 조로 나누어 우리 동네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구체적으로 조사해 오게 한다.
- ▷ 지도자는 청소년들이 조사활동을 하는 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자료들에 대한 정보를 준다.

과정 3 우리동네 탐방

활동과정 1, 2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 청소년들은 조단위로 자신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 장소를 탐방하고 지도를 만든다.

- ▷ 10개의 조로 나누어 10개의 동에 대한 지도를 작성하게 한다.
- ▷ 각 조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담당한 지역(예: 서초동)의 주요 시설이나 기관, 장소들을 알아보고 방문해 보며 자신이 맡은 동의 주요시설이나 기관이 지난 특성을 정의해 보도록 한다(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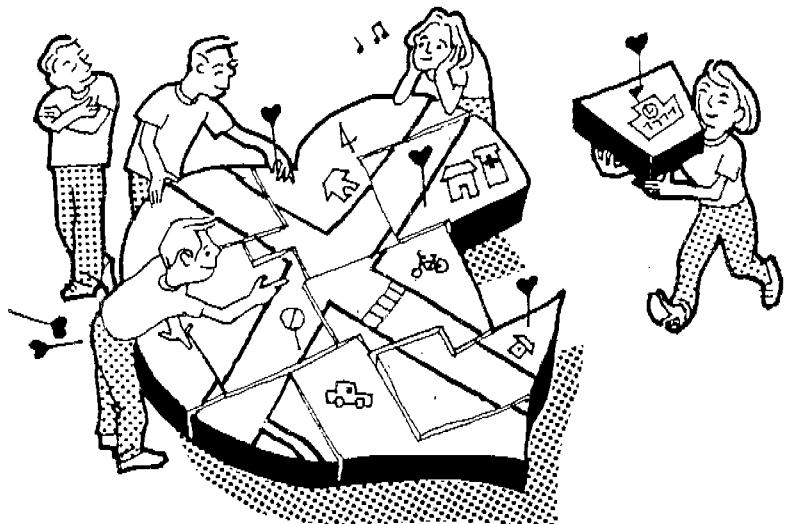
자료 ④).

- ▷ 봉사활동을 위한 대상과 내용을 함께 논의하고 대상장소를 지도에 표시한다.
 - ▶ 지하철 역 점검
 - ▶ 불법주차가 심한 지역
 - ▶ 노인정, 놀이방
 - ▶ 우먼산, 대성사 목불좌상 보호
 - ▶ 서초구청
 - ▶ 지역미화가 필요한 장소
- ▷ 각자 창의력을 발휘하여 지도의 내용이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한다.

과정 4 사랑의 지도만들기

각 조가 만들어 온 지도로 지역사회를 위해 자신들이 사랑의 활동을 펼 수 있는 장소를 표시한 하나의 완성된 지도로 만든다.

- ▷ 조사된 내용을 서로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여 작품을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 ▷ 각 조는 전체 지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조사한 내용을 합의된 내용에 따라 재정리 한다.
- ▷ 지도자는 일방적으로 어느 한 그룹의 작품만을 선호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작품이 지닌 장점을 발견하여 칭찬을 해줌으로써 참가자 모두가 성취감과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작품에 반영함으로써 작품의 완성도도 높인다.

3. 유의사항

- ▷ 지도자는 청소년들이 이 활동을 통해 알아야 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 ▶ 청소년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를 암으로써 연대의식을 갖고
 - ▶ 연대의식을 느낌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게 한다.
 - ▶ 이 역할은 봉사활동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데
 - ▶ 이러한 봉사활동 대상들을 지도로 만들어 봄으로써
 - ▶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다.

- ▷ 매 활동 시작과 종료시 전·후의 활동내용을 명확히 설명해 준다.
- ▷ 지도 만드는 작업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와 관련기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여 준다.
- ▷ 관련기관을 청소년들이 방문하게 될 경우를 생각하여 그 기관에 미리 협조를 청해 놓는다.

4. 도움자료

① 우리마을 서초구

서초구라는 행정구역 명칭을 처음 사용한 것은 1988년 1월 1일 강남구로부터 서초구가 분리·신설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서초구 지역에 우리 조상들이 정착한 것은 역사시대 이전으로 올라간다. 민족문화의 젖줄인 한강을 북쪽에 끼고 우면산, 구룡산의 산록에 양재천 반포천 사이로 펼쳐진 넓은 평야지대에 자리잡은 이곳은 일찌기 선인들의 생활터전이었고 문화의 발상지였다. 원지동의 치석묘군과 인근 강남구 역삼동의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 출토된 선사유물은 이미 신석기와 청동기 문화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서초구 일대가 역사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또한 오래 전으로 백제가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고대 국가로서의 성장발전과정에서 그 중요한 위치를 점했다는 데서 알 수 있으며, 지리적으로 위례성 서쪽에 인접함으로써 도성 외곽의 경작지로서의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후 고려시대에도 지리명이 여러 번 바뀌었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서서는 한양천도와 더불어 충청, 경상 등 지방에서 한양으로 들어오는 마지막 길목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과객과 상인, 그리고 우마 등이 북적거리는 교통의 요지로 「말죽거리」라는 마을이 생기기도 하였으며 지금도 말죽거리(양재역 주변)와 함께 서초구는 서울의 교통관문이 되고 있다.

다시 일제시대의 행정구역 개편을 거쳐 1963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확대에 의해 성동구 언주 출장소와 영등포구 신동출장소 관할로 1973년 7월 1일 관악구가 신설됨에 따라 관악구와 성동구 영동출장소 관할이 되었다. 1975년에 접어들어 10월 1일 강남구가 신설되어 관악구 관할의 방배동을 제외한 9개동이 강남구 관할로 개편되었고, 1980

년에는 4월 1일 서초구 지역은 모두 강남구에 편입되었다.

서초구 지역이 현대도시로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1965년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에서 부도심으로의 개발이 결정되어 1968년 영동 제1차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추진되면서부터이다. 그후 연차적인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의해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어 오늘날과 같이 선진도시로서의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 자료 : 서초구청 문화공보실, 1994.

② 자원봉사활동 분야

분야	대상	가정방문	시설방문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원방문 교통편제공○ 외출위한 교통편 제공○ 이발사, 미용사 활동○ 전기용품 수리○ 집, 창문수리○ 결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말벗)○ 이발, 미용○ 행사참여, 협동○ 취미교육○ 전기용품 수리○ 눈치우기○ 결연
사회복지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자번역○ 이발, 미용사○ 외출보조○ 재활훈련○ 가정용품, 장난감수리○ 결연○ 물리치료보조○ 전화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발, 미용○ 행사참여(비디오제작)○ 외출보조○ 장난감수리○ 재활캠프○ 결연○ 물리치료보조○ 이발, 미용
	아동 및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동장 건설, 견사○ 아동의모임, 청소년들의 운동모임 감독○ 결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출교통제공○ 행사돕기(캠프, 수영)○ 시설청소년 상담○ 결연○ 입양
	미혼모등 불우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덕 윤리교육(강연회)○ 기술교육

	환경	○ 쓰레기줍기(산, 강, 공원, 도로) ○ 교육, 계몽 ○ 현장조사, ○ 사무
	범죄	○ 유해환경 조사 ○ 자경단 ○ 교육, 계몽 ○ 상담
	교육	○ 기능훈련보조 ○ 캠프 ○ 약물예방 ○ 성교육
지역사회봉사	의료	○ 건강정보전화 ○ 호스피스 ○ 병원업무보조 ○ 간병인 ○ 보건위생강좌 ○ 계몽, 상담
	법률	○ 무료법률상담 ○ 법률교육 ○ 무료변호 ○ 계몽
	교통	○ 행사정리 ○ 카풀 서비스
	소비자	○ 현장조사 ○ 홍보, 고발 ○ 상담 ○ 사무보조
봉사	정치	○ 계몽, 홍보 ○ 득표활동 ○ 부정선거감시 ○ 사무보조
	금품	○ 지정기탁 ○ 공공모금기부
	기증	○ 모금회 운영 참가
	장기 기증	○ 신장기증 ○ 심장기증 ○ 안구기증 ○ 시체기증 ○ 헌혈 ○ 상담, 계몽
국제협력		○ 후진국 사회개발 자원봉사 참여(UN, 적십자요원 등)
과난민		○ 물질적 원조에 참여(옷, 식품)
구호		○ 외국학생 숙박제공

* 자료 : 중앙일보, 1994. 7. 8.

③ 일본 청소년들의 지역사회봉사활동 사례

지역은 자원봉사활동의 산실이다. 자원봉사활동은 자신에게 적합한 활동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가능한 활동이 많이 있어도 좀처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1) 지역사회 순회

일본 한 중학교의 자원봉사활동 그룹은 매년 「자원봉사활동이란 무엇인가?」라는 학습에서 시작한다. 영국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소개한 「서로 돋는 가운데 배운다」라는 영화를 본 후 반을 편성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활동이 없을까 학군내를 순회한다.

2) 마음에 와 닿는 것이 무엇인가

지역을 순회하고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을 서로 발표한다.

- (1) 역앞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많아 보행에 장애가 되었다.
- (2) 철도건널목 근처에 있는 밭은 깡통과 담배꽁초, 쓰레기로 더럽혀져 있다.

(3) 국민학교의 통학로에 있는 길가에 잡초가 높게 자라 달리는 자동차에서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4) 학교 근처를 흐르는 하천이 오염되어 있고 자전거와 쓰레기 상자가 방치되어 있었다.

(5) 학교 근처의 아스팔트 길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6) 낡은 단지 내에는 전락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다음 주에 이중에서 가능한 활동을 한번 더 전원이 생각한다.

3) 방치된 자전거의 정비

가까운 K역에서 시행해 보았다. 역원은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때문에 구급차가 역으로 진입하지 못해 아주 곤란하다. 밤이 되면 역 내는 텅 비지만 주변이 아주 혼잡하다. 하지만 역에서는 정리할 수 없다.」고 말하며 아주 곤란해 했다. 봉사부에 속한 학생들이 자전거를 정리해 보았다.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전거 정리를 완료하자 모두 산뜻한 기분이었다. 그후 주 2회 전원이 정리하기로 하였고 다른 학년의 남학생들도 협력하여 감에 따라 활동이 활기를 띠고 꾸준히 지속되었다.

4) 활동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게 되어 질서의식이 생기게 되었다

방치된 자전거의 실태조사도 해 보았다. 몇 킬로미터의 범위에서 몇 대의 자전거가 오고 있는가를 소유자의 주소를 근거로 파악해 보았다. 며칠간이나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도 조사했다. 대수는 700대, 1 킬로미터 전후가 가장 많고, 며칠씩이나 방치해 두고 있는 자전거도 생각보다 많음을 알았다. 이 조사 결과를 역 근처에 있는 게시판에 부착했다. 이러한 활동을 1개월간 계속하자 자전거를 두는 사람도 다음 번에는 규칙을 지켜 정해진 장소에 두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도 학생들의 활동을 흐뭇하게 보면서 “수고했다”고 말을 해 주었다. 매일 꾸중만 듣던 한 학생은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기쁜 것이다”고 말했다.

5) 지역으로 확산

특별활동 시간에 전체 학급에서 설문조사를 하여 철길 건널목 부근의 쓰레기가 많고 오염된 장소를 선정해 학군내의 오염지도를 만들어 활동자료로 사용했다.

길가의 잡초는 베어 버렸다. 봉사활동지가 가까이에 있어 봉사부 이외의 학생들도 도와주었지만 너무 광범위해서 좀처럼 별초작업이 진전되지 않았다.

자치회의 공무원과 자녀회에서 활동을 보러와서 국민학생들이라면 풀에 가려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라 말하며 함께 협력해 주겠다고 하

여 일요일에는 자녀회도 함께 별초작업을 하였다.

6) 실태를 파악하여 조사하면 좋은 변화가 일어난다

자원봉사활동은 「분위기, 실천, 그리고 바람직한 변화」라는 일련의 흐름이 중요하다. 자전거의 정리로 인해 이용자는 규칙을 준수해야 겠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별초작업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꾀하는 촉매가 되어 많은 지역인들이 중학생의 활동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제까지 지역과 거의 유대가 없었던 중학생이 지역내의 과제를 해결하고 봉사활동을 시작함으로써 지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학교와 지역에 좋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 자료 : 동경자원봉사센터, 중학생과 자원봉사활동.

④ 교육과 문화의 공간 서초동

서초동은 옛날 이곳에 서리풀이 무성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래서 일명 상초리, 서리풀이라고도 했다. 서초동은 원래 조선시대 말까지 경기도 과천군 동면 서초리와 명달리로 칭해오던 곳이었는데 일제때의 구역확정때 시흥군 신동면 서초리로 칭하게 되었고, 광복후 1963년 서울특별시 구역확장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편입되면서 서초동이 되어 오늘에 이른다.

1975년 강남구가 신설되면서 강남구 관할에 속했다가 1988년 서초구가 강남구로부터 분구됨에 따라 서초구에 속하게 되었다. 1980년 경부고속도로를 경계로 서초1동과 서초2동으로 분동되었다가 1988년 서초1동에서 서초3동을 분동 신설하였으며 1991년에는 서초1동, 2동 북쪽 일부를 분할, 서초 4동을 신설하여 오늘의 서초 제 1, 2, 3, 4동의 4개 행정동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서초동지역은 1970년대 초의 구획정리 사업이 실시되기 전에는, 얼마전 까지도 서초동에서 꽃마을을 연상할 수 있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업 지역이었다. 그러나 꽃마을은 개발사업과 관련해 무허가 비닐하우스 철거, 양재동 화훼유통센터 이전 흡수 등으로 그 모습이 많이 바뀌었으며 강남지역개발로 중산층 주거지역과 상업·업무지구의 조성으로 서초동은 현대적 신홍도시지역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강남대로변은 강남의 상업·업무지역의 중심이 되었고 우면산 아래는 대형 유통센터인 진로유통센터가 들어섰으며 그 주변에는 서울 남부터미널이 이전해 오면서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편익을 도모하며 새로운 유통문화지역을 조성했다.

한편 서초동에는 여러 공공기관이 차례로 들어섰는데, 법원, 검찰청사의

법조단지, 우면산기술의 예술의 전당과 국립국악원, 지하철 양재역 부근의 서초구청, 서초구 보건소, 외교안보연구원, 서초인터넷인지 서쪽 우면산 기슭의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서초민방위교육장 등 서초동을 명실상부한 구의 중앙부로서의 위치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1) 서초 1동

○ 서울교육대학

가톨릭 의과대학과 함께 서초구에 위치한 2개 대학중 하나인 서울교육대학은 국민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특수한 교육기관이다. 1946년 경기공립사범학교로 출발, 1962년 서울대학교 병설 교육대학으로 승격개편된후 1977년 현재의 서초동 1650번지 새교사로 이전하였으며 1981년에는 2년제의 서울교육대학에서 4년제로 학제가 승격 개편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2,430여명의 재학생이 있으며 졸업시 국민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서울교대는 초등교사 양성뿐 아니라 부설기관으로 초등교원연수원과 부속국민학교를 두고 있다.

○ 교육방송별관

한국교육개발원 부설 교육방송(우면동소재)의 본원이다

○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공직관과 사명감에 투철한 공직자의 양성과 실질적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정예인력 배양의 목적으로 설치된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및 중앙부처 6급이하 공무원의 정신·직무교육과 새마을지도자 정신교육, 공무원 채용과 각종 자격면허시험 등을 관장하고 있다.

○ 서초 민방위 교육장

민방위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 건립된 전용 교육기관으로 현재 성동,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5개구에 거주하는 민방위대원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2) 서초 3동

○ 예술의 전당

서초동 700번지에 전체부지 71,026평, 건축연면적 36,407평의 면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예술의 전당은 1982년 건립이 끝의되어 1988년 1단계로 음악당, 서예관을 1990년 2단계로 미술관과 예술자료관을 개관하였으며 3단계로 1993년 오페라극장이 개관되어 명실공히 한국예술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 국립국악원

조선시대의 「장악원」, 일제시대의 「이왕직아악부」라는 명칭을

거치며 전통음악의 맥을 이어온 국립국악원은 1987년 12월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서초동 700번지, 예술의전당에 인접한 국악당(건축면적 9,127평)으로 이전, 현재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소극장과 사무, 연습동만을 운영중에 있으며, 1993년 1,000석 규모의 대극장과 교육연구동이 완공되면 공연, 교육, 연구의 기능을 갖는 전통문화공간으로서의 진면목을 갖추게 된다.

○ 한국영상자료원

업무 : 국내외 영상자료복원 및 보존, 영화상영

시설 : 영화관, 자료열람실, 전시장 - 일반공개

영화관이용안내(35mm전용 : 110석, 16mm/비디오 전용 : 70석)

상영일시 - 수, 목, 금 14:00~16:00

관람방법 - 선착순 무료입장

수집 · 열람업무 : 09:30~17:00(토~12:00)

○ 법조타운

서초동 1701번지에 위치한 법원검찰단지는 1989년 9월 세청사 개관식을 가지면서 서소문에서 이전해왔다. 2개의 쌍동이 건물로 구성된 법원청사에는 서울고등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이, 검찰청사에는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이 들어있다. 그리고 서초동 1700번지에는 이미 사법연수원이 건립되어 대법원 소속하에 있는 판사의 연수 및 사법연수생의 수습을 위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서초동 산 967번지 3만여평의 부지에 신축중인 이 법조타운은 1995년 6월말 완공예정으로 공사가 한창인데, 사법부의 상징인 대법원은 지하 2층 지상 16층의 날개형으로 지어지고, 대검찰청 사는 사무실 용도의 지하 3층, 지상 15층짜리 본관 건물과 이와 연결된 지하 1층 지상 4층의 후생관 등의 부속건물들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900여개의 변호사, 사법서사들의 사무실이 청사이전과 함께 인근빌딩에 들어와 그 일대가 법조타운으로서의 새 면모를 갖추었다.

○ 성안상공신도비

서초동 산 152-5 상문고등학교 교내에 있는 조선 명종때 정승을 지낸 상진의 신도비와 묘는, 상진이 타계한 2년뒤인 명종 21년(1566년)에 세워진 것으로, 대리석인 비신과 화강석인 대석 및 옥개석 등 삼부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84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60호로 지정되었다.

○ 대성사 목불좌상

조선후기의 전형적인 수작 대불상으로, 3.1운동 33인 중의 한사람인 백용성 스님이 주석하였다. 서울특별시 지방 유형문화재 제92호로 지정되었다.

3) 서초 4동

○ 삼풍백화점

지하3층, 지상 5층 규모인 삼풍백화점은 442개의 매장을 갖춘 백화점이다. 특히 4층에는 700석 규모의 삼풍아트홀이 개관되어 있어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는 장소가 되고 있다. 1·3주 월요일에는 서초구부녀회 주관의 주부건전가요교실이 열리며, 또한 주부골프교실과 같은 강좌와 일반인에게 각종 전시회나 발표회의 장소로 대관되기도 하는데 판촉실에 이용문의 할 수 있다.

* 자료 : 서초구청 문화공보실, 1994.

백문이 불여일견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 청소년들은 봉사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환경과 생활상을 둘러봄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의 또 다른 이웃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1. 활동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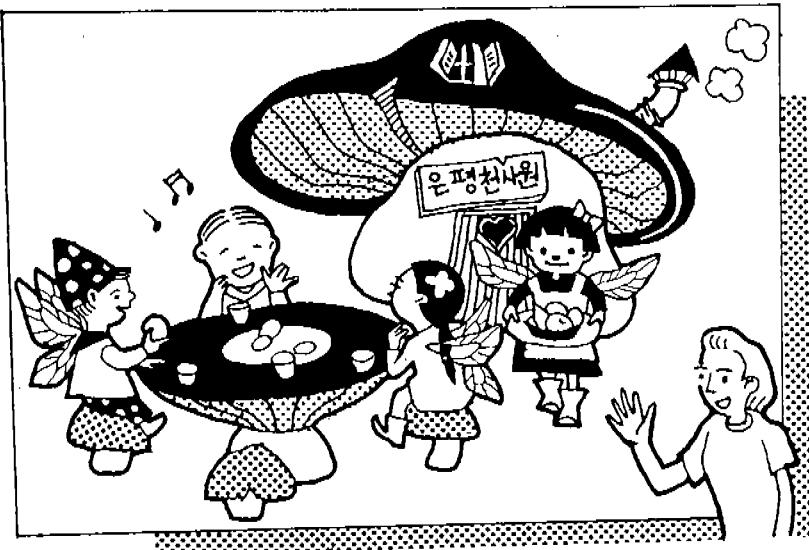
목표	시설 견학을 통하여 시설과 시설인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두려움을 없애고 시설에 대해 친밀감을 갖고 올바로 인식하게 한다.				
활동 과정	VTR 작품 감상 방문할 기관을 소개하는 VTR 작품감상을 통해 사전에 그 기관에 대한 이해를 도모 케 한다.	방문일정표 짜기 효율적인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일정표와 세부계획을 짠다.	선물준비 방문할 시설 인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성의껏 준비 한다.	시설견학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볼 사활동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	느낌 나누기 견학시 보고들은 내용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며 느낌을 나누고 활동을 정리하게 한다.

2. 활동 내용

과정 1 VTR 작품감상

견학할 기관을 소개하는 VTR 작품을 시청함으로써 방문하기 전에 그 기관의 설립취지와 주요업무 그리고 시설인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예 : 은평천사원).

- ▷ 지도자는 방문할 기관의 도움을 얻어 기관소개에 적합한 VTR 작품을 준비한다.
- ▷ 방영전에 기관과 시설인들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한다(도움자료 ①).



- ▷ 방영시간은 30분 이내로 하여 지루함을 주지 않도록 한다.
- ▷ 감상 후 작은 메모지를 한장씩 나누어 주고 각자 느낀 소감을 한 문장씩 적어내도록 한다.
- ▷ 이 내용을 발표하며 서로의 느낌을 나눈다.

과정 2 방문일정표 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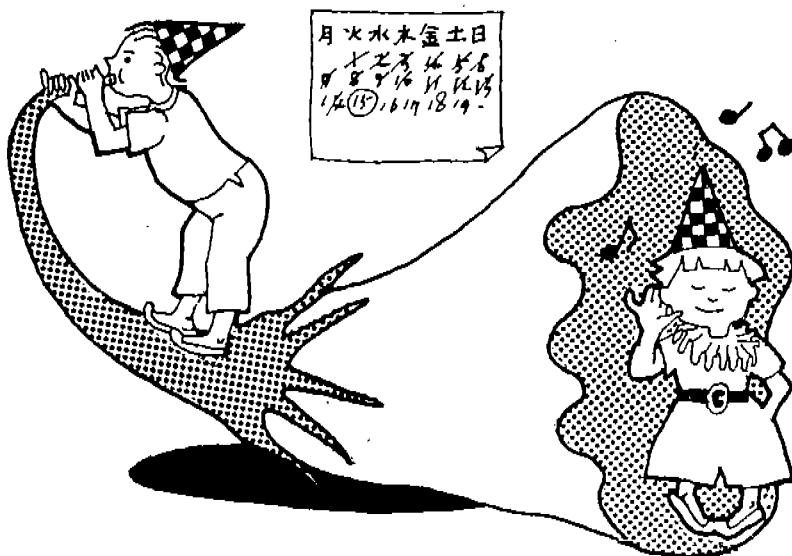
방문기관에 폐를 주지않고 방문하는 청소년들에게도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방문할 청소년들과 함께 간단한 일정표와 세부 계획을 세워 본다.

- ▷ 지도자는 방문기관의 실무자와 의논하여 방문날짜와 시간 그리고 방문자 수를 정한다. 또한 기관과 견학 코스와 내용, 소요시간 등에 대해 논의하여 효율적인 방문이 되도록 한다.
- ▷ 상기 사항을 방문할 청소년들에게 알려주고 일정표를 짜게 한다.
- ▷ 또한 견학시 기관에서 요구하는 유의사항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정확히 인지시킨다.
- ▷ 청소년들과 함께 방문시 전해줄 적합한 선물에 대해 의논한다.

과정 3 선물준비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방문할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성이 담긴 선물을 준비하게 함으로써 시설견학에 대한 성실하고 신중한 태도를 자님과 동시에 작은 실천을 통해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 지도자는 기관 담당자와 의논하여 그곳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기쁨을 줄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준비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선물 종류들을 미리 조사하여 본다.
- ▷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준비할 선물에 대해 스스럼없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 ▷ 지도자가 미리 알아본 내역을 참고로 하여, 토의결과에 큰 무리가 없으면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는 지도자가 자연스럽게 개입하여 적합한 선물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 준다.
 - ▶ 작아졌거나 즐겨입지 않는 옷 또는 즐겨입지만 기꺼이 선물로 주고 싶은 옷을 깨끗하게 손질한다.
 - ▶ 정성껏 포장을 하고 쌀막한 편지나 예쁜 카드를 함께 준비한다.





- ▶ 포장하는 일이 부담스러운 남학생들은 학급의 여학생이나 여자형제, 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 「의류」 대신 「이미 읽은 책이나 감명깊게 읽어 권하고 싶은 책」도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 ▷ 결정된 선물이 방문날짜 전에 준비될 수 있도록 유의하며 정성껏 준비한다.

과정 4 시설견학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방문하여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낌으로써 봉사활동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한다.

- ▷ 방문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알고 지킨다. 15분 전에 지정된 장소에 모인다.
- ▷ 인원을 점검한 후 시설 담당자가 정해준 장소로 옮긴다.
- ▷ 담당자로부터 시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다.
- ▷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조용히 질서정연하게 시설을 견학한다.
- ▷ 방문시 언행을 조심하여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은평천사원 견학 일정표

1. 모이는 시간(15분)

- 천사원을 접한 장소로 했을 경우
약속시간에서 15분 정도 초과
- 인솔교사가 미리 왔을 경우 시설
사회사업가는 인솔교사와 일정을
협의

2. 기다리는 시간(5분)

- 학생이 다 왔으면
ORT장소인 소강당으로
이동하여 약간의 틈을 둔다
- 천사원 소개 팝플레를 배포
하여 일람하도록 한다

4. 견학시간 (30분)

- 아동숙소
- 미술특별활동실
- 목공예실, 전시실
- 물리치료실
- 기념촬영

3. 소개시간 (40분)

- 천사원의 연혁과 현황
- 요보호아동의 발생배경과
시설아동의 생활
- 질문과 토론
- 장애아 중창단 공연
- ORT 이후의 견학순서,
내용, 주의사항, 주목사항 안내
- 천사원방문기념 선물증정
(천사원열쇠고리, 천사
원카드, 재활공예품 등)

5. 정리·봉사시간 (30분)

- 시설아동과 함께하는 시간
 - 장애아의 경우 방에서 간단한 놀이를 하거나 식사
보조
 - 정상아의 경우 축구나 농구등 경기
- 견학소감을 듣고 더불어 사는 이웃의 가치를 강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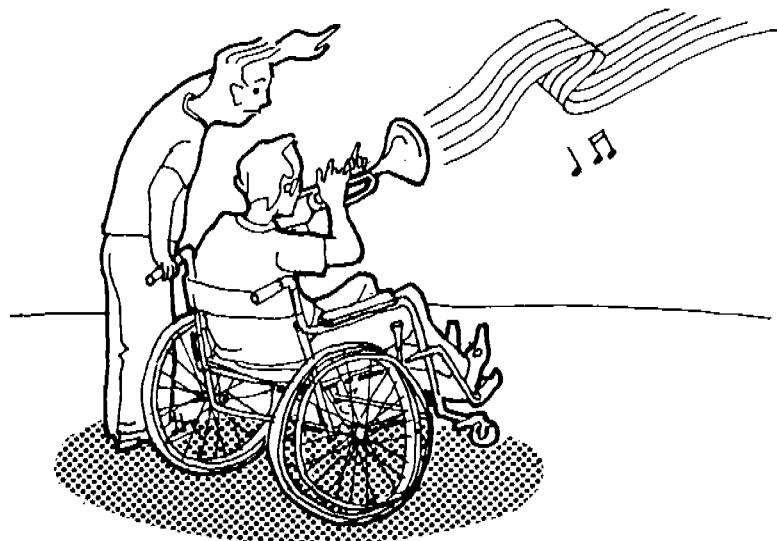
6. 방문 종료

- 모이는 시간 동안 학생들이 경직되지 않도록 자유롭게 시설 분위기를
관찰하도록 유도한다.
- 소개·설명과정의 1/3정도를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추측대답을 받아
관심과 이치를 정리해 나간다.
- 인간의 존엄성 강조
- 자신의 처지와 비교를 한다.
- 장애아동의 아름다운 심성과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 정상인에 뒤지지 않는 완성품에 경탄함
- 재활의 인고를 목격함

과정 5 느낌 나누기

견학시 보고 들은 내용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며 서로의 느낌을 충분히 나눈다.

- ▷ 이곳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 ▷ 내가 나의 집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느낌을 갖게 되었는가?
- ▷ 내가 만난 아이들이 나와 다른 점들은 무엇인가?



- ▷ 나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 ▷ 지도자는 외국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성공사례를 소개해 주어 청소년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새로운 활동을 위한 동기유발이 되게 한다(도움 자료 ②).

3. 유의사항

- ▷ 방문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역사회 내의 기관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준다(도움자료③).
- ▷ 방문하는 청소년들의 교육적인 측면과 함께 방문받는 기관의 수혜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이 되도록 유념한다.
- ▷ VTR 작품감상 소감은 한 문장씩만 발표하게 하여 활동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아쉬운 여운을 남기게 한다.
- ▷ 방문계획은 반드시 시설 담당자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작성한다. 가능하다면 지도자와 대표 청소년이 기관을 미리 방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선물선택은 신중을 기하여 기관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청소년들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으며 교육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준비한다.
- ▷ 방문 후에도 서신연락이나 행사초대 등으로 관계를 이어간다.

4. 도움자료

① 은평천사원

가정과 사회에서 버려지고, 장애가 되어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 재활, 치료, 직업훈련을 시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돋는 곳이다. 은평천사원의 설립목적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주어진 여건을 스스로 극복하여 건전한 시민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1) 설립배경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부모형제를 잃어 심신의 고통을 안

고 방황하는 어린이들이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1953년 휴전이 된 후에도 이를 전쟁고아의 고통은 쉽게 해결되지 않은 채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무의무탁한 고아들에게 안락한 거처를 마련하여 주고 그들을 교육시켜 건전한 시민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 육성코자 하는 사랑이 은평천사원의 설립동기였다.

1959년 3월, 고 윤성렬 목사(1885. 8. 8. – 1977. 8. 3)는 미국인 선교사 존 조셉 타이스와 협력하여 구산동 농산에 소망하던 은평천 사원을 설립하여 5명의 고아를 처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사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 시설소개

○ 은평천사원(육아시설)

장애가 없는 고아 51명이 함께 살고 있는 육아시설은 아동을 장차 건전한 시민의 일원으로 육성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양육에 임하고 있다. 또, 시설환경이 자신의 개성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생활환경으로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동들은 호산나 합창단 활동을 통해 밝고, 맑은 마음을 키워 하나님과 고마운 분들께 노래로 감사드리고 있고 사회복지사의 생활지도, 학습지도, 상담 등을 받고 있다. 그리고 아동 신문 발행, 학생회 운영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 은평소망의 집(장애아시설)

서울특별시장이 의뢰하는 무의무탁한 정신 지체 아동을 입소시켜 아동으로 하여금 “나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아동의 자존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적응을 원활히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돋고 있다. 장애아동 110여명을 보육하고 있는 장애아시설은 아동의 생활지도, 심리상담, 의료적 치료, 직업훈련 및 자립 작업장 운영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아동들은 소망중창단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잠재능력을 개발·신장시키며 대내외적인 활동을 통하여 도움을 주시는 분들께 노래로 보답하고 있다.

○ 은평복지학교(정신지체아교육시설)

신변생활의 자립적 능력 신장, 사회생활 적응능력 배양, 타고난 잠재능력 직업적응을 위한 기초기능 함양 등을 교육목표로 하여 정신지체 및 이와 관련된 학생들에게 신변처리 및 기초 학습능력, 교육활동(언어, 물리, 음악, 미술, 작업, 놀이 치료), 사회적응훈련, 직업지도등을 통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는 사람으로 양성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유치부 : 만 3~5세, 지능 50~75정도의 남여학생

초등부 : 만 6~12세, 지능 40~75정도의 남여학생

중등부 : 지능 40~74정도의 국민학교를 졸업한 남여학생

고등부 : 지능 40~75정도의 중학교를 졸업한 남여학생

○ 참빛교회(장애인 특수 선교시설)

본원 시설이동, 재가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분의 말씀대로 가르치며 소망 가운데 밝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특수교회이다. “치유하고 선교하고 연합하는 교회”를 선교 목표로 하는 참빛교회는 각종 예배활동, 선교, 상담활동, 교육활동,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95년에 만들어진 장애인 전용교회 건축을 위해 ‘은혜로운 교회건축, 평안한 교회건축, 아름다운 교회건축’을 표어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 점자도서실

1992년에 설립된 본 도서실은 회원들에게 점자도서, 녹음도서를 열람·대출(무료, 방문·전화신청)하고 있다. 현재 소장하고 있는 점자도서는 사전류, 문학, 종교, 의학, 예술·철학, 어학류 등 1,218권이며 녹음도서는 문학, 종교, 예술·철학, 아동도서, 어학, 생활류 등 1,141권이다

대출 및 회수는 맹인용 우편(무료)을 주로 이용하며 방문 이용자의 편의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지역은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마포구, 강서구, 용산구 및 기타지역이며 회원대상은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 시각장애인의 교육과 재활사업의 유관 관계자, 시각장애인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 출판부(은평천사원 출판부, 인간과 복지)

1993년에 설립된 출판부는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 실무발전을 꾀하고 실무자의 연구를 통해 실천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 현장과 실무에 관한 연구물을 출판하여 사회복지계 지적교류에 공헌하고 사회복지 출판물을 통해 대국민 사회복지 교육, 홍보, 참여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출판된 서적은 「이야기 사회복지」, 「청소년복지론」, 「우리들이 뛰어놀기 적당한 하늘(장애아동시집)」, 「가정지도편람」, 「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이다.

○ 서부 장애인 종합 복지관

서울시 서부지역(은평, 서대문, 용산, 종로, 마포, 강서,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인간다운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현재 수행중인 사업으로는

1. 상담, 진단, 각종검사를 통한 장애정도와 잠재능력의 평가, 판정
2. 심리상담
3.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확대와 장애인에 대한 주민의 의식개발 및 참여도모
4. 의료재활(약물·물리·작업·언어치료, 보장구 교부 안내)
5. 교육재활(조기특수교육, 부모교육)
6. 직업재활(직능평가, 직업전훈련, 보호작업장, 지원고용－사업체발굴, 현직훈련, 사후지도)
7. 재활 연구 및 조사
8. 홍보(계몽자료, 기관지 발간)

○ 수의사업부

천사원내 도예실, 수예실, 목각실, 목공실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위탁·주문판매하고 자체 의류 바자회를 열고있다.

○ 인쇄작업보도실

장애인들에게 인쇄기술을 가르쳐 자립기반을 조성하며 교지, 각종 서식, 청첩장, 그외 지역내 인쇄물을 시중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 자료 : 은평천사원, 1994.

② 팔로 알토 고등학교의 특수 우정 클럽

특수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항상 해변, 공원, 동물원 등에 가기 때문에 빌 카즈비는 어린 시절에 특수 교육 학급에 등록하려고 시도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농담을 하였다. 그러나 정신장애인들이 야외 수업(field trip)하는 것을 본 사람은 누구나 그 집단의 동질성을 감지하였을 것이다. 아무도 빌 카즈비 같은 정상적인 학생들을 특수 교육 수업에 함께 참여시키는 일은 없다. 정상적인 학생이 그 집단에 무엇을 보탤 수 있을 것인지 상상해 보라.

1981~82년 팔로 알토 고등학교에서는 바로 그 일을 하였다. 빌 카즈비는 오래전에 졸업을 하였기 때문에, 경증의 정신장애아들과 함께 친구 도우미 특수 우정 클럽을 만들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서 40명의 정상적인 학생들을 뽑았다.

이 클럽을 시작하였을 때, 경증 정신장애아 교실은 그 학군의 다른 학교와 아주 비슷하였다. 1,600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그 학교의 교실 한 구석에 16명의 장애학생들이 있었다. 그들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학교에 왔지만, 교실 밖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점심시간에도 그들은 학생 센터의 지정된 그들만의 장소에서 식사를 하였다. 장애자들은 고등학교에 와 있다는 것에 의해 어떠한 혜택도 전혀 입고 있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자신감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질적인 접촉이 사실상 전무했기 때문이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학생들도 그들의 중요한 기회를 잃고 있었다. 정상적인 학생들은 매일 보는 장애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경증의 정신 장애자 교실의 보이지 않는 벽을 뚫지 못하였다. 고등학생들은 장애자들에 대하여 우호적이긴 했지만, 아무도 친구가 되지는 못하였다.

이 학생들과 일해 본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현실에 슬픔을 느꼈을 것이다. 정신 장애자들은 사회에 적용하기 위한 사회적 기술과 자신감을 배우기 위하여 정상적인 학생들과의 평범위한 접촉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들은 버스를 타고, 식료품을 사고, 친구를 만드는 등, 한 사람을 독립적으로 만드는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실상, 이것은 다른 10대들에게도 적용되는 일이다.

특수 우정 클럽의 첫번째 목표는 학교와 교실 안과 밖에서 정상적인 학생들과 장애 학생들이 접촉할 수 있는 양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학생 자원자들은 교실에서 장애 학생들의 친구가 되고, 때때로 개인교습을 하게 하였다. 처음 40명의 친구 도우미들은 장애 학생들과 일대 일 친구로 짹을 지었으며, 클럽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집단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두번에 걸쳐서 친구 도우미 훈련을 하였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학생들은 장애 학생들과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번째 모임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든 지원자 학생들은 특수 학급을 개인적으로 방문하여 장애 학생들을 만나보도록 하였다. 훈련에서는, 도우미들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였다.

1. 각 장애 학생들의 장애의 특징 – 청소년들은 천성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에 대한 정보를 갖는 것은 두려움과 미신을 없앤다.
2. 교육받을 수 있는 정신 장애 학생들의 교육적 : 사회적 목표들 – 도우미들이 장애 학생들에게 적절한 사회적 : 학문적 배움에 도움을 주고, 그들의 발달과 독립성을 신장시켜 주도록 한다. 장애 학생들에게 단순히 친절하기만 한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장애를 가진 특수한 친구와의 관계에서 생길지도 모르는 문제들과 일상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역할 연습 – 이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도움의 양식들 (예를들면, 과보호를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대신해주는 것 등)과 실제로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예를들면, 장애를 가진 짹으로부터 사랑 메모를 받는 것)을 포함한다. 친구 도우미들은 장애 학생들에게 친구대 친구로서 반응하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예를들어 “장애 학생이 당신과 같이 식사를 하는 도중 당신에게 음식을 뱉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의 물음은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음식을 뱉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의 물음으로 바꾸어 생각하도록 하였다. 장애 학생들은 정상적인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반응과 동일한 반응(그 결과적인 배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
4. 전체 프로그램의 목표들 – 학생들은 이 클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전망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자신들이 왜 그들에게 필요하고,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는 학생들에게 방향감을 주며, 성공하려는 의지를 갖게 한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같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인 동시에 진실이 아니다. 도우미들이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그들의 짹이 자신과 얼마나 비슷한가를 아는 것이다. 동시에, 전혀 다른 점이 없다면, 이와같은 클럽이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처음부터, 클럽은 성공적으로 목표를 성취하였다. 두 여학생은 아주 친한 친구가 되어 계속적으로 서로 전화를 하였다. 짹들이 점심을 같이 먹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운동경기를 좋아하는 한 장애 학생은 자기 짹이 속한 축구 팀의 연습 경기와 시합을 매일 함께 보러 갔기 때문에, 팀 전체의 선수들과 친구가 되었다. 집단으로는 보ول링,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쇼핑, 미니 골프, 캠핑, 크로스 칸추리 스키, 그리고 모금(활동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차 세척, 과자 세일 등) 등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특수 우정 클럽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주었다.

1. 교육받을 수 있는 정신 장애 학생들 : 장애 학생들은 사회 기술이 증가되고, 학교 생활과의 관련성이 증대되었으며, 수업 성취도가 향상되었다. 1988~89 학년도에는, 55명의 도우미가 있었는데 (한 장애 학생당 4~5명), 그들은 장애 학생들에게 다른 학생들에게 소개시켜 주었으며, 교실에서 개인적으로 장애 학생들에게 학습지도를 해주었다. 가장 인상 깊은 사례 중의 하나는 한 학생이 아주 재능있는 장애 학생에게 매일 어려운 피아노 곡을 가르쳐 주었고, 그 결과는 아주 놀라운 것이었다.
2. 친구 도우미들 : 이 클럽에 참여함으로써 양측이 모두 혜택을 입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정상적인 학생들은 장애를 가진 학급 친구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그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의 삶에 기여함으로써 자기 존경심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새로운 친구들을 얻었다.
3. 학교 환경 : 클럽은 장애인들과의 긍정적인 관계에 모범이 되어, 장애 학생들이 연극, 운동 경기, 그리고 학교 봉사활동 등과 같은 정규적인 학교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촉진함으로써 많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교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장애 학생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였다. 도우미들이 각 학년의 거의 모든 학급에서 왔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이었다.
4. 교육받을 수 있는 정신 장애 학생들의 부모들 : 처음부터 이 클럽은 장애 학생의 부모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다른 학교에서 자신의 딸에게 개인 지도할 친구를 구하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한 한 어머니는 일요일 아침에 그녀의 딸이 쇼핑하는 것을 돋기 위해서 집에 오는 학생을 갖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다른 부모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딸이 건강한 우정을 맺으면서 재미있게 지내는 것을 보고 아주 행복해하였다.

장애 학생들은 육상, 레스링 팀의 구성원으로, 팀 매니저로, 학교 연극이나 봉사 활동, 학교 축구와 학교 댄스와 같은 정규적인 학교 기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의 일상 사회 생활에 참여차로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장애 학생들은 편안함과 환영받는다는 것을 느끼면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장애 학생들은 정상적인 친구들과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고, 잔디밭에서 같이 점심을 먹는 것이 자주 눈에 띄었다.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쇼핑, 음악회, 저녁 등을 하러 같이 다녔다. 이 모든 것은 장애 학생과 정상적인 학생을 분리해 놓고 있던 벽을 없앤 증거들이다.

특수 학생을 통합하는데 성공한 것은 확실하지만, 한편 이러한 프로그램은 상호성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켜 주어야만 한다 – 모든 사람이 도우미가 되는 동시에 봉사활동의 혜택자가 되어야 한다. – 장애 학생들은 그들의 도우미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전체클럽의 학생들은 자선 음식점에서 음식을 마련하고 대접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이 성공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1. 교육받을 수 있는 정신 장애학생들의 교실을 학교의 중앙으로 옮겼다.
2. 모든 학년과 집단 – 유명한 운동선수로부터 위험 학생들에 이르기 까지 – 으로부터 학생들을 뽑으려고 노력하였다. 몇년 후에는 이러한 일이 자동적으로 일어났다.
3. 특수 교육 교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원조적이었다. 클럽은 친구 도우미 조정자와 장애 학생 교사와의 협조적인 노력의 협동체이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자연히 협조적이 될 것이다 – 이러한 프로그램은 꿈의 실현으로, 클럽이 없으면 불가능한 지원, 훈련, 사회화를 제공하여 준다.

클럽에 의해 만들어진 차이점에 대한 마지막 설명은 필드 트립(야외 여행) 분야에서 나타났다. 장애 학생들이 전에 칸트리-크로스 스키를 하러 갈 때는, 두명의 성인 교사들은 정신이 없었다. 12~14명의 장애 학생들이 한쪽에서 넘어지고, 물에 젖고, 잘 가르치지도 못하였다. 클럽이 다음해에 같은 여행을 하게 되었을 때, 스키 교사들은 각각의 장애 학생들과 일하는 친구 도우미들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첫 날, 모든 학생들은 혼자서 언덕을 횡단할 수 있게 되었다.

제임스 툴

풀로 알토 통합 학군, 캘리포니아

제임스 툴은 처음에는 풀로 알토 통합 학군 친구 도우미 프로그램의 조정자였고, 다음에는 1973년부터 1989년 봄까지 같은 프로그램의 소장을 지냈으며, 지금은 미네소타 주 세인트폴 시의 회장으로 있다.

* 자료 : Rich Willits Cairn, 1991.

③ 아동복지시설

구분	시설명	종별	시설장	우편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화성영아원	영아	이형순	133-020	성동구 하왕십리동 978	292-0421
	성노원아기집	"	김종찬	156-050	동작구 노량진동 223-5	813-0070
	시립아동병원	"	이원근	137-180	서초구 내곡동 6-7	575-3121
	홀트일시보호소	"	박영옥	121-220	마포구 합정동 338-19	355-3378
	한국사회봉사회 일시보호소	"	김영희	132-030	도봉구 쌍문동 533-3	993-0821
	대한사회복지회 일시보호소	"	김홍섭	134-050	강동구 암사동 199-1	478-0407
	동방사회복지회 일시보호소	"	김도영	120-180	서대문구 창천동 493	334-4903
	성가정입양원	"	조용원	136-100	성북구 정릉동 990-2	764-4742
	남산원	육아	서정자	100-250	중구 예장동 8-6	752-9836
	영락보린원	"	우성세	140-190	용산구 후암동 370	754-6051
	혜심원	"	임혜옥	140-190	용산구 후암동 435-2	755-8459
	성도자애보육원	"	차영자	139-207	노원구 상계7동 6-4	978-6900
	은평천사원	"	조규환	122-060	은평구 구산동 191-1	355-1701
	선덕원	"	정은득	122-010	은평구 응암동 224	359-4282
	송죽원	"	이신덕	120-090	서대문구 홍제동 356-13	737-4494
	구세군	"	김옥명	121-270	마포구 상암동 43	372-7937
	서울후생학원	"				
	삼동소년촌	"	김종원	121-270	마포구 상암동 33	372-7534
	저온보육원	"	최윤권	157-230	강서구 개화동 325-11	662-3457
	서울SOS어린이다을	"	김연호	158-090	양천구 신월동 149-7	692-0253
	연세사회복지관	"	노월애	152-130	구로구 천왕동 13-36	688-6109
	오류애육원	"	송석도	152-100	구로구 오류동 147	612-6534
	혜명보육원	"	강보순	152-030	구로구 시흥동 224-1	802-0358
	시온원	"	김일선	156-030	동작구 상도동 산 45	815-8582
	청운보육원	"	유무근	156-030	동작구 상도동 290-1	822-1462
	상록보육원	"	부정하	151-080	관악구 남현동 1083-29	584-7097
	동명학원	"	김화자	-	관악구 봉천동 647-10	877-1846
	강남보육원	"	김인옥	135-240	강남구 포이동 57-9	573-0412
	명진보육원	"	황용규	134-020	강동구 천호동 26-18	478-2939
	경생원	"	신길철	134-060	강동구 둔촌동 61-4	478-3673
	애지보육원	"	최진화	134-030	강동구 성내동 412	478-0542
	서울소년의집	"	알로이시오 슈왈츠	122-101	은평구 응암동 42-5	355-3422
	에스터직업보도소	직업보도	전유봉	152-010	구로구 목동 509-1	804-2957

구분	시 설 명	종별	시설장	우편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서 울 특 별 시	살례시오 근로청소년회관	교호	김전중	150-070	영등포구 대림동 929-1	832-5062
	청운자립생활관	자립 지원	유무근	156-030	동작구 상도동 290-1	822-0498
	서울특별시립 아동상담소	아동 상담	이영희	156-020	동작구 대방동 345	813-7741
	서울특별시립 동부아동상담소	"	조영숙	130-100	동대문구 장안동 329-1	248-4567
소계	36					
부산	마리아영아원	영아	알로이시오 슈왈츠	602-030	서구 암남동 5-2	256-3902
	동성보육원	"	임공적	609-312	금정구 서2동 175-3	56-4635
	성애원	"	이옥선	609-392	금정구 장전2동 산38-2	56-4287
	부산아동일시보호소	"	박태덕	609-360	금정구 노포동산 15	508-2163
	미애원	육아	김인호	601-034	동구 수정4동 1184-15	43-0293
	청학농예원	"	김순안	606-072	영도구 청학2동 483-1	412-2277
	매실보육원	"	최매실	614-101	부산진구 당감1동 891-3	809-7569
	새들원	"	오인환	607-060	동래구 온천동 산66-4	555-1104
	우리집원	"	이혜윤	607-060	동래구 온천동 산 14	552-0386
	종덕원	"	임용자	607-080	동래구 연산동 130-1	84-3662
	동산원	"	노숙자	608-101	남구 광안1동 1108	752-3190
	성프란치스코원	"	황만용	608-023	남구 대연3동 390	622-1652
	새빛기독보육원	"	박희랑	608-080	남구 용당동 546	624-3950
	평화의집	"	최무경	616-120	북구 화명동 550-1	332-6310
	성광원	"	정은옥	616-130	북구 금곡동 1192	332-3965
	은혜의집	"	우행자	612-022	해운대구 우2동 1201	72-1406
	우정보육원	"	박갑상	612-022	해운대구 우2동 산 1072-7	72-1071
	박애원	"	임온전	612-022	해운대구 우2동 산 140-1	72-0421
	덕성보육원	"	김진기	612-010	해운대구 중동 718-6	742-4820
	애아원	"	이정순	604-071	사하구 감천1동 598	29-9364
	성방지거애육원	"	조광현	604-071	사하구 감천1동 6-38	29-9095
	남광아동복지원	"	송혜상	609-360	금정구 노포동 산15	508-2923
	회탁원	"	박효일	609-360	금정구 노포동 964-1	508-1133
	소양보육원	"	지득용	618-420	강서구 동선동 119	971-7003
	동부산공업고등 기술학교	직업 보도	임온전	612-022	해운대구 우2동 산140	741-7114
	소년기술훈련원	교호	이현우	608-041	남구 문현1동 산77-1	67-5673
	장선자립 청소년의집	자립 지원	이은상	616-091	북구 구포1동 산57-1	332-4966

구분	시 설 명	종별	시설장	우편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부산	아동청소년회관	아동 상담	김명훈	602-060	서구 아미동 125	244-0555
	남광아동상담소	아동 상담	박태덕	609-360	금정구 노포동 산 15	508-2412
소계	29					
대구	천주교백합보육원	영아	이태정	700-443	종구 남산3동 190-1	254-6016
직할시	대성원	"	도영춘	705-022	남구 봉덕2동 920	66-1696
신애호	보육원	"	이성암	703-110	서구 아현동 337	52-0521
신호	생동원	"	정상영	701-300	동구 신서동 600-1	962-2747
덕	일원	"	정수자	705-012	남구 이천2동 752-1	66-8553
대구	신망애원	"	손규호	706-010	수성구 범어동 177-3	72-4977
대성	보육원	"	방득례	706-050	수성구 중동 316	763-7139
SOS	어린이마을	"	최현자	706-080	수성구 두산동 58-2	763-7249
구세군	대구혜천원	"	최재용	701-040	동구 겸사동 962	92-3154
대구	혜육원	"	변문수	705-038	남구 대명8동 2038	66-4060
애생	보육원	"	손순분	706-080	수성구 두산동 849-2	763-5695
에덴	원	"	이석소	701-040	동구 겸사동 750	92-2895
새별	원	"	유예필	705-023	남구 봉덕동3 1322	66-1613
천광	보육원	"	신영애	702-260	북구 태전동 370	30-0127
회망	의집	"	김명출	702-010	북구 산격동 650	92-2454
육영	학사	"	최기숙	702-012	북구 산격2동 489-1	92-1720
애활	원	"	박복달	701-490	동구 신평동 766	962-1138
배다	나니농원	"	이상구	706-070	수성구 파동 13-5	765-3382
영생	애육원	"	김재선	701-220	동구 을하동 717	962-0179
애활	원	직업 보도	김도연	705-039	남구 대명9동 904-2	67-0032
성청	바오로 소년의집	교호	이상구	706-070	수성구 파동 13-5	765-3382
대구	직할시	아동 상담	유영희	700-113	경북군 위군 부계면 가호리 530-1	83-0635~1 82-2834~1
부녀	아동상담소	"	김병우	706-010	중구 태평3가 181	23-6696
홀트부녀아동상담소	"	"	서태숙	701-023	동구 범어동 238-50	756-0183
동방	아동복지회	"	이성환	706-013	동구 신천3동 154-1	755-1077
대구	아동상담소	"			수성구 범어3동 13-10	72-9361
소계	25					

구분	시 설 명	종별	시설장	우편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인천직할시	해성보육원	영아	정영금	402-020	남구 용현동 159	82-3240
	영종보육원	육아	김정분	400-320	중구 증산동 136	886-0648
	계명원	"	양성수	401-070	동구 송림동 67	74-1703
	보라매보육원	"	우원근	401-020	동구 화수동 140	72-4450
	인천보육원	"	김영길	402-040	남구 학익동 99-1	82-2443
	향진원	"	송성준	402-060	남구 도화동 87-4	82-5607
	신명보육원	"	원도상	403-130	북구 십정동 577-4	522-8944
	시온육아원	"	김득린	403-170	북구 일신동 62	93-8808
	구세군직업훈련원	직업보도	강신형	403-020	북구 산곡동 369-303	526-3629
	명성직업훈련원	"	김광용	403-020	북구 산곡동 산 113	524-9511
	옥합생활관	자립지원	전영애	402-050	동구 창영동 42	73-5508
	인천직할시부녀아동상담소	아동상담	이길순	402-010	남구 승의동 137	883-1761
	홀트아동복지회	"	김만석	402-200	남구 주안동 161-5	424-5839
	인천상담소	"	김자현	403-010	북구 부평동 235	92-2226
소계	14					
광주직할시	영신원	영아	최순영	501-210	동구 용산동 76-6	222-2163
	주체사	"	윤서임	502-060	서구 봉선동 18-1	66-0788
	영아일시보호소	"	소진택	501-220	동구 소태동 446-3	222-1095
	무동육아원	육아	김상선	501-190	동구 학동 744	222-3762
	신애원	"	김오현	502-370	서구 송하동 136	674-0526
	성빈여사	"	조아라	501-160	동구 남동 70	222-8278
	일맥원	"	노현수	501-150	동구 지산동 193-1	222-2040
	애육원	"	윤병진	500-180	북구 동림동 81-1	54-0859
	용진육아원	"	민남식	506-350	광산구 임곡동 102	362-8040
	광주직할시여성회관	아동상담	엄영옥	502-040	서구 양림동 108-2	68-7560
	광주아동상담소	"	서광우	500-130	북구 오치동 912-1	522-4370
	충현아동상담소	"	김양	502-040	서구 양림동 108-5	68-5500
	광명아동상담소	"	소진택	501-220	동구 소태동 448-1	232-2043
	홀트아동상담소	"	윤상오	501-022	동구 금남로 2가 31	27-8877
소계	14					
대전	파얼스영아원	영아	사영희	300-090	동구 가양동 307-13	74-0061
	대전자혜원	육아	이혜구	300-080	동구 소제동 219-147	72-8262

구분	시 설 명	종별	시설장	우편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	대전애육원	"	장복순	300-091	동구 가양1동 437-5	72-1418
전	성심보육원	"	박정희	300-250	동구 하소동 330-2	254-4249
직	성우보육원	"	진익자	301-053	중구 선화3동 192-26	254-4644
활	시온보육원	"	남궁원	302-180	서구 내동 32-9	533-4078
시	후생학원	"	오택환	302-242	서구 관저동 595-19	541-2773
	구세군대전혜생원	"	김은배	302-210	서구 복수동 283-271	531-0215
	천양원	"	유을희	305-308	유성구 장대동 233-3	822-0227
	인애원	"	최재덕	305-325	유성구 노은동 231-1	822-0781
	성화원	"	양혜연	305-156	유성구 외삼동 344-2	822-5097
	대전아동직업훈련원	직업보도	유창학	302-241	서구 가수원동 397-10	541-4300
	효광교호직업보도원	교호	김정환	300-220	동구 낭월동 153-6	217-7053
	대전직할시부녀아동상담소	아동상담	윤방자	301-011	중구 대흥1동 214	253-4048
	대전밸리가정상담소	"	김안체	300-020	동구 인동 78-7	283-7691
	동방아동복지회	"	임창란	300-160	중구 중동 62-1	256-3129
	대전아동상담소	"	김돈영	301-060	중구 은행동 126-9	26-1983
	홀트아동복지회	"	손병주	301-060	중구 은행동 157-3	254-6430
	충청사무소	"	이재현	301-110	중구 응봉동 162-1	254-4020
소계	19					
경기	경동원	영아	신승주	440-420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43-2	5-0460
	야곱의집	"	최경호	451-080	평택시 소사동 106-1	52-2311
	경기도남부아동	"	심양금	430-052	안양시 비산동 2동 570-9	3-7569
	일시보호소	"	김세웅	480-013	의정부시 의정부 3동 368-3	2-2849
	경기도북부아동	"	지현숙	440-420	수원시 장안구 화서2동 41	5-0367
	일시보호소	"	김지춘	440-420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7-12	6-1814
	동광원	육아	김창언	480-020	의정부시 호원동 229	872-3884
	효행원	"	고대성	480-020	의정부시 호원동 99-4	873-3450
	이삭의집	"	오장근	430-012	안양시 만양2동 53	49-2045
	사랑의동산	"	사태현	430-041	안양시 석수1동 238	71-2391
	기독보육원	"	정계화	430-051	안양시 비산1동 산136	49-2596
	안양보육원	"	노주택	422-100	부천시 남구 역곡동 산2	62-7205
	평화보육원	"	유채준	459-030	송탄시 이충동 산77	4-4152
	새소망소년의집	"	김용숙	459-010	송탄시 서정동 346	4-4122

구분	시 설 명	종별	시설장	우편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경기	애신보육원	"	황금주	483-031	동두천시 생연1동 430	5-3978
	어린목자의집	"	황노학	483-020	동두천시 지행동 383	5-4898
	천혜보육원	"	진연숙	450-150	평택시 비전동 403	52-6843
	송암보육원	"	박금점	429-400	시흥시 거모동 산87	84-5326
	명륜보육원	"	한보	437-110	의왕시 청계동 286	52-1996
	광명보육원	"	김영자	482-810	양주군 장흥면 삼상리 1	40-5161
	한국보육원	"	황온순	482-810	양주군 장흥면 삼상리 10	40-5036
	여평보원	"	던순희	469-810	여주군 승서면 왕대리 972-4	2-3311
	상광보린원	"	구자성	413-860	파주군 파주읍 응답리 산93	958-1649
	파주보육원	"	김정현	413-860	파주군 파주읍 법원리 515	958-0176
	평화보원	"	최에도	413-860	파주군 파주읍 연풍리 102	52-4553
	신애원	"	이운순	411-900	고양군 신도읍 동산리 53-124	359-9134
	보화보육원	"	진경란	487-890	포천군 영북면 운천리 323	32-5442
	선한사마리아원	"	김윤분	449-880	용인군 남사면 방아리 75-6	32-6054
	신생보육원	"	한덕수 (직대)	456-800	안성군 안성읍 계촌리 산6	2-3218
	리라아동복지관	육아	임혜옥	140-190	용산구 후암동 435-2	53-3281
	성애원	"	김임술	467-800	이천군 이천읍 안홍리 산 117-2	2-6203
	용인보육원	"	이영철	449-910	용인군 구성면 동백리 281-8	8-8482
	천사의집	"	윤석희	461-110	성남시 하대원동 139-2	751-4183
	신망원	"	박용택	476-820	양평군 양서면 신워리 70	802-0358
	신명보육원	"	홍복순	445-810	화성군 동탄면 장지리 231-4	815-8582
	성심원	"	김의경	449-910	용인군 군수지면 동천리 산 13	8-5249
	남북애육원	"	윤광석	464-860	광주군 초월면 신월리 산 5-1	
	수원시부녀아동상담소	아동상담소	강태화	440-390	수원시 권선구 매산호 1가 18	6-4412
	인영아동상담소	"	김원영	440-420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64-1	41-1164
	경기아동상담소	"	김종태	440-420	수원시 장안구 중동 52	5-3292
	양친회아동상담소	"	유형진	462-242	성남시 종원구 금왕2동 3956	41-3001
	홀트아동복지회	"	천병남	461-191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6834	752-5039
	성남아동상담소	"	심정자	461-192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331	755-5032
	동방아동복지회	"	주진석	450-080	평택시 소사동 106-1	52-2311
	성남아동상담소	"	정의순	440-260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43-2	5-0460
소계	45					
강원도	오순절보육원	영아	구연창	200-120	춘천시 약사동 73	54-2356
	자비영아원	"	이종춘	210-010	강릉시 홍제동 78	42-3555

구분	시 설 명	종별	시설장	우편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강 원 도	애민보육원	육아	조수정	200-150	춘천시 우두동 72	54-7038
	성애원	"	최인숙	220-180	원주시 관설동 1389	42-2107
	자신보육원	"	김기현	220-121	원주시 태장1동 729-3	42-2633
	신애원	"	이신학	220-122	원주시 태장2동 395	42-2911
	강릉보육원	"	최길순	210-250	강릉시 입암동 580-1	2-7263
	명동보육원	"	혜춘구	250-855	홍천읍 회망1리 182	32-0210
	심향육아원	"	이재선	222-920	원성군 호저면 대덕리 647	43-2447
	풍익보육원	"	곽종옥	209-840	화성군 하남면 위라리 397	2-2175
	춘천시부녀소	아동 상담	이경자	210-090	춘천시 옥천동 111	53-3700
	한국어린이재단부	"	윤희병	200-130	춘천시 근화동 601	54-4130
	강원도지부	"	정승기	200-100	춘천시 낙원동 27-1	54-6238
	홀트아동복지회	"	최경원	220-050	원주시 일산동 154-208	42-2844
	강원사무소	"				
	동방아동복지회원	"				
	주아동상담소	"				
소계	14					
충 청 북 도	제천영아원	영아	제인하이트	390-090	제천시 고암동 산 28-1	45-1614
	충북희망원	"	김경해	360-430	청주시 신천동 308-48	60-0038
	충북유아원	육아	김석진	380-100	청주시 사직동 12	4-4814
	성화원	"	이경훈	360-110	청주시 운천동 568	62-6696
	혜능보육원	"	왕도윤	363-910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29-8	60-1590
	옥천보육원	"	정희영	373-800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45	2-2275
	영실애육원	"	서기석	373-800	옥천군 옥천읍 대천리 479-1	2-4114
	음성향애원	"	김인기	369-800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91-7	72-2059
	요한보스코원	직업 보도	김창수	383-830	충원군 산척면 영덕리 262-9	845-0361
	충주시부녀소	아동 상담	하화자	360-012	청주시 북문로 2가 116	52-3876
소계	10					
충 청 남 도	삼일육아원	육아	김옥화	330-090	천안시 쌍용동 220-4	531-1001 521-7795
	신아원	"	김민자	330-150	천안시 삼용동 14-2	565-5761
	대천애육원	"	전덕규	355-150	대천시 신혹동 산 253	33-7018
	뿌란나애육원	"	차동춘	336-070	온양시 방죽동 160-3	42-3464
	향림원	"	최병운	312-940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866	52-5219
	영명보육원	"	조종희	339-810	연기군 서면 월하리 1103-46	865-2059
	금강애린원	"	김부춘	320-900	논산군 강경읍 채산리 산 18-7	4-0900
	계룡학사	"	유창학	320-870	논산군 연산면 화악리 151-5	735-07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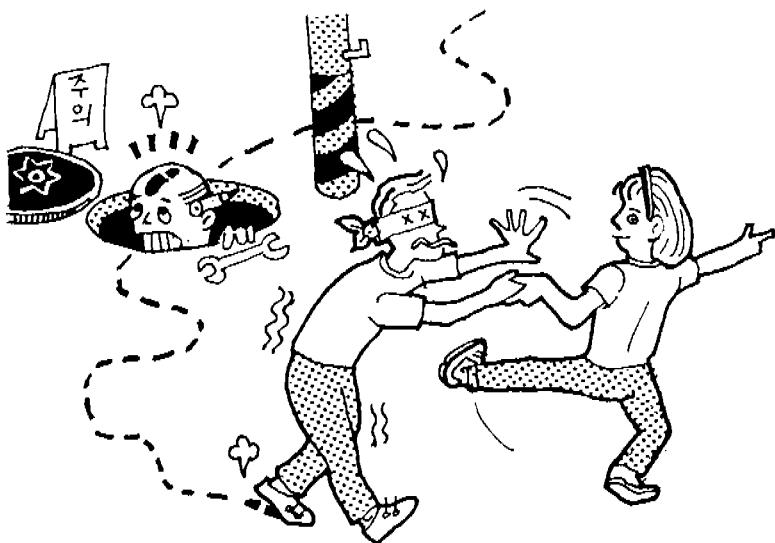
구분	시설명	종별	시설장	우편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충 청 남 도	에덴보육원	"	노봉옥	320-830	논산군 연부읍 동산리 880	741-4183	
	삼신보육원	"	김안순	323-950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1310	741-4184	
	보령원	"	김종문	353-880	보령군 날포면 창동리 568	32-5049	
	사랑육아원	"	김광수	350-900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730-2	33-1144	
	덕산신생원	"	조창희	34-920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산1	641-2598	
	의선원	"	김자룡 (직무대리)	333-830	천안군 성거읍 모전리 1	37-4046	
	영생애육원	"	박일남	337-850	아산군 배방면 북수리 산 3-6	64-5209	
	성남보육원	"	명동훈	356-101	서산시 문동동 9-5	42-2785	
	신탐보육원	"	정광호	323-840	부여군 홍산면 상천리 산 78-1	2-2281	
	홍성사회복지관	아동 상담	김정순	350-900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701	32-1352	
소계	19						
전 라 북 도	전주영아원	육아	김경신	520-250	전주시 중화산동 2가 428-2	222-1559	
	일맥원	"	박경희	573-140	군산시 문화동 824-7	62-2385	
	모세스영아원	"	김금련	573-440	군산시 개정동 413	3-5589	
	기독영아원	"	최승유	570-140	이리시 신홍동 406-71	855-3695	
	삼성보육원	"	김옥정	560-240	전주시 효자동 1113-1	221-7001	
	선덕보육원	"	김제웅	560-280	전주시 평화동 2가 259-12	221-2788	
	호성보육성원	"	나택균	560-200	전주시 팔복동 1가 48	4-8582	
	삼성애육원	"	정중홍	573-050	군산시 신창동 7	445-4237	
	구세군후생학원	"	김소인	573-290	군산시 신홍동 58-10	62-4637	
	군산애육원	"	구자경	573-350	군산시 나운동 54	445-5947	
	이리보육원	"	오성해	570-170	이리시 신동 765-24	855-6324	
	정음애육원	"	박주채	580-060	정주시 시기1동 180	535-3017	
	순창애육원	"	박성온	595-800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538	53-2553	
	고창행복원	"	이초순	585-800	고창군 고창읍 석교리 4-4	64-2150	
	아모스요엘원	"	이정자	585-880	고창군 무장읍 강남리 688-3	62-9312	
	개정보육원	"	박성준	575-920	옥구군 개정면 아산 16	451-2260	
	시온육아원	"	김정자	572-940	익산군 왕궁면 온수리 170	291-2118	
	전북소청원	교호	양향환	585-880	고창군 무장면 강남리 산 70-6	62-2811	
	동방아동복지회	이동	강연숙	560-250	전주시 중화산동 1가 172-4	6-3374	
	전북상담소	상담	"	김경신	560-010	전주시 중앙동 1가 36-12	6-0880
	홀트아동복지회	"	장동철	560-280	전주시 평화동 1가 340-1	72-7873	
	전북상담소	"					
	한국어린이재단	"					
	전북상담소	"					
소계	21						

구분	시	설	명	종별	시설장	우편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전	동	민	영	아	원	영아	장경숙	530-4170	목포시 용해동 321	72-5656		
라	전	남	영	아	보	호	소	"	최재영	520-210	나주시 보산동 127	32-1964
남	공	생	애	동	원	육아	윤정미	520-090	목포시 죽교동 473	42-7501		
도	아	경	애	보	육	원	"	이정희	530-380	목포시 용해동 753	76-0078	
	성	여	수	성	여	육	원	"	정현남	530-350	목포시 산정동 222	73-3124
	성	여	수	여	보	육	원	"	나남기	530-010	목포시 죽교동 30	44-4215
	SOS	어	수	SOS	어	린	이	"	윤채주	550-180	여수시 국동 1033	41-3141
	나	주	백	나	주	백	민	"	주옥금	540-160	순천시 인제동 121	744-2964
	화	순	자	화	순	자	민	"	김학교	540-010	순천시 와룡동 158-6	52-7566
	강	진	자	강	진	자	원	"	심순택	520-120	나주시 경현동 171	34-2317
	행	남	비	행	남	비	원	"	장경님	519-800	화순군 화순읍 대리 87	374-2550
	영	암	애	영	암	애	원	"	길석신	527-800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267	33-3289
	소	전	애	소	전	애	원	"	이준묵	536-800	해남군 해남읍 해리 573	2-2048
	금	성	애	금	성	성	원	"	김령곤	526-800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35	73-2052
	합	평	삼	합	평	삼	원	"	정해전	534-900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216	79-0408
	합	평	애	합	평	삼	원	"	조부태	523-820	나주군 금천면 오강리 453	31-7646
	귀	시	은	귀	계	은	원	"	윤한식	525-800	합평군 합평읍 내교리 379	22-2707~8
	신	안	보	신	안	보	육	"	윤한종	525-810	합평군 학교면 학교리 453-5	22-6600
	영	산	보	영	산	보	원	"	박기후	515-800	정성군 장성읍 장안리 513	2-5566
									정성덕	535-810	신안군 압해면 동서리 808-11	71-9635
							교호	513-900	장규현	513-900	영광군 백수읍 길용리 447	53-5690
소계			21									
경	포	황	선	린	애	육	원	"	육아	790-280	포항시 환호동 산 17	47-4404
상	대	자	자	대	자	자	원	"	서두표	780-030	경주시 노서동 86	2-3228
북	성	애	애	성	애	애	원	"	조용재	780-420	경주시 구정동 616-51	746-4826
도	임	마	누	엘	영	육	아	"	유근순	740-160	김천시 교동 591	2-2821
	배	다	니	성	화	애	원	"	김정숙	740-050	김천시 치좌동 432	31-3773
	경	안	신	신	성	육	원	"	김신호	760-390	안동시 정상동 521	52-4439
	삼	성	성	삼	성	성	원	"	김계한	730-040	구미시 혁곡동 73-3	52-8487
	영	천	회	영	천	회	육	"	신영화	770-180	영천시 작산동 130	34-3822
	선	망	애	선	망	애	원	"	이상근	744-220	청주시 영신동 422	2-2811
	의	성	자	의	성	자	혜	"	황용석	769-800	의성군 와성읍 후죽리 136	2-2900
	경	북	기	경	북	기	독	"	박철진	766-810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408	32-0426
	소	당	기	소	당	기	독	"	이성복	719-860	성주군 주름면 신파리 64-2	32-3551
	배	다	보	배	다	보	육	"	박신웅	741-810	금릉군 대항면 향천리 559	30-6233
	영	남	보	영	남	보	육	"	천특훈	735-840	선산군 장천면 화장리 650	54-5029
	상	주	보	상	주	보	육	"	한재덕	743-950	상주군 낙동면 성동리 35	32-4172

구분	시 설 명	종별	시설장	우편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제 주 도	홍익영아원	영아	김종철	690-241	제주시 도련1동 2043-1	55-0844
	홍익보육원	"	김종철	690-081	제주시 도련1동 2043-1	55-0844
	제주보육원	"	강도아	690-210	제주시 내도동 887	43-5020
	영진보육원	"	김유택	690-241	제주시 도두1동 2282	46-1056
	제남보육원	"	안영삼	697-010	서귀포시 서귀포동 17	62-2489
	천사보육원	"	박희순	699-830	남제주군 대정읍 하보리 1100	94-2227
	제주도부녀	아동	강형숙	690-021	제주시 이도1동 1782-12	23-2911
	아동상담소					
소계	7					

* 자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총람, 1991.

III. 이해 프로그램



「내」가 「네」가 되어
손끝으로 사랑을
작은 정성 큰 기쁨

「내」가 「네」가 되어

우리는 다양한 장애를 지닌 장애인들과 함께 하나의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려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정상인들은 그들이 지닌 고통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봄으로써 그들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갈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우리는 신체적 장애를 체험해 봄으로써 정신적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

1. 활동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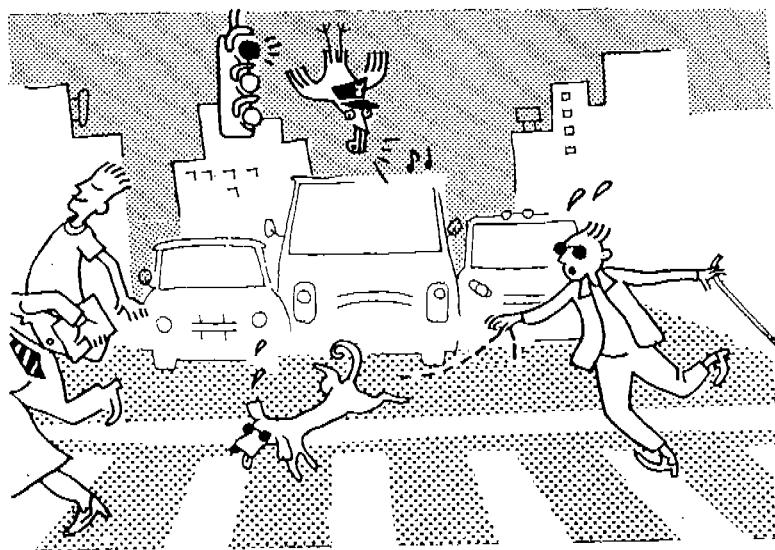
목표	다양한 신체적 장애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는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함께 느껴보고 이해하여, 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한다.			
활동과정	장애인의 글 소개 장애인의 글을 통해 그들에 대한 진실된 이해를 돋는다.	즐겁게 노래를 장애인 이해활동 의 의미를 지닌 노래를 선정해 배우며 그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	장애체험활동 시각, 청각, 신체 장애를 상황별 로 선정하여 불 편함을 체험해 보게 한다.	함께 나누기 활동을 하면서 느 낀 점들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2. 활동 내용

과정 1 장애인의 글 소개

장애인의 글과 그 작품을 만든 장애인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진면목을 알게 하여 그들에 대한 진실된 이해를 돋는다.

- ▷ 청소년 중 지원자를 뽑아 뇌성마비 장애인 김광식군의 시 「나의 소망」을 낭독하게 한다.
- ▷ 작품과 그것을 쓴 작가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해 작가에 대한 소개를 한다(도움자료 ①).
- ▷ 뇌성마비에 대해 알아 본다(도움자료 ②).
- ▷ 작가가 속해있는 공동체의 보육사(엄마)의 글을 통해 이들의 생활을 좀 더 깊이있게 이해해 본다(도움자료 ③).



『나의 소망

걸고 싶다.

걸어서 나의 꿈을 펼치고 싶다.

저 거친 파도와

싸워보고 싶다.

날고 싶다.

한마리 철새가 되어 지친 내 마음에

곱고 아름다운 집으로 날아가고 싶다.

뛰고 싶다.

철없는 저 아이들과 함께 뛰놀며 나도

옛날 개구장이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얘기하고 싶다.

마음을 열고 꽃과 나무와 새들과

모든 자연과 이야기 하고 싶다.

그럼 외롭지 않겠지.

어디론가 가고 싶다.

외로운 사람이 없는 곳으로

난 가고 싶다.

오직 행복이 있는 곳으로』

* 자료 : 은평천사원 출판부, 1993.

과정 2 즐겁게 노래를

♡ 우리와 사랑이 빛나는 노래 ♡

그대 어깨위에 놓인 침이 - 너무 힘들었네 워서
때론 내가 혼자 뿐이라고 - 느낀 적이 있었어요

길 - 를 걸다 - 벌써 진 그 - 길가에서 - 바늘풀 - 고심이 많아 -
성 - 각 하면 - 그 어느순 - 간에서도 - 하늘만 - 든 같아 있죠 -

아주 학도 꽉찬 희 - 이자만 - 나의 손들암 - 아오
아구 학도 꽉찬 희 - 이라도 - 내겐 흔들리 - 지요

따 - 뜻 활을 - 는 깨어할 - 수 있도록 - 이후만 - 저출께로
내 - 가 출때 - 그 대 따뜻 - 한 귀로가 - 펼쳐했 - 었 것처럼

우리가 - 저마다 힘에 깨운 - 인생의 - 주제로 넣어갈 때
그 순간 - 이 바로 우리들의 - 사랑이 필요해지죠 -

앞서가는 - 사람들과 뒤에서도 - 능사람들 -

꼭 두드려 우 리 들의 사랑이 필요한거죠

우리가 - 저마다 힘에 깨운 - 인생의 주제로 넣어갈 때

그 순간 - 이 바로 우리들의 - 사랑이 필요해지죠 - REPEAT & F.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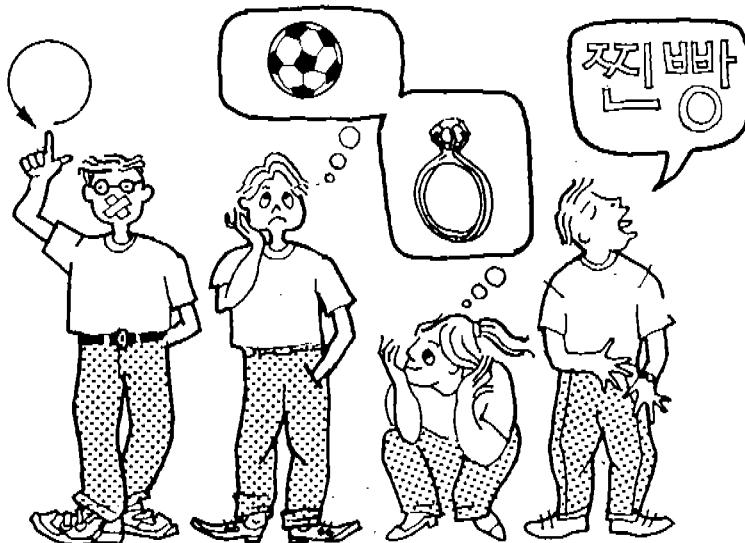
노래가 지닌 의미를 생각하면서 장애인들과 우리들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

- ▷ 악보를 준비한다.
- ▷ 노래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한다.
- ▷ 참가자 전체가 함께 노래를 배운다.
- ▷ 활동진행자들은 장애체험활동을 위한 준비작업을 한다.

과정 3 장애체험활동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시각, 청각, 신체 일부장애를 상황별로 설정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차례로 체험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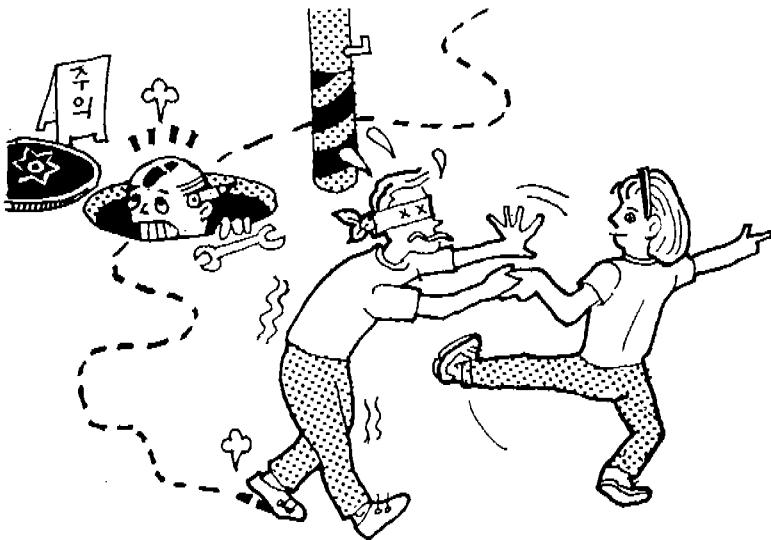
- ▷ 상황 1 「말을 못해요」



- ▶ 청각 장애인이 되어 자신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본다.
- ▶ 전달문이 적힌 쪽지를 그룹 수 만큼 준비한다.
- ▶ 4인 1조로 짹을 이루어 전달문이 적힌 종이를 1매씩 고른다.
- ▶ 전달문을 상대방에게 몸짓만을 통하여 전달하고 마지막 사람은 전달이 끝난 후 전달받은 내용을 최초의 전달자에게 말하면서 어느 정도

일치를 보이는가 확인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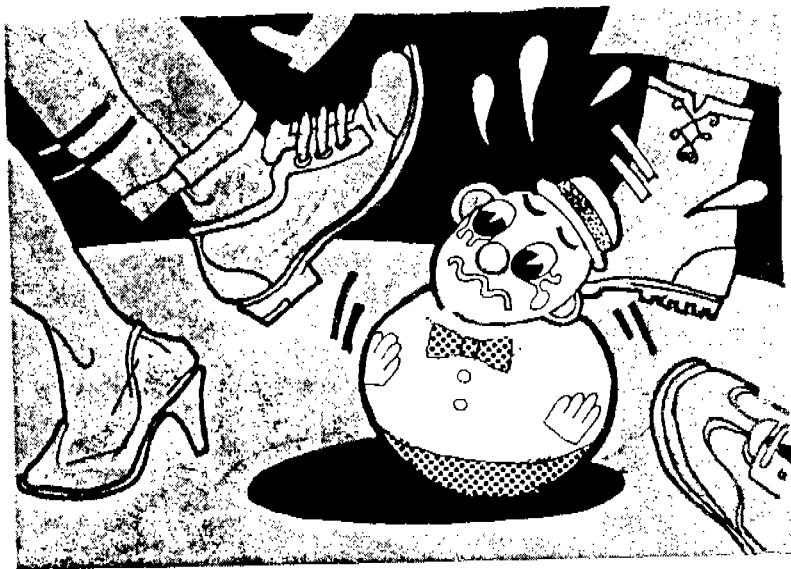
▷ 상황 2 「보지 못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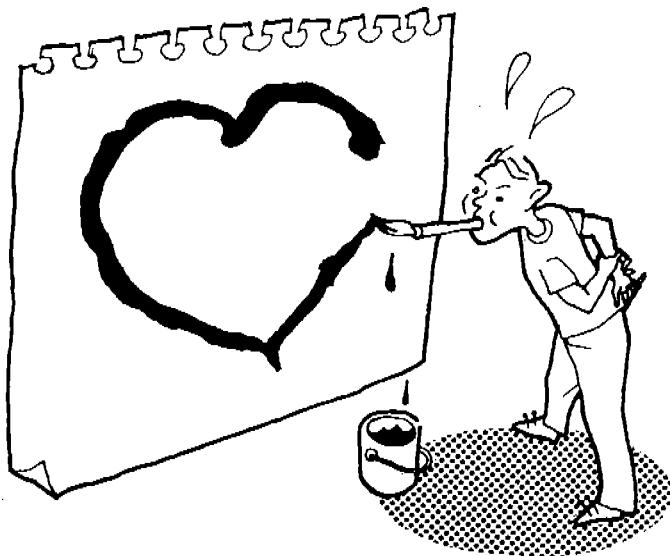
- ▶ 2인 1조로 짹을 이룬 후 한 사람이 짹의 눈을 가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 ▶ 눈을 가린 후 자신의 짹에게 혼자서 걸어간다 (시각 장애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그 짹들은 10m 간격으로 마주보고 서 있다).
- ▶ 자신의 짹에게 도착했을 때 역할을 교대한다.
- ▶ 역할교대가 끝난 후 다시 눈을 가리고 상대방의 손을 잡고(안내를 받으며) 가고 싶은 곳을 다녀온다.
- ▶ 다시 역할을 교대한다.

▷ 상황 3 「걷지 못해요」

- ▶ 걷지 못하는 장애에 대하여 몇 가지 예를 들어준다.
- ▶ 장애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정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10m 간격으로 마주 보고 장애인은 앉고 정상인은 서 있다.
- ▶ 양측 모두 서로 마주 보고 앞으로 나아간다. 장애인은 엉덩이를 땅에 대고 앉은 채로 손으로 밀며 나아가고 정상인은 걸어 나간다.
- ▶ 반대 위치에 도달했을 때 역할을 교대한다.



▷ 상황 4 「팔을 못써요」



- ▶ 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에 대하여 몇 가지 예를 들어준다.
- ▶ 2인 1조가 되어 교대로 활동하며 자신의 짹의 행동을 지켜본다.

- ▶ 팔을 사용하지 않고 음식을 먹어 본다.
- ▶ 입 또는 발 등을 사용하여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게 한다.

과정 4 함께 나누기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들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눈다.

- ▷ 토론하기 좋게 조별로 둘러 앉는다.
- ▷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전체가 함께 부르며 자연스럽게 토론분위기를 조성한다.
- ▷ 조별로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 ▶ 체험활동시 어려웠던 점
 - ▶ 활동할 때의 느낌
 - ▶ 내가 그 상황이라면
 - ▶ 내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 ▶ 이 활동을 통해 얻은 것은
- ▷ 장애인에 대한 예의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배워 본다(도움자료 ④).



- ▷ 지도자는 장애인들을 위해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작은 사랑의 행위들을 소개해 준다 (도움자료 ⑤).

3. 유의사항

- ▷ 장난스러운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 ▷ 모든 조는 4개의 상황을 모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며 각 상황마다 활동진행을 잘 알고 있는 지도자나 진행자를 배치시킨다.
- ▷ 체험활동시 특정한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유의하며 한 곳에서 시간을 너무 보내지 않도록 시간을 조절한다.
- ▷ 알아두면 도움이 될 내용들은 유인물로 인쇄하여 나누어 준다.

4. 도움자료

① 작가 소개

김평식군은 1968년 5월 출생으로 '76년 5월에 서울 소년의 집에서 시립 아동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81년에 천사원에 입소하였습니다. '92년에 강원도 신철원의 문혜장애인요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11년간 천사원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장애는 뇌성마비 1급입니다.

생활의 일체를 타인(특히 김청명)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이며 가끔씩 우울한 모습으로 혼자 나무그늘에 앉아있곤 했습니다. 떠나간 친구에 대한 그리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이성에 대한 관심 등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시나 수필, 산문 등의 습작에 열중하곤 했습니다.

천사원 뇌성마비 아동들로 구성된 소망중창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기도 하면서 물리치료며 원내 활동에 의욕적으로 참여하곤 했습니다.

* 자료 : 은평천사원 출판부, 1993.

② 뇌성마비

뇌성마비란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한 장애상태의 총칭으로 「뇌성」이란 뇌의 손상을 의미하고 「마비」란 근육조절 기능이 없다는 뜻으로 하나의 증상입니다. 뇌성마비는 심한 경우 몸의 운동을 전혀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부터 경한 경우 가벼운 언어장애만 있는 경우까지 매우 다양한 증상을 보입니다.

뇌성마비는 유전, 전염, 진행되지 않으며 사망의 직접 원인도 되지 않습니다.

뇌성마비는 조산이나 미숙아에게서 그 발생율이 높으며 출산전후의 산모의 질병, 혈액형의 부조화, 난산에 의한 산소결핍, 출산후 사고나 외상, 질병, 낙중독, 유아학대, 신생아황달 등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 증상은 근육의 마비이나 대부분의 경우 감각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이상행동 등 여러가지 장애를 동반하고 간질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약 50% 정도는 지능지수가 낮아 학습장애는 물론 사회적응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생후 1년 이내에는 진단이 매우 어려운데 젖을 잘 뺄지 못하며, 팔, 다리를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잘 보체고 주의산만하고 목을 기누고 돌아눕고 기어가는 등의 운동발달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경련형, 강직형, 운동실조형, 진천형, 무도형 등으로 분류되며 대부분의 뇌성마비아는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를 받아야하며, 목발, 훨체어 등의 보장구 착용이 필요하기도 하며 2차적으로 발생한 사지의 변형을 교정시키거나 기능향상을 얻기 위해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91년 현재 뇌성마비 장애인이 약 육만명 내지 십만 명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 자료 : 은평천사원 출판부, 1993.

③ 광식이의 하루

12월 26일, 오늘은 엄마의 생일입니다.

광식이는 제일 먼저 일어나 다른 동생들을 깨워 세수를 하고 옷을 챙겨 입도록 독려를 합니다.

청명이는 광식이와 하일이의 옷을 입혀 주기에 바쁩니다. 엄마가 아침 밥을 가지러 식당으로 내려간 사이, 광식이는 동생들을 지휘하여 최종 연습을 합니다. 엄마의 생일파티를 근사하게 열어줄려고 며칠동안 준비한 연극과 합창입니다.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진우랑 탄진이랑 수진이랑 다른 많은 친구들과 옆방 엄마들까지도 초대한 화려한 무대입니다. 광식이, 하일이, 승복이가 연극을 하고 합창을 하고, 청명이는 춤과 노래를 신나게 자랑합니다. 박수소리 속에서 아이들은 생일축하 공연의 성공에 만족하고, 엄마 얼굴에는 눈물과 미소가 얼룩집니다.

이제는 아이스크림이랑 통닭을 먹어 치울 차렵니다. 닭다리 만큼은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광식이입니다.

오후에는 탄진이랑 오목을 두기로 했습니다. 동생 총철이가 바둑알을 자꾸 흐트려 밟기는 하지만, 오늘은 좋은 날이라 참기로 했습니다. 오목을 두고 있는 광식이의 모습이 굉장히 멋지게 여겨집니다. 남방에다 넷타이까지 매고서 머리에는 무쓰를 발라 한쪽으로 넘겨 근사해 보입니다.

언제나 깔끔하게 멋을 내고 다니는 광식이에겐 여자친구도 많고 인기도 있습니다. 가끔은 여자친구와 등나무 그늘에서 즐거운 대화시간을 갖기도 하고, 때론 혼자 사색에 잠기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손가락을 조금만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은 컴퓨터(워드프로세서)를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부터였습니다.

오늘은 무척 바쁘고 즐겁게 지나갔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몇 배의 더 많은 즐거움과 행복을 아이들에게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은 엄마에게 즐거움이, 내일은 독수리방 형제들에게 행복이 있기를…

* 자료 : 은평천사원 출판부, 1993.

④ 장애인을 돋는 기술과 장애인에 대한 예의

▶ 장애자에 대한 에티켓

1) 무엇보다도 먼저 장애를 가진 사람도 하나의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

그는 장애를 가졌다는 특수한 제한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

2) 사람이 각기 다르듯이 장애자 역시 각기 다르다. 장애자를 모두 동일시하지 말고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진 인격체라는 것을 인식한다.

3) 장애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은 풍부한 인간성의 표현이다.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서로 도우며 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4) 장애자를 만날 때는 자연스럽게 대하고, 오직 그의 요구가 있을 때만 돋는다. 많은 시각 장애자들이 남의 도움없이 지내고 싶어하는 것처럼 지체 장애자들도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나고 싶어할

것이다.

- 5) 장애자를 도울 때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듣고 행동하는 것이 좋다.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친절이 아니고 쓸데없는 참견이다.
- 6) 잘 모르는 장애자를 보았을 때 주춤하거나 유심히 보지 않는다.
파인보호나 파잉염려, 그리고 파잉친절은 금물이다.
- 7) 보행이나 대화시 장애자 자신의 보조대로 하도록 안내한다. 그리고 장애자와 식사할 때 음식 먹는 일을 돕지 않는다.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할 것이다.
- 8) 동정이나 자선을 베풀지 않는다. 장애자는 대등한 인간으로 대우 받기를 원하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한다.
- 9) 장애자에 대해서 앞질러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의 능력과 관심에 대해 얼마나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놀라게 될 것이다.

▶ 청각장애인에 대한 예의

- 1) 청각장애자 가운데는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가 많다.
- 2) 대화 방법에는 우선 구화법이 있는데 입의 모양을 보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는 방법이다. 이 때 몸의 동작을 섞으면서 정면에서 입을 크게 움직이며 여유를 갖고 천천히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 3) 수화 통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수화로 한다.
- 4) 필기법은 손바닥이나 종이에 글자를 써서 읽어주는 방법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정확히 전달된다.
- 5) 청각장애자가 가장 불편을 느낄 때에는 보행 중 뒤에서 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 병에 걸려 병원에 갔으나 접수창구에서 우왕좌왕하는 경우, 급한 일이 있는데 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 지체장애인에 대한 예의

- 1) 휠체어 사용자가 거리에서 곤란해 할 경우를 보면 먼저 말을 건다.
- 2)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2,3명이 호흡을 맞춰서 천천히 휠체어를 들어야 한다.
- 3)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 즉, 목발이나 의족 등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 4) 목발 사용자는 계단이나 턱에서 곤란을 느낄 때가 많다. 도움이 필요한가를 물어보고 도와준다.

- 5) 우천시에 목발 사용자는 제일 곤란을 느낀다. 그것은 우산을 사용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옆에 있을 경우 도와줘야 한다.
- 6) 목발 사용자가 넘어져서 목발이 손에 닿기 힘든 곳에 떨어져 있을 때는 바로 목발을 주워와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손을 써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시각장애인에 대한 예의

- 1) 인사할 때는 먼저 말을 걸고 악수한다.
- 2) 시각장애인 중에는 전맹과 약시가 있는데 돋는 방법은 각기 다르다.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하다.
- 3) 방향과 장소를 알려줄 때는 전후좌우와 몇 발짝, 몇 미터 등 정확한 위치를 말해줘야 한다.
- 4) 안내할 때는 휠체어가 반대쪽에 서서 자기 팔을 빌려 주고 시각장애인의 반보 앞에서 걸어간다. 휠체어이는 시각장애인의 눈이므로 그것을 잡고 있는 손을 붙잡는다거나, 당긴다거나, 민다거나 하는 것은 금물이다.
- 5)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에서는 올라간다거나 내려간다는 것을 확실히 설명해 줘야 한다.
- 6) 차 대접 또는 식사시, 먼저 각 그릇의 위치와 그 음식 내용을 작은 목소리로 확실히 설명해 줘야 한다(그릇의 위치는 시계방향으로 말하면 빨리 알아차린다).

▶ 휠체어 장애자를 돋는 방법

돕는 방법



휠체어의 브레이크를 걷다.	몸을 앞으로 옮기고 빌빌침을 올린다.	발위치를 넓히고 허리를 충분히 낮추고 잔등과 엉덩이 밑으로 손을 집어 넣는다.	안고 나면 쭉 안으로 당겨준다.	일어선다.
----------------------	----------------------------------	---	-------------------------	-------

휠체어에 앉히는 법



휠체어에 브레이크
장치를 하고
발판을 올린다.

쿠션을 놓고
본인을 앉힌다.

휠체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허리를 안쪽
깊숙이 앉힌다.

계단을 오를 때(휠체어 전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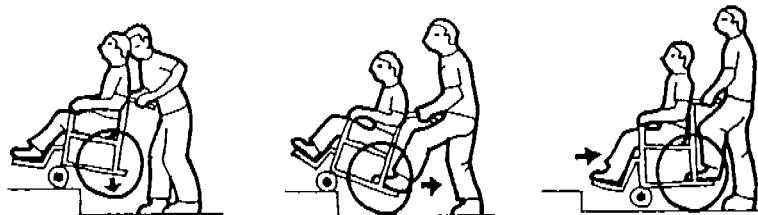


캐스터를 들어
올린다.

계단으로
올린다.

뒷바퀴를
밀어 올린다.

계단을 내려올 때(휠체어 후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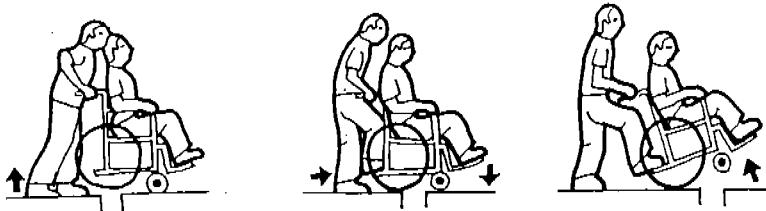


뒷바퀴를 내린다.

들어 올린 후에 끈다.

내린다.

틈을 넘을 때(앞으로 갈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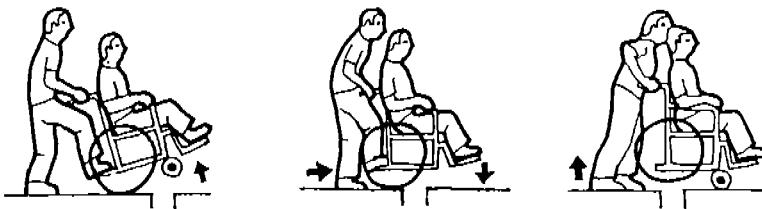


캐스터를 들어
올린다.

캐스터를
내린다.

뒷바퀴를 띄우고
틈을 넘는다.

뒤로 갈 때



계단, 틈을 넘을 때 장애인을 들어올린 후에는 살짝 내려 놓는다.

* 자료 : 강세윤(편), 1988.

⑤ 장애인 이해자료

미술전시관이 즐비한 서울 인사동에서 작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면 라파엘의 집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육안으로는 감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미술작품들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자라고 있는 중복 시각장애 아동들의 보금자리다.

이곳 가족은 두살박이부터 열 일곱살까지 남자 11명, 여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장애는 시각장애. 그렇지만 단순맹인은 없고 모두가 시각장애에 지체, 언어, 정신지체 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중복장애 아동들이다.

전체 열 명의 교사들은 신변 처리를 위한 생활교육에 비교적 많은 시간

을 할애한다. 그 외에는 집단 놀이, 그룹별 지도, 개별적인 수업 등 일반 유아원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하루 종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산책. 오후에는 항상 가까운 미술관, 조계사, 놀이터로 산책을 나선다. 부족한 운동량을 보충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밖에도 ‘눈’이라는 경험 통로를 상실한 아이들에게 소풍, 생일잔치, 여름캠프 등의 다양한 체험은 신체발달과 정서발달에 많은 도움을 준다. 요즈음은 매주 한번씩 수영장에 가서 물놀이를 하는 기쁨을 맛보고 있다.

서울 중심가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자원봉사 방문객은 국민 학생부터 노인들까지 매우 다양하다. “김누리(7). 성격이 제일 활발한 아가씨예요.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나면 어깨를 힘껏 밀죠. 음악을 아주 좋아하니 노래를 불러주세요. 귀에다 살며시 들려주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공동방에 써붙인 아이들 소개는 자신을 표현하기 힘든 아동들과 처음 오는 봉사자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봉사자 중에서 하병원의 소아과 과장 박세원씨(40. 세례자요한)는 라파엘의 집의 빼놓을 수 없는 은인이다. 박씨는 소아과에 자주 드나드는 아이들을 눈여겨 보다가 삼사년 전부터 매주 이 곳을 방문,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아이들의 무료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다. 이로써 응급실문이 많도록 드나들던 병치례도 많이 줄어들었다.

아이들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이고 각자 눈물겨운 사연들을 간직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누구보다 해맑다. 이 곳에서 5년째 봉사하고 있는 강동택씨(31. 미카엘)는 “방문객들은 아이들이 중복장애자라는 이유로 몹시 불쌍해 하지만 아이들은 죄를 짓지 않아서 그런지 오히려 정상인보다 더 행복한 표정을 갖고 산다”고 말한다.

아이들이 이 곳을 거쳐 재활을 하거나 차립하는 경우는 아직 없다. 신변 처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특수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불가능한 데다 라파엘의 집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편입하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이다.

여느 공동체처럼 후원자들로 운영되는 시설의 한계점, 교사 수급문제 등의 걱정거리를 안고 있는 라파엘의 집은 무엇보다 국가가 나서서 중복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를 활성화시켜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빛이 없는 세상에서 숨겨지고, 버려지고 있는 수많은 어린 새싹들이 활짝 꽂피울 수 있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 자료 : 기톨릭신문, 1994.

손 꼈 으로 사랑 을

인간은 누구나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체험이 있으며 이것을 남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음성언어를 통해 이 모든 것을 타인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청각·언어 장애인들은 의사전달 방법에 있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기초적인 수화동작을 함께 배워 보고 수화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 봄으로써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해 본다.

1. 활동 과정

목표	기초적인 수화동작을 배우고 노래를 수화로 표현해 봄으로써 간접적인 청각·언어 장애를 경험해 본다. 이 활동은 청각·언어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와 선의의 관심, 그들을 위한 봉사활동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활동 과정	노래 「작은세상」 배우기 활동의 의미를 내포한 노래를 선정하여 배우는 동안 즐겁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동에 빠져들게 한다.	지화로 「가,나, 다,라…」를 수화, 지화, 구화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 기초를 배우며 자연스럽게 활동에 빠져들게 한다.	간단한 수화단어 익히기 간단한 인사말과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을 수화로 배워본다.	「작은세상」을 수화로 앞서 배운 노래를 수화를 사용하며 다 함께 불러 본다.

2. 활동 내용

과정 1 노래 「작은세상」 배우기

활동의 의미를 내포한 노래를 선정하여 배우는 동안 즐겁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동에 빠져들게 한다.

- ▷ 악보를 인원수 만큼 준비한다.
- ▷ 노래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한다.
- ▷ 참가자 전체가 함께 노래를 배운다.
- ▷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가사를 모두 암기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불러본다.
- ▷ 족홍적으로 경연대회를 열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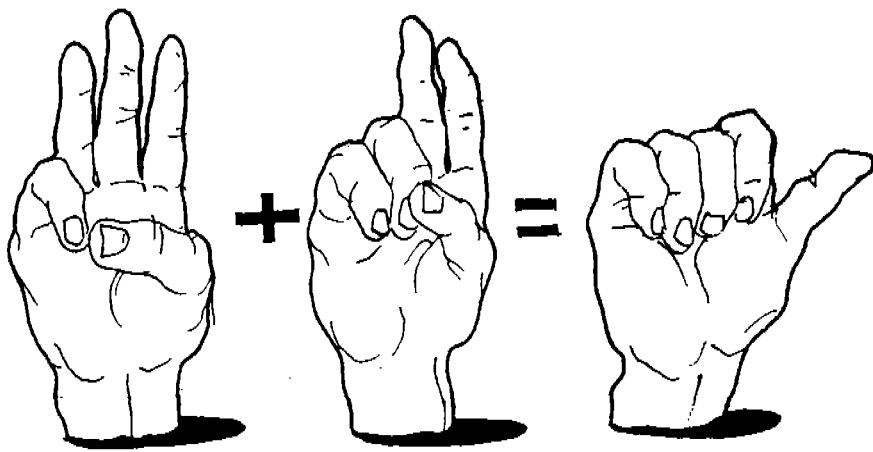
작은 세상

함께 나누는 기쁨과 슬픔 함께
 G D7
 느끼는 희망과 꿈 험 이세 야비로
 G7 C A7 E7 Am B7 G
 소무리 는 알았네 차고 작은 이 세상 — FINE
 G Em Am D7
 산이 높고 험해도 바다
 G G7
 산고도 우러나는
 C D7 G
 이세상 아주 작고 작은 것 — D.C.

과정 2 지화로 「가, 나, 다, 라 …」를

청각·언어 장애인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수화, 지화, 구화가 있다.
이들의 차이점과 수화의 개념을 설명하고 기초가 되는 한글 지화와
숫자를 배워 본다.

- ▷ 지도자는 참가자들이 침조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과 수화에 대한 기본개념을 유인물로 준비하고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이해를 돋는다(도움자료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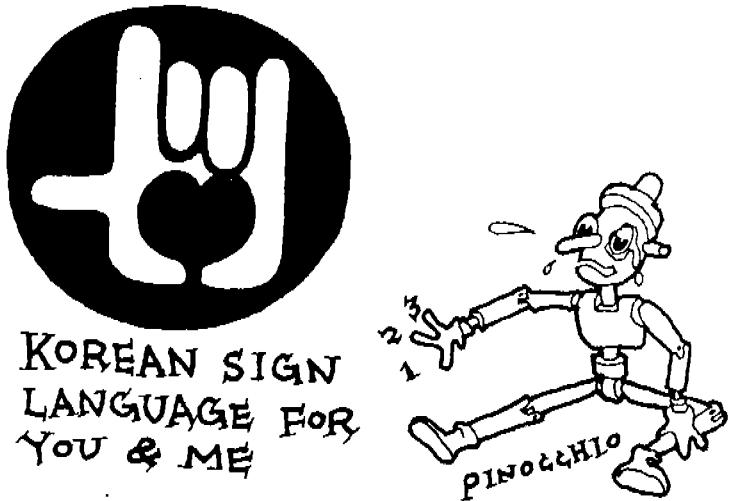


- ▷ 한글자화와 숫자자화를 반복학습 한다. 중요한 동작 순위로 가르친다(도움자료 ③ ④).
- ▷ 활동과정 1에서 나누어진 그룹별로 무리지어 앉아 서로 도와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준다.
- ▷ 옆사람끼리 둘씩 짹을 지어 서로 도와 동작을 확인하며 연습한다.
- ▷ 자신의 이름 및 주소, 상대방의 이름을 써 볼 수 있도록 한다.

과정 3 간단한 수화단어 익히기

간단한 인사말과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을 수화로 배운 후 활동 2에서 배운 지화와 함께 활용하여 조별로 대화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 지도자는 참가자들이 표현 가능한 쉬운 인사말과 단어들을 미리 준비하여 온다.
- ▶ 인사말의 경우 :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도움자료 ⑤)
- ▶ 간단한 단어 : 활동 1에서 배운 「작은세상」에 나오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수화를 준비한다(도움자료 ⑥).



- ▷ 참가자들이 정확한 동작을 배울 수 있도록 지도자는 반복하여 가르친다.
- ▷ 활동과정 2에서 습득한 지화와 수화단어를 연결하여 인사 및 자기소개를 해보도록 한다.
- ▷ 조별로 앉아 실시해 본 후 조대표를 선출하여 대화해 보도록 한다.

과정 4 「작은세상」을 수화로

앞서 배운 노래를 수화로 불러본다.

- ▷ 중요한 표현법을 미리 연습한다.
- ▷ 노래를 한 마디씩 그리고 한 소절씩 수화로 따라 해 본다.
- ▷ 기타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모두 함께 동작을 따라 해 본다.
- ▷ 각 조별로 연습하여 경연대회를 갖는다.
- ▷ 활동 후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 ▶ 활동시 어려웠던 점, 재미있었던 점은?
 - ▶ 활동을 통해 얻은 것은? 나에게 일어난 변화는?



- ▶ 활동 중 아쉬웠던 점은?
- ▶ 외국 청소년들의 수화를 통한 자원봉사활동 사례를 소개하여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시킨다(도움자료 ⑦).

3. 유의사항

- ▷ 청소년들의 능력과 주어진 시간을 고려하여 활동의 양을 조절한다.
- ▷ 활동시 수화봉사자나 수화동아리의 도움을 받는다(도움자료 ⑧).
- ▷ 최소한 작은 표현 한 가지 만이라도 기억에 남거나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활동 후 지도를 철저히 한다.
- ▷ 청각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단순한 흥미 유발 보다는 하나의 언어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4. 도움자료

① 수화를 사용하는 장애인

1) 청각장애인

청각장애는 귀에서부터 뇌에 이르기까지 청각에 관여하는 기관의 어느 부분의 이상으로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들은 소리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총칭하여 말하는데, 작은 소리는 알아듣지 못하나 큰 소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난청과 전혀 알아 듣지 못하는 농(귀머 거리)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중이염, 외상성 고막파열, 내이의 질환과 카나마이신과 같은 약제로 인한 청각신경 손상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소음속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을 때에는 소음성 난청이, 노인에게는 노인성 난청이 올 수 있다. 이밖에도 뇌성마비 등 뇌 중추신경계 이상이 있을 때에도 청각장애를 보이는데 이 때에는 언어장애, 정신박약, 신체운동장애 등과 함께 복합장애의 하나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언어습득이 충분하지 못한 청각장애자들의 재활은 크게 청각장애에 대한 의학적 치료, 보청기 착용, 일반학습에 대한 교육지도, 그리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교육과 훈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청각장애가 경미한 경우에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이나 또는 특수학급에서의 개별된 교육이 가능하지만, 중등고 이상의 난청이나 농자는 청각장애 특수교육기관에서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청각장애자 재활에 있어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재활하는 데에는 심리적 갈등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따뜻함과 이해가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올바른 지도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2) 언어장애인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음성을 통하여 표현하여 상대방 역시 그 의미를 알아들을 때 이루어진다. 언어장애란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이상으로 의사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말한다.

언어장애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혜·입술·치아·인두·후두 등 음성기관에 이상이 있을 때, 뇌성마비나 뇌졸증, 또는 두부외상에

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뇌에 있는 언어中枢에 이상이 있을 때, 지능지수가 떨어질 때, 그리고 언어습득과 언어개발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난청 또는 농이 있어 언어에 대한 습득경험이 없을 때 언어장애가 나타난다.

그밖에도 언어는 주위환경과 정서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정서가 불안정한 상태로 오래 지속되었을 때에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염색체의 이상으로 오는 다운 증후군, 정신지체 또는 자폐증 아동에게도 언어장애가 수반되어 나타나므로 이들과 감별하여야 한다.

언어장애에 대한 치료는 나이·장애종류 및 장애정도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유아나 소아기 때 언어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자료 : 강세윤(편), 1988.

② 수화할 때의 주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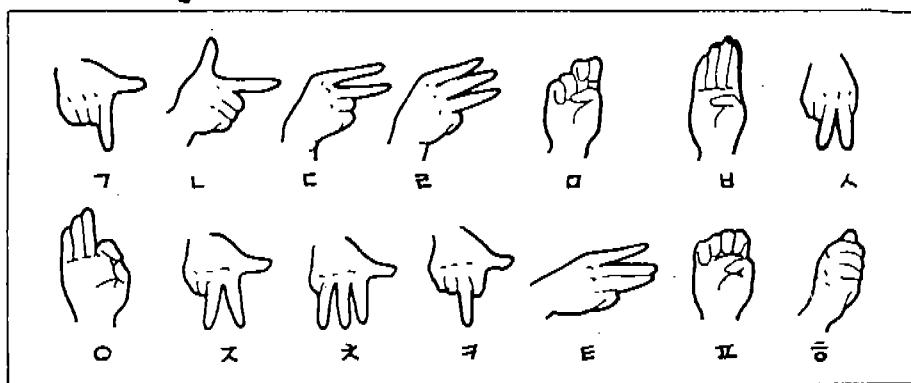
- (1) 수화 동작의 범위는 가슴 높이에서 양어깨를 한계점으로 필요에 따라 큰 동작과 작은 동작으로 절도있게 해야한다.
- (2) 지화를 사용할 경우는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하여 천천히 한 음절씩 또박또박 해야한다.
- (3) 수화를 처음 시작하게 될 때에는 상대편의 손동작을 보게되지만 차츰 수화가 익숙해짐에 따라 상대편의 표정에 초점을 맞추어 대화하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수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편에게 자신의 의사전달이 음(音)이 아니고 감정이라는 점을 주의해서 표정에 주력해야 한다.
- (4) 수화는 주로 동사를 많이 사용하고 형용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표현이 단순한 점을 표정으로 보완시켜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영어와 같이 존대어가 따로 없어, 예를 들어 「당신은 집이 어디입니까?」라고 물을 경우 「당신은 집이 어디?」라고 간단히 줄여서 이야기 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웃사람과 대화를 할 경우에는 몸의 자세라든가 표정을 공손하게 하여 존대어가 되도록 해야 한다.
- (5) 또한 어순이 도치되는 경우도 간혹 있으며, 같은 의미의 명사·동사·형용사·부사 등을 품사에 관여치 않고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예) 건강<-->건강하다<-->건강한
예) 감사<-->감사하다<-->감사한

* 자료 : 한국농아복지회(편),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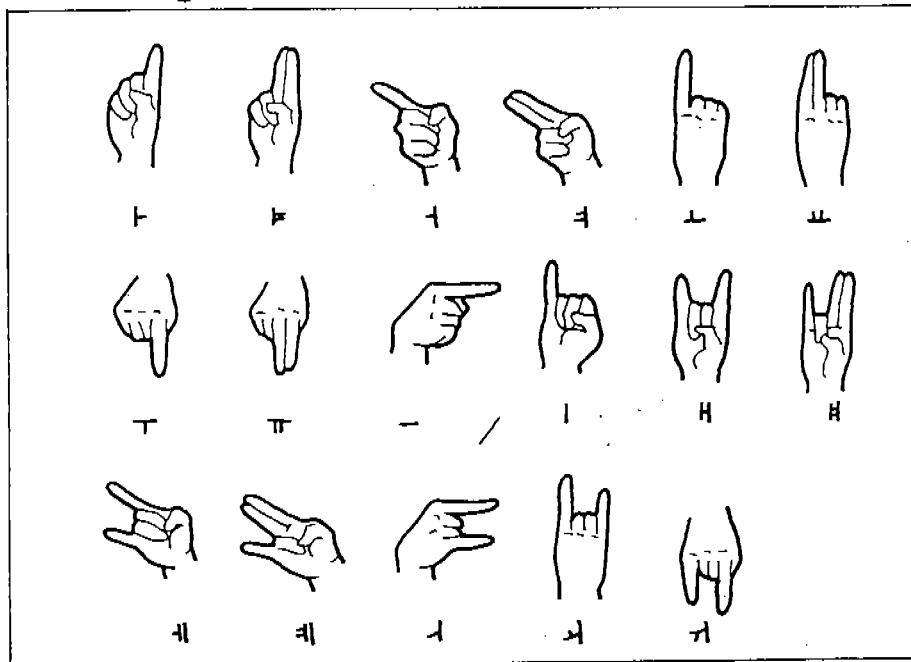
③ 한글지화

한글 음지화 액정하기

- 자 음 -



- 모 음 -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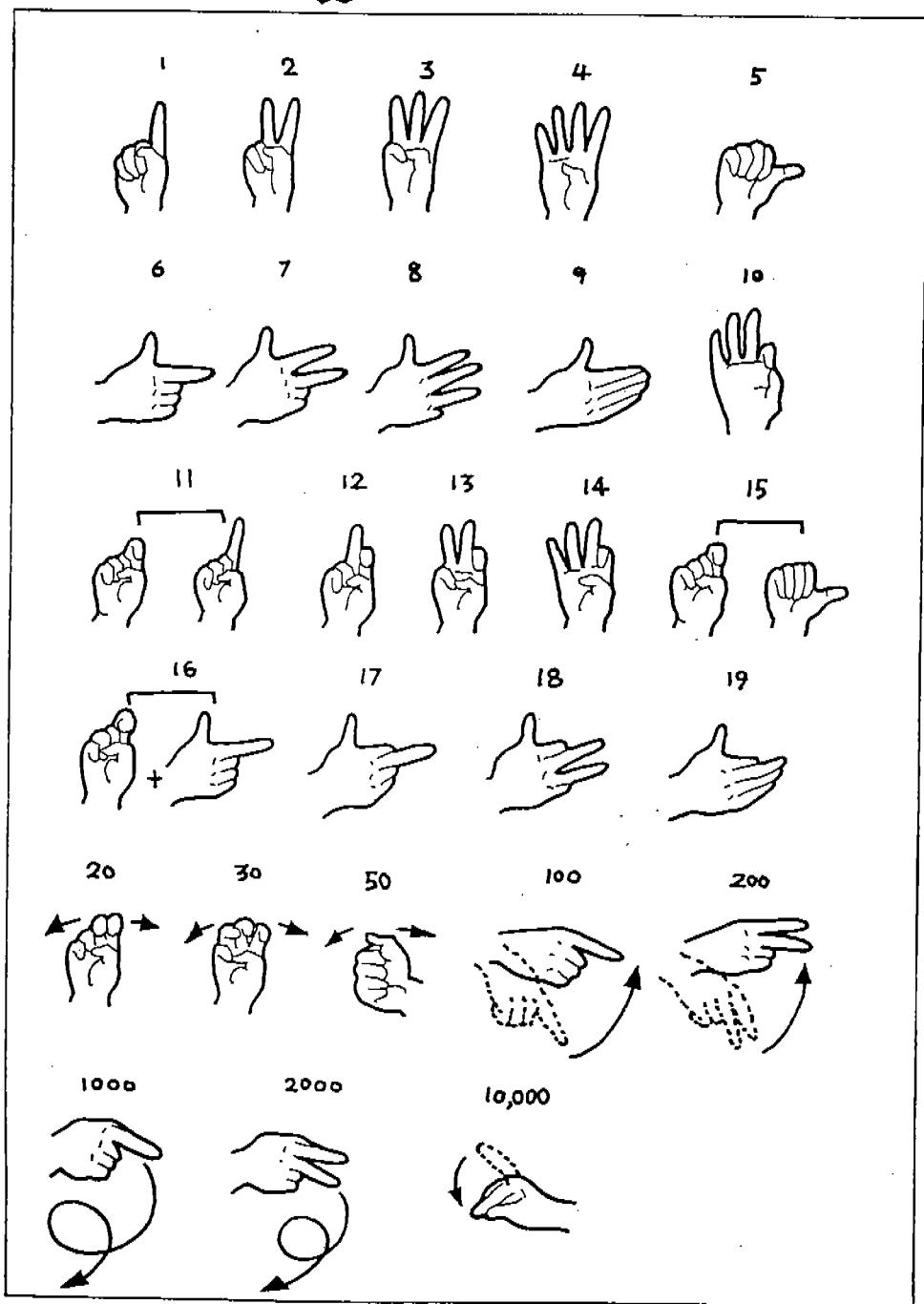


- 쌍자음 -

ㄲ ㄸ ㅃ ㅆ 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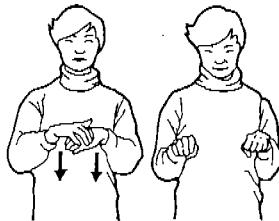
④ 숫자자화

수자자화



⑤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 두손을 표갠후, 양쪽으로 벌려
주먹을 쥐며 약간 밑으로 살짝 내린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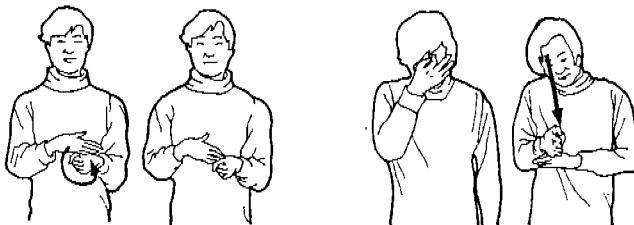


- 만나다 : 양손 둘째 손가락을 그림처럼
나란히 세웠다가 일정한 간격까지
서로 접근시킨다.

사랑

- 반갑다 : 양손 끝을 약간 구부려
그림과 같이 상하로 움직인다.

미안(하다)



- 한 손을 펼쳐 주먹을
쥔 손을 감싸듯 문질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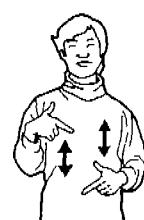
- 엄지와 검지로 원을 만들어
이마에 갖다 댄후 공손히
다른 쪽 손등 위로 내린다.

⑥ 「작은 세상」 단어 익히기

함께

나누는 (나누다)

기쁨과(기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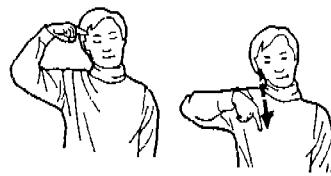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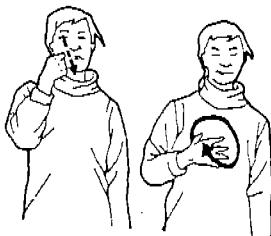
- 원손 엄지와 검지로 오른손 검지와 장지를 조금 윤여준다.

- 한손으로 다른쪽 손바닥을 반씩 나누며 그림처럼 좌우로 움직인다.

- 양손의 엄지와 검지를 펴고 그림처럼 상하 좌우로 움직인다(그자 표시)

슬픔(슬프다)

함께 느끼는(느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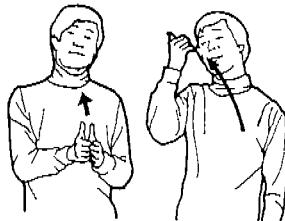


- 엄지와 검지를 눈 밑에 붙여(눈물이 흐르듯) 천천히 내린 후 손끝으로 가슴에 원을 그린다.

- 검지를 판자놀이에 맨 후 가슴 밑으로 천천히 내린다.

희망과(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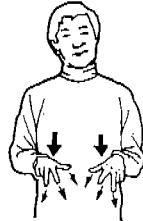
공포



- 엄지를 편 주먹을 다른 손 손바닥과 스치게하면서 위로 이마까지 옮긴다.

- 양손을 펴서 엄지손가락을 가슴에 대고 떤다.

이제야(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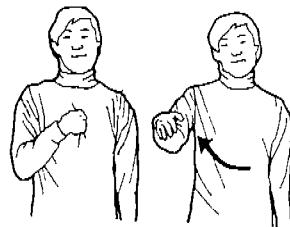
- 양손 엄지, 검지, 장지를 밑으로 세워 강하게 내린다 (ㅈ자표시).

비로소(정말)



- 손을 펼쳐 모아 세워서 턱을 두드린다.

우리는(우리)



- 손 끝을 가슴에 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원을 그린다.

알았네(알다)



- 손비단을 가슴에 대고 아래 위로 쓰다듬는다.

작고 작은(조금)



- 엄지와 검지의 끝을 살짝 맞댄다.

이(여기)



- 검지로 가까운 곳을 가리킨다.

세상



- 양손을 들어 등근모양을 만들어 볼린다 (지구모양).

산이(산)



- 장지만을 펴 들어올린다 (산모양).

높고험해도(위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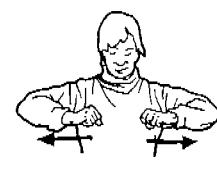
- 놀라운 표정으로 가슴을 누르는 듯한다.

바다



- 양손 손가락을 편 상태에서 바닷물이 출렁대듯 옆으로 이동한다.

넓고(넓다)



- 양손의 주먹을 가까운데서 양 옆으로 벌린다.

깊어도(깊다)

우리 사는 (살다)

이 세상 아주 작고 작은 곳



- 점지를 밑으로 내린다.
- 양손 엄지와 점지를 펴서
얼굴 주위에서 시계반대
방향으로 돌린다.
- 오른손을 오므려서
위에서 아래로 내린다.

⑦ 자원봉사부의 활동

본교의 자원봉사부는 1975년 4월에 발족되었으며 처음에는 「자원봉사」라는 단어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회부로 명명하였다. 그러다가 1982년부터 자원봉사부로 개칭했으며 그 활동범위도 확대했다. 처음에는 구역의 사회복지회가 주관하는 점자강습회에서 사용할 점자그림책을 만들었으며 수화강습회에 참가하여 수화와 노래를 같이하는 수화코러스에 참여하는 정도였다. 1983년부터 3년동안 동경부의 자원봉사활동 보급사업에 대한 협력교로 지정되어 정기적으로 구역내의 노인정,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했다. 1985년 4월에 본교의 가정과 교사로 부임하게 된 나는 자원봉사에 관해 문외한이었으나 자원봉사부의 고문 직책을 맡게 되었다. 처음에는 학생들을 통하여 배웠으나 활동의 횟수를 더하면서 봉사활동은 물론이거니와 학생들에 대한 관심 또한 커졌다. 그러나 반대로 학생들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횟수가 절점 줄어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건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자원봉사를 ‘주는 것,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봉사활동의 일환이었던 수화노래 부르기의 경우 수화를 일상회화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베푸는 이들의 자기만족에 불과한 것이었다. 즉 베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풀음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장애자 탁구대회에서 수화노래를 발표하겠다고 구역의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했다. 그리고 대회 참석자들과 긴밀한 유대감을 조성하기 위해 당일 대회를 도와주면서 중간에 발표하겠다고 계획했다. 대회 전날까지 깊은 우려속에 연습에 열중했다. 커다란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당일 발표 후 대회장은 많은 박수와 찬사가 흘러 않았다. 이후 외부로부터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 또한 높아졌다. 점차 자원봉사부의 활동도 활발해졌다. 그리고 부의 활동이 침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만들었으며 선배가 후배를 지도하고 이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며 단체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였다.

* 자료 : 동경자원봉사센터, 1992.

⑧ 수화동아리 현황

지역	소속기구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서 울	청음회관	청림회	강남구 역삼동 681-50 청음회관	556-4758
		다다회	"	"
		보람회	"	"
		보람회	"	"
		청모회	"	"
		정청회	"	"
	한국농아복지회	두손회	산구 감월동 14-106	779-3027
		영통회	종로구 행촌동 1-33	736-0735
		반디회	종로구 신문로1가 42	733-8141
		사랑선교회	서대문구 북아현동 950-1	362-1679
	서울에바디농아교회	한국에바디농아선교회	종로구 평동 222번지	533-2571
		밀알선교회	강남구 역삼동 665-1 소석관 14호	555-7558
	광석교회	청년부	동대문구 용두 55-15	965-2451~2
		극동중앙교회	마포구 상수동 90-5	324-4805
	명동천주교회	반딧불회	중구 명동2가 1번지	776-1234
		청년부	강남구 청담 63-19	544-5625
	서울가톨릭농아선교회	반딧불회	도봉구 수유3동 10-3	995-7394
			은평구 신사동1-153 보람빌딩3층302호	352-2624
	한국특수선교회(W.O.I)	삼성선교지	성동구 구위동 248-93	452-7031
	베네스디선교회	원심회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735-1546
	조계사포교원	손말사랑회	관악구 신림동 56-1	880-5114
	서울대학교	"	성북구 정릉동 861-1	910-4114
	국민대학교	"	도봉구 콩릉동 2-126	970-5114
	서울여자대학교	"	동작구 사당동 산31-3	537-5101~6
	총신대학교	"	동작구 혹석동 221	810-2114
	중앙대학교	손짓사랑회	중구 필동 3-26	275-9200
	동국대학교	"		

지역	소속기구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	서강대학교	"	마포구 신수동 1-1	715-0141
	이화여자대학교	손지	서대문구 대현동 11-1	362-6251~60
	연세대학교	키비단	서대문구 신촌 134	392-0131,0161
	단국대학교	"	용산구 한남동 산8	797-0581
	명지대학교	"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307-6171~94
	종회신학교	작은몸짓	강남구 방배동	584-3730~32
	장로회신학대학	사랑의 수화교실	성동구 광장동 353	453-3101
	대한기독교신학대학	손소리회	은평구 신사동 1-19	356-5181~85
	숙명여고	수화특별반	강남구 도곡91	553-5001~15
	이화여고	"	서대문구 정동 32	752-3353~54
	대광고	"	동대문구 신설 53-3	952-2481
	광남고	"	성동구 광장 554-11	457-9548
부산	한국농아복지회부산지부	작은소리회	부산진구 범천1동 881-16 21/3	69-3746
	부산수회통역자회		중구 보수동3가80 한국아동복지관내	245-0836
	경성대학교	소리그리기회	남구 대연동 산110-1	
	동아대학교	나눔회	사하구 하단동 840	
	부산여자대학교	"	동래구 연산2동 1528	
	부산수산대학교	소리빛깔회	남구 대연3동 599-1	
	동의대학교	수화연구회	진구 가야3동 산24	
	부산공업대학교	우리들의이야기회	남구 용당동 산1000	
	부산외국어대학교	수화연구회	남구 우아동 551	
	부산여자전문대학교	손소리회	진구 양정동 74	
인천	한국농아복지회인천지부	소리다리회	남구 승의동137번지 사회복지회관3층	882-2776
	성동원	포네스	북구 부평2동 756 성동원내	522-2984
	승의감리교회	빛선교단	남구 승의2동 303-7번지	884-1301
	인천가톨릭농아선교회	대학생청년부	중구 답동3번지 답동천주교회내	760-3105
	대우자동차	빈첸시오회	남동구 만수동 209	520-2114
	문성여상	수화특별반	남동구 수동 209	423-5272
	중앙여상	"	중구 도원동 12	883-8748
	문일여고	"	남동구 만수동	427-6102
	인하대부속고교	"	남구 용현동 235	82-1341
대구	한국농아복지회대구지부	참빛회	남구 대명3동 2288 대구대학교내	623-9929
	계명대학교	참빛회	남구 대명동	
	영남대학교	"	경산구 대동	
	경북대학교	"	북구 산격동	
	대구대학교	에바다회	남구 대명3동 2288	
	대구영락교회	농아부	동구 신천동 117-1	

지역	소속 기구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대구	성복천주교회		북구 산격동	
광 주	한국농아복지회광주지부	소리창조회 이음회	서구 주월동 960-13	68-2635
	시립장애인복지관산하 봉사단체		북구 동일동 24	
	한국밀알선교단광주지부		광주우체국 사서함 255호	
	국제시민봉사회		광주무진회관 2관 소회의실	
	광주대학교		서구 진월동 592-1	
	호남대학교		서구 쌍촌동 산148	
	동신전문대학교		북구 두아동 771	
	보건전문대학교		광산구 신창동 683-3	
	전남공고		동구 서석동 31	
	사례지도여교		동구 지산동 480	
대 전	한국농아복지회	돌을 별회 수우회	동구 정동 31-1 YMCA 603호	26-3963 254-3035
	대전·충남지부		종구 대홍동 445-1 YWCA	
	대전가톨릭농아선교회		중구 대홍동 189 가톨릭문화센타지하	
	한국밀알선교단		동구 삼성1동 280-3	
	대전지부		동구 정동 31-1 YMCA 603호	
	배재대학교		서구 도마동 배재대학교내	
	한남대학교		대덕구 오전동 133 한남대학교내	
	목원대학교		중구 목동 54번지 목원대학교내	
	공주대학교		공주시 신관동 산9-6 공주대학교내	
경 기	한국농아복지회경기지부	수연회 호통별회 참소리회 등대회 소금회 사랑의 수화교실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파송지구 110B/9L	42-6594 3-8572 871-060 62-0652 281-5500 63-2170
	성남분회		성남시 신흥3동 3415-1	
	의정부 분회		의정부시 기능3동 543	
	동두천 분회		동두천시 생연4동 516	
	파어선대학		경기 용인 기흥 구신갈 6-2	
	강남대학		송탄시 자산동	
	송탄분회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적십자사		수원시 장안구 우민동	
	이주대학교			
강 원	한국농아복지회강원지부	다사랑회 농우회 이바▶ 농우회 보임소리회	춘천시 중앙로 2가 73번지	53-9056
	상지대학교		원주시 우산동 산41번지	
	상지전문대학교		"	
	원주간호전문대		원주군 홍업면	
	원주제일교회		원주시 학성1동 275-3	
	한소리회		원주시 인동 247-16 가톨릭센타내	

작은 정성 큰 기쁨

근래에 들어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의 확대로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특히 빈민가정에서의 자녀양육은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턱아시설의 증설을 요구하게 되었다. 도시의 화려함과 밝은 면 속에 가려져 언뜻 보아서는 알 수 없는 도시 빈민의 턱아시설과 빈민아동에 대해 알아 보고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아 보도록 한다.

1. 활동 과정

목표	도시의 화려함 뒤에는 가난하게 살고 있는 이웃 특히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청소년들이 이들을 위한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도록 동기를 유발시킨다.			
활동 과정	빈민지역 탁아시설 소개 VTR이나 자원봉사자의 글 또는 강의를 통해 빈민지역의 탁아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본다.	「놀이방에서의 하루일과표」작성 조별로 놀이방에서 할 수 있는 1일 봉사활동일정표를 짜본다.	「우유팩 의자」만들기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탁아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용 의자를 만들어 본다.	놀이방 어린이와 하루를 준비한 프로그램에 따라 놀이방 어린이와 함께 놀아주며 돌본다.

2. 활동 내용

과정 1 빈민지역 탁아시설 소개

VTR이나 탁아시설 자원봉사자들의 글 또는 강의를 통해 빈민지역의 탁아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알아 본다.

- ▷ 탁아시설을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나 그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VTR 자료 또는 신문기사나 자원봉사 사례집 등을 준비하여 소개한다.

『서울 봉천동 계성 놀이방』

서울에서 대표적인 달동네로 알려진 관악구 봉천동에 맞벌이 부부와 결손 가정의 어린이를 돌보는 「계성 놀이방」에는 3세에서 6세까지의



코흘리개 어린이 37명이 살고 있다. 셜트로 성 바오로 수녀회가 운영하는 이곳은 하루라도 벌지 않으면 생활이 되지 않는 극빈가정의 어린이들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종일 부모와 떨어져 지내고 있다. 부모로부터 11만원씩을 받고 또 구청의 보조를 받아 넉넉하게 운영되는 일반 어린이집과는 달리 계성 놀이방은 수녀들의 극진한 사랑에만 의존한 채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꾸려가고 있다. 특히 계성 놀이방은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사설 놀이방이라는 이유로 서울시나 구청에서 주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매월 4만 오천원씩을 어린이 부모로부터 받아 군근히 시설을 꾸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수녀회가 건물 임대료 등 많은 배려를 하고 있지만 4만여원씩도 내지 못하는 극빈 가정이 많아 운영비 마련은 항상 빠듯하다. 결국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장난감을 구입해 주기가 힘들게 되고 그래서 어린이들은 장난감때문에 항상 난리를 치뤄야 한다. 계성 놀이방 책임자 수녀는 “어린이들이 유별나게 장난감을 잘 부수어 버리고 흔적도 없이 찢는다.”며 결손가정 어린이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와 많은 연관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줄 옷가지를 보내줄 분은 전화 (02)887-0380 계성 놀이방으로 연락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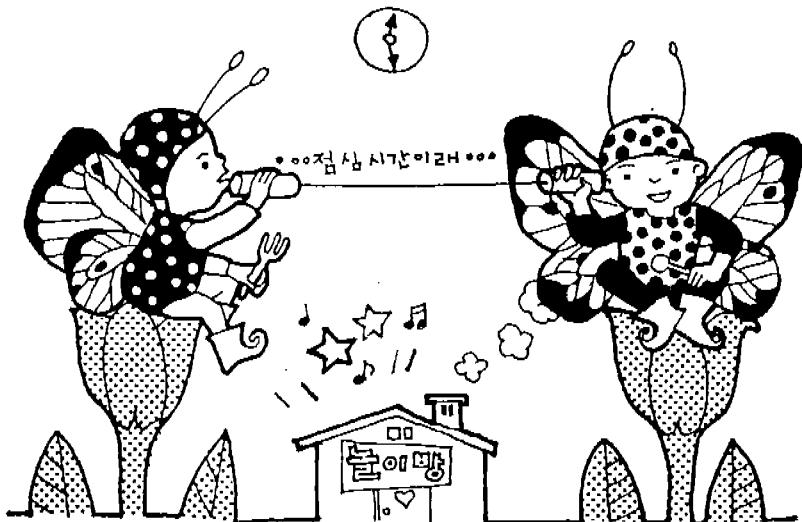
* 자료 : 가톨릭 신문, 1994.

▷ 빈민지역의 자녀양육 실태를 알게 한다(도움자료 ①).

- ▷ 느낀 점이나 의문점 등에 관해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 ▷ 자신들이 이러한 놀이방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면 어떠한 일들을 어느 시간에 할 수 있을까? 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들은 무엇일까? 하는 내용들에 관해 의견을 나눈다.

과정 2 「놀이방에서의 하루일과표」 작성

조별로 놀이방에서 할 수 있는 1일 봉사활동 일정표(약 3~4 시간)를 짜 본다.



- ▷ 어린이 놀이방에서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하루 일과표를 소개해 준다.

『놀이방의 하루일과』

오전

8:00 – 9:30 도착 및 자유놀이

9:30 – 10:00 오전간식(봉사활동 : 간식준비, 간식후 설것이,
또는 마루청소)

10:00 – 11:00 자유놀이(봉사활동 : 장난감놀이 같이하기, 시
장보기)

11 : 00 – 11 : 20 장난감 치우기

오후

11 : 20 – 12 : 20 학습, 노래, 놀이(봉사활동 : 학습보조 등 보조 활동)

12 : 20 – 12 : 30 손씻기(봉사활동 : 차례로 손씻기기, 점심식사 준비보조)

12 : 30 – 13 : 30 점심식사(봉사활동 : 식사보조활동, 상치우고 마루청소, 설것이)

13 : 30 – 13 : 50 자유놀이(봉사활동 : 놀이보조활동)

13 : 50 – 14 : 00 이닦기 및 용변보기

14 : 00 – 16 : 00 낮잠(봉사활동 : 잠재우기, 간식준비, 낮잠 후 이불정돈, 옷입히기)

16 : 00 – 17 : 00 자유놀이(봉사활동 : 놀이보조활동, 간식준비)

17 : 00 – 17 : 30 간식(봉사활동 : 간식 설것이)

17 : 30 – 18 : 30 TV보기, 책보기, 그림그리기(봉사활동 : 동화 책 읽어주기, 그림 도와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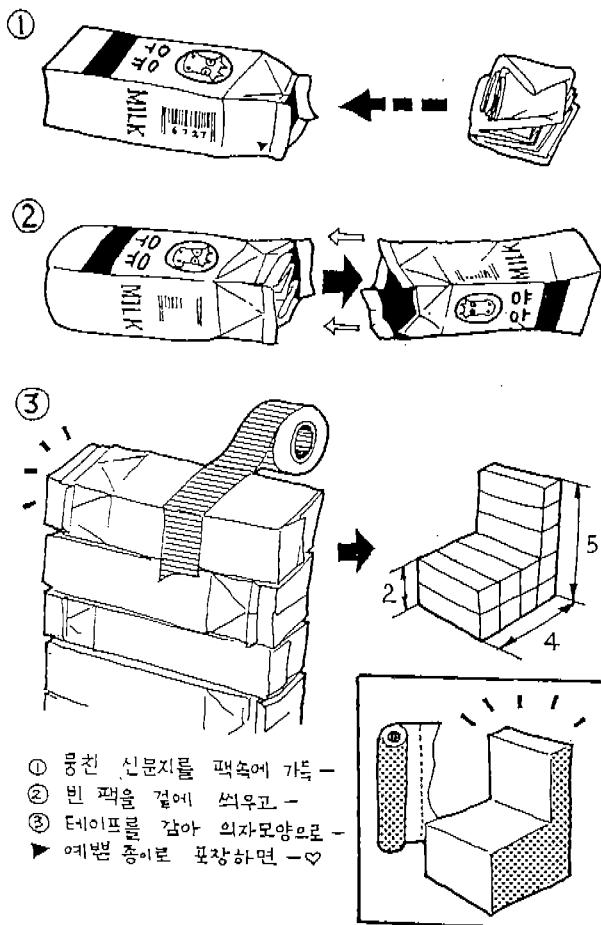
18 : 30 – 19 : 00 귀가(봉사활동 : 장난감 정리, 귀가준비 돋기, 청소)』

- ▷ 활동과정 1을 바탕으로 하여 각 조별로 자신들이 놀이방 어린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3~4시간 정도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해 본다.
- ▷ 자신들의 어린시절이나 동생들의 일상생활을 상기하며 재미있고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애정을 기울인다(도움자료 ②).
- ▷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서로 평가해 준다.

과정 3 「우유팩 의자」 만들기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놀이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 의자를 정성껏 만들어 본다. 앞의 활동을 통해 얻은 놀이방에 관한 이해가 활동에 의미를 부여해 줄 것이다.

- ▷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물을 공지하여 각자 집에서 준비하여 오게 한다. 지도자는 공동 준비물을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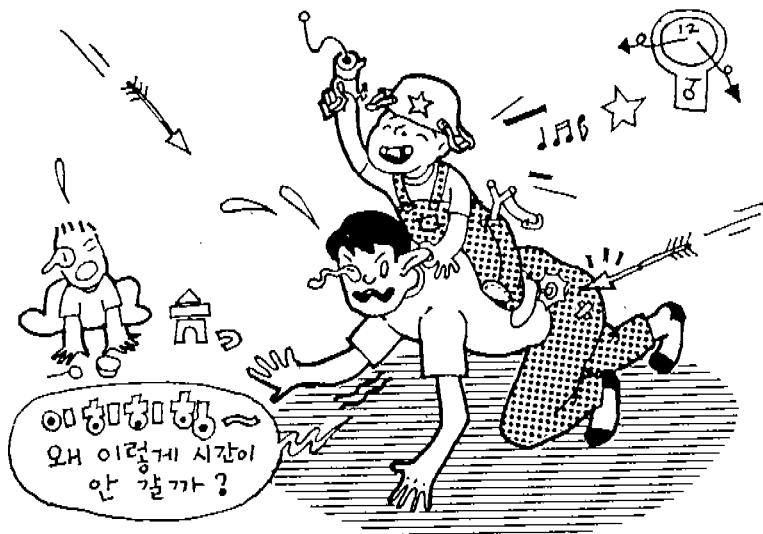


- ▶ 개인 준비물 : • 1000ml 우유팩 2개씩(우유팩은 윗면만 완전히 열어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완전히 말린 것)
• 신문지 약 10장씩
- ▶ 공동 준비물 : • 넓이 5mm 스카치 테잎 다수
• 예쁜 무늬의 썬팅지(11명 1조당 약 1마반 필요)
- ▷ 우유팩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11명이 한 조가 되어 의자 한 개를 만들게 한다.
- ▶ 1000ml 우유팩에 신문지를 구겨 꼭꼭 끝친 후 입구까지 가득 차도록 밀어 넣는다.
- ▶ 신문지를 가득 채운 우유팩을 다른 하나의 빈 팩에 마주 보는 방향으로 끼운다.

- ▶ 11개의 완성된 우유팩을 그림과 같은 구조로 테잎으로 연결한다.
- ▶ 의자 모양이 되면 썬팅지로 포장한다.
- ▷ 같은 조가 된 사람들은 우유팩에 넣는 신문지의 양을 같게 조절하여 의자 모양이 반듯하게 나오도록 협조한다.

과정 4 놀이방 어린이와 하루를

준비한 프로그램에 따라 놀이방 어린이들을 돌보며 함께 놀아 준다.



- ▷ 대표들은 놀이방을 사전에 방문하여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놀이방 일정표에 적합한지 그 곳 선생님과 점검해 본다.
- ▷ 정해진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해 자신들이 만든 일정표에 따라 진행한다.
- ▷ 만들어 온 의자를 아이들에게 선물한다.
- ▷ 청소년 자신들이 빈민지역 놀이방 어린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수집 및 모금 활동들에 대해 의견을 나눠본다(장난감, 어린이 의류, 동화책 수집활동 등).

3. 유의사항

- ▷ 강의나 글로 빈민지역의 놀이방을 소개할 때에는 가능하면 그곳에서의 봉사활동 경험에 있는 사람들이 진행하는 것이 생생한 현장감을 전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
- ▷ 놀이방 봉사활동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 준다(도움자료 ③).
- ▷ 지도자는 의자를 포장하게 되는 썬팅지를 고를 때 다양한 무늬로 선택하면 활동에 흥미를 더할 수 있다.
- ▷ 활동과정 1~4 중, 상황에 따라 2개(1과 3) 또는 3개의 활동만을 선택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

4. 도움자료

① 빈민지역 자녀양육 실태

저소득층 근로자 가구의 부인들은 일반 기혼여성에 비해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가사역할을 대행해 줄 자원(경제적, 인적)이 부족하므로 이중역할의 부담을 충산층 취업여성보다도 더욱 강요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일터에서 하루 10~13시간 일하므로 아동과 가정에 소홀하게 되는데도 지역의 주민을 위한 공적부조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영세지역 취업여성의 자녀양육형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형태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많은 경우, 여성들이 어린아이를 돌보는 짐을 덜기 위하여 여러 친족들이나 이웃 혹은 친구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것은 흔히 호혜성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자녀들이 어머니를 도와야만 할 경우에 딸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아들들은 우선적으로 교육이나 출세를 위하여 그 가족의 도움을 받게 된다.

둘째,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취원시키는 새마을 유아원이나 지역 탁아소를 이용하는 어머니들은 그래도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다 고 한다. 왜냐하면 부모가 집을 비우게 되어 자녀들만이 집에 남아 있을 경우 위험에의 무방비 상태로 인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였으나 이를 기관이 보호를 해주므로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위의 두 가지 지원 중 어느 것도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집에서 가내부업을 하거나 아니면 자녀를 집에 방치해 두고 일터에 나가는 경우를 보게 된다. 현대 도시사회에서 부모가 밖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치되는 수가 많은데 이것은 도시영세 지역 아동들에게서 더욱 흔히 볼 수 있다.

다음의 사례들은 도시빈민지역 아동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 ▶ 미아 1동의 미아지역탁아소의 경우 아동들로부터 받는 월 2만 2천 원의 보육비로는 아동의 주·간식비를 충당하기에도 미흡하다고 한다. 이들 교사들의 말을 빌리면 최소한의 경비로 질높은 음식을 손수 만들어 아동에게 제공하려 애를 쓰나 매우 힘들다고 한다. 다만 이곳에 자녀를 맡긴 취업모들이 그 바쁜 중에도 김치나 부식을 텁나는 대로 만들어서 가져다 주는 등 이들의 절박한 요구를 보면 큰 사명감으로 아동들을 교육하고 돌본다고 한다. 놀이시설이나 기구도 교사가 생활폐품을 수집, 활용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고작이다. 따라서 이곳에 근무하는 교사 3인(원장포함)은 전혀 봉급이 없이 완전 봉사하고 있는 형편이다.
- ▶ 어재는(만2세) 집앞 도랑근처 작은공터에서 마늘까는 엄마 등에 업혀 잠들어 있다. 일하는 듯자리 위에는 큰 그릇들이 놓여져있고 주위에 나무가 있었다. 또랑 옆에는 폐 높은 축대가 있었다.

..... 종략

어재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같이 일하는 동네 아주머니 옆에 포대기를 깔고 누었다. 두 아주머니는 아이에게 등을 돌린 채 계속 마늘을 까고 있었는데 듯자리 깔린 한쪽 귀퉁이가 도량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 아이가 구를 염려도 있었다. 밑에 도량이 있어서인지 파리가 많아 자주 잡자고 있는 어재의 몸에 앓는데 도량에서는 심하게 악취가 풍겼으며 잡초들이 우거져 있었다.(종략).....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어재가 깨서 울기 시작하였다. 어재 엄마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어재를 등에 업은 후 비를 맞으며 계속 일을 하신다(관찰자가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어 받쳐드렸다).

▶ 아희(만5세)는 엄마가 장사나갈 준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올기 시작한다. “장사 나가지마”라고 폐를 쓰기 시작, 엄마가 100원을 주자 싫다며 어리광과 애원이 섞인 소리로 “가지마”란 소리를 10번 정도 하며 계속 운다. 할 수 없이 엄마가 업고 집을 나와 거리로 내려왔다 15분 정도 가니까 큰 도로가 나왔다.

엄마가 햄버거를 만들 준비를 하는 사이 아희는 햄버거 리어카를 다른 방향으로 밀어버렸다. 엄마가 “하지마”소리치심(중략) 아희가 보석방 가게 앞에서 구경을 하다 돌아와 엄마에게 돈을 달라고 폐쓴다. 엄마는 “집에 가 있어야 주지”하며 100원을 준다. 슈퍼에 들어가 초코파이 과자를 사들고 돌아다닌다(중략) 햄버거 리어카 옆의 정류장에서 아희는 지나가는 차를 명하니 쳐다보다가 옆의 리어카에서 옥수수 파는 국민학교 6학년쯤 되어보이는 아이와 치기장난을 하며 논다(엄마는 관찰자에게 아희가 심심해 하는게 늘 마음아프다고 한다. 거리에 나와 있으니 친구도 없다 신다).(중략) 보석방집 아이들과 같이 시장안을 돌아다닌다. 시장에 있는 개를 보더니 “메롱”하며 놀린다. 개가 으르렁거리자 “개는 때려야 해”말하며 무서운 줄도 모르고 슬리퍼를 벗어 마구 때린다.(중략) 햄버거 리어카에 한 손님의 아이가 나비 구르마를 끌고왔다가 밀고가자 아희는 줄줄 계속 쫓아간다.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햄버거만 만든다.

*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 1988.

② 어린이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 레코드판 놀기	
목 표	1. 질서를 지킬줄 안다. 2.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일 수 있다.
준 비 물	신나는 동요 테이프, 또는 표현음악
방 법	1. 10명의 어린이가 1팀이 되어 2팀을 만든다. 2. 봉사자가 리더가 되어 달팽이처럼 손을 잡고 빙글빙글 감다가 다시 풀어본다(음악에 맞춰 뛰면서 돌아다가 풀기). 3. 양팀이 모두 풀어서 리더가 뒤의 사람이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이긴 팀에서 진 팀의 어린이를 데리고 간다. 4. 같은 방법으로 여러 번 반복한 후 많은 인원이 있는 쪽이 이긴다.

■ 크리스마스 모빌 만들기

목 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솜을 만져봄으로써 촉감을 느낄 수 있다. 색깔의 이름을 익힌다. 아름다운 환경을 꾸밀 수 있고 협동하는 마음을 갖는다.
준 비 물	카시미론 솜, 파스텔, 16절지, 실, 테이프, 바늘
방 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스텔을 1분단에 1세트씩 놓아준다. 어린이 1명당 16절 1장씩 나눠준다. 1가지 색상의 파스텔을 시험지에 넓게 문지른다. 카시미론 솜을 어린이 주먹만하게 뭉친다. 솜을 파스텔 문지른 종이에 비빈다. 솜에 전체 골고루 파스텔이 곱게 묻도록 한다. 파스텔 묻은 솜을 실로 달아서 색깔이 골고루 섞이도록 천정에 단다. 파스텔 색상을 바꿔할 때는 16절에 칠한 종이를 서로 바꾸어 같은 색을 덧칠한 후 솜을 뭉쳐 문지른다.
용 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무에 걸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든다. 행광등 주변에 달면 파스텔 색깔이 돋보인다.

■ 밀가루 놀이

목 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양에 따라 여러가지 사물을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눈과 손의 협응력을 향상시킨다.
준 비 물	밀가루, 식용색소 작은것 1개씩(빨강, 노랑, 초록, 분홍) 소금, 식용유, 물, 색종이만한 크기의 뚜꺼운 종이, 풀, 색연필, 리본테이프
방 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물 100cc에 식용색소 1봉지와 소금을 섞고, 식용유를 넣어 섞은 후 색밀가루 반죽을 만들어 놓는다. 분단마다 4가지 색을 각각 담아 놓는다. 두꺼운 종이에 만들고 싶은 것의 그림을 그린다. 부분적으로 풀칠을 한 다음 그 부분에 맞을 만큼의 색밀가루를 뿌어 손으로 누르면서 붙인다. 다양한 색깔을 이용해서 꽃, 동물, 새, 배 등등 재미있게 꾸며본다. 그늘에서 말려 액자처럼 걸어둔다.

▣ 정숙 놀이	
목 표	1. 음악을 조용하게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갖는다. 2. 음악에 맞춰 균형있게 선을 따라 걸을 수 있다. 3. 실내에서는 조용히 걷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준 비 물	조용한 음악테이프(색테이프)
방 법	1. 대그룹으로 모여 앉은 채 눈을 감고 어떤 소리가 나는지 조용히 들어본다. 2. 음악을 듣고 기분을 이야기한다. 3. 음악을 들으면서 천천히 바르게 걷는 연습을 해 본다. 4. 반드시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걷자고 약속하고 음악이 끝나면 카페트에 눈을 감고 앉는다고 약속한다. 5. 음악을 들려주고, 봉사자가 1명씩 머리를 짚어주면 어린이가 선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이어서 잘 걷게 한다. 6. 처음엔 나비처럼 팔을 벌리고 걷다가 적당히 손을 뒤에 모은채 걸어보자고 한다. 음악이 끝나면 카페트에 모여 앉는다. 7. 눈을 뜨고 한 후 느낌을 물어본다. 8. 이제부터는 실내에서 걸어 다닐 때는 조용히 발소리를 내지 않고 천천히 걸을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응 용	1. 종을 들고 걷기 2. 물컵 들고 천천히 걷기 3. 탁구공 수저에 담아 걷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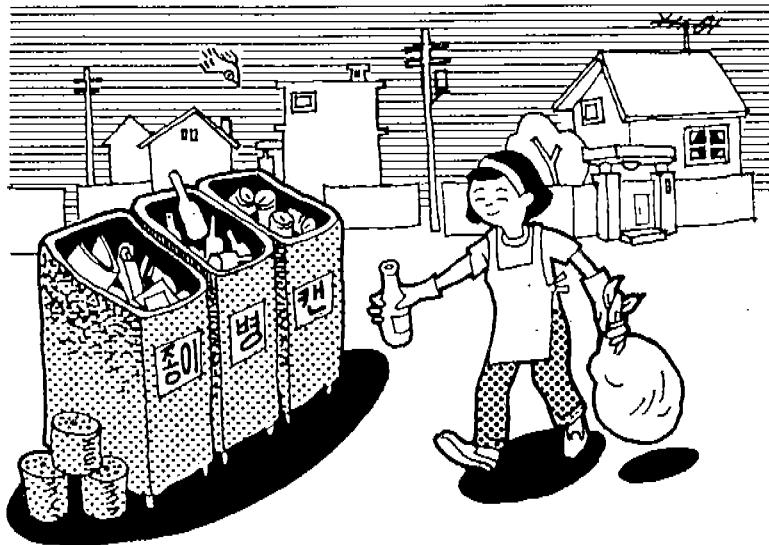
③ 놀이방 봉사활동시 유의사항

- 1) 놀이방 내에서 흔히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 2) 놀이방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의 연령이 보통 2~5세의 혼합연령기이기에 정규수업 보다는 자유놀이 시간의 비중이 크므로 자유놀이 시간에 행동 및 놀이 형태 등을 관찰하고 자유놀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3) 놀이방의 자체규율, 생활지도 원칙과 봉사활동 참가자가 행동하는 것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놀이방과 다른 기준 및 생활 규율의 원칙을 아동에게 제시한다면 아동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예 ; 놀이를 하면서 경쟁의식을 고취시킨다든가, 서투른 아이에게 무조건적으로 봉사활동 참가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 등).

- 4) 자립심과 올바른 습관, 서로 돋는 마음을 길러주는 생활교육과 함께 사고력 발달의 기본이 되는 언어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곱고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아동들은 어른들의 말을 통해 언어를 발달시켜 나 가므로 참가자도 존대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III. 실행 프로그램



꽃동네를 찾아서
세대를 넘어서
재활용으로 복지를

꽃동네를 찾아서

우리사회의 사랑결핍으로 생긴 의지할 곳 없고 얻어 먹을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종합 복지시설 「꽃동네」를 찾아가,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들 그리고 그들의 조건없는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랑을 느끼고, 배우며, 실천으로 옮겨 본다.

1. 활동 과정

목표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 봉사자들을 직접 만나 함께 생활해봄으로써 사랑의 상호작용을 느끼고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을 지닐 수 있게 한다.			
활동과정	「꽃동네」소개 VTR 감상이나 강론을 통해 꽃동네의 유래와 설립정신 그리고 주요활동들에 대해 알아본다.	방문계획 효율적이고 성과있는 봉사활동이 되게 하기 위해 세밀간 방 문계획을 짠다.	우리는 한가족 알차고 보람된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활동에 임한다.	사랑의 모금활동 꽃동네에서 체험한 사랑을 자신 의 삶의 현장에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나눔의 활동을 벌인다.

2. 활동 내용

과정 1 「꽃동네」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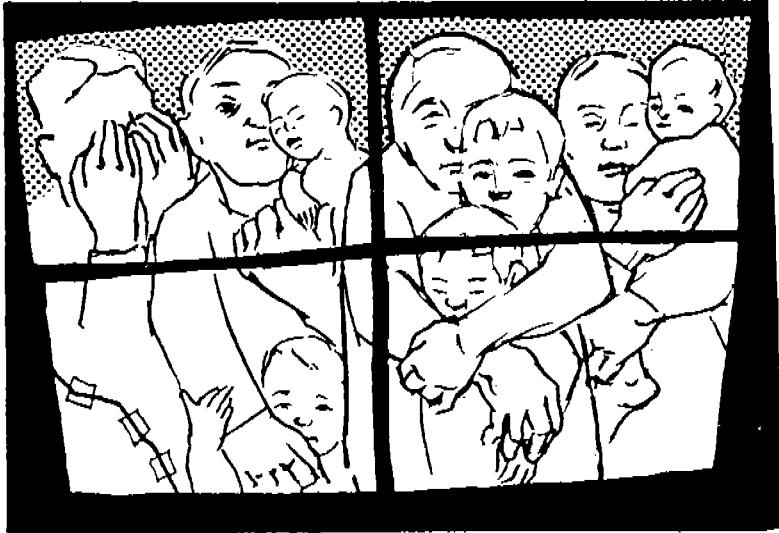
꽃동네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청소년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 등에 대해 알아 본다.

▶ VTR 작품 「꽃동네」나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참가기」, 「탐방기」 꽃동네를 홍보하는 「잡지」나 「신문기사」 등을 소개하며 꽃동네의 유래와 설립정신 그리고 주요 활동들에 대해 알아본다.

▶ VTR 작품 「꽃동네」

방영시간 : 35분, 제작 : 꽃동네

내용 : 꽃동네 설립유래와 취지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영상에 담고 있다. 꽃동네에 살고 있는 무의탁 노인, 부랑인, 장



애인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시설, 그들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봉사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 꽃동네에는 누가 사는가 ?

『얼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1994. 3. 24일 꽃동네로 모셔진 한 결인은 정신질환으로 10여년 동안 쓰레기통이나 구정물통을 뒤져 음식물을 섭취하며 주로 틀판에서 생활하였다. 이 결인이 입은 옷은 코트 3벌, 양복 2벌, 잠바 3벌, 셔츠 등 윗도리만 11벌, 양말 21켤레였다. 꽃동네에서는 이런 분들을 찾습니다.』

* 자료 : 가톨릭신문, 1994.

▶ 꽃동네를 찾아 오는 사람들은?

『꽃동네를 찾아서 사랑을 배우려

본격적인 휴가철이며 또 전국 각급 학교가 일제히 방학에 들어간 7월 한 달 동안 수많은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꽃동네를 찾아와 사랑의 현장을 체험하고 사랑을 배웠다. 7월 21부터 8월 25일까지 2박 3일로 일정을 잡아 방문하기로 접수된 인원만 해도 57개 단체 4,070명이 이르고 그밖에 1일, 1박2일, 4박5일 등 일정의 단체 방문자와 개별 방문자를 합하면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짐작할 수 있다. 방문 단체들은 대개 학교, 학년, 학급, 서클 단위, 본당, 본당 활동단체 단위, 직장단위 등으로 동아리를 지어 활동하는 데 꽃동네 구석구석에

서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고 감동하는 열성은 무더위를 이기고도 남았다.』

▶ 꽃동네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가?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꽃동네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던 학창시절에는 참으로 철부지 같던 생각을 했었다. 아마도 꽃동네는 꽃이 많아서 그렇게 부르는 동네이거나 주변이 화훼단지 등으로 잘 가꿔진 동네일 거라고… 그 후 나는 금성일렉트론에 입사해서 신입사원 연수를 받을 때 꽃동네를 방문하고 내 생각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첫 번째 꽃동네를 찾아 가던날 아침, 빌걸음과 마음은 무척 상쾌하였다. 그러나 소풍가는 아이처럼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막상 꽃동네에 도착하여 이곳 저곳을 둘러 본 나는 크게 놀라고 말았다. 대부분이 정신박약자이거나 온전치 못한 몸을 가지고 힘들어 하는 그곳 가족들의 모습을 대했을 때, 그때까지 내가 꽃동네에 대해서 품어 왔던 환상(?)은 깨지고 탈았던 것이다. 우리는 장애인들이 성심껏 만들어 놓은 작품들을 전시해 놓은 집으로 갔다. 작품을 만든 분들은 모두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작품 하나를 완성하는 데는 여러 달 여러 해가 걸리기도 한다고 신부님께서 설명해 주셨다. 아!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나는 때때로 삶은 그 자체로서 고통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저 토록 몸이 불편한 분들이 오히려 저렇게 감사하며 행복해 하는 모습으로 성한 몸을 가진 나를 이토록 부끄럽게 하다니! 가끔 “하느님은 불공평하시다.”고 부드러워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했었는데, 불편한 몸을 전혀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 가는 꽃동네 가족들의 모습에서 나는 정말 커다란 감동을 받았던 것이다. 그로부터 일년, 그러한 감동들이 아직도 내 가슴에 생생한 여운으로 남아 있는데 이번에 또 다시 꽃동네를 방문하였다. 조금은 숙연한 마음이었다. 아니 답답하다고나 할까? 그분들은 변한게 없었다. 여전히 힘들어 보였고 아파 보였다. 그러나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행복해 하고 있다는 것을…』

* 자료 : 꽃동네 회보,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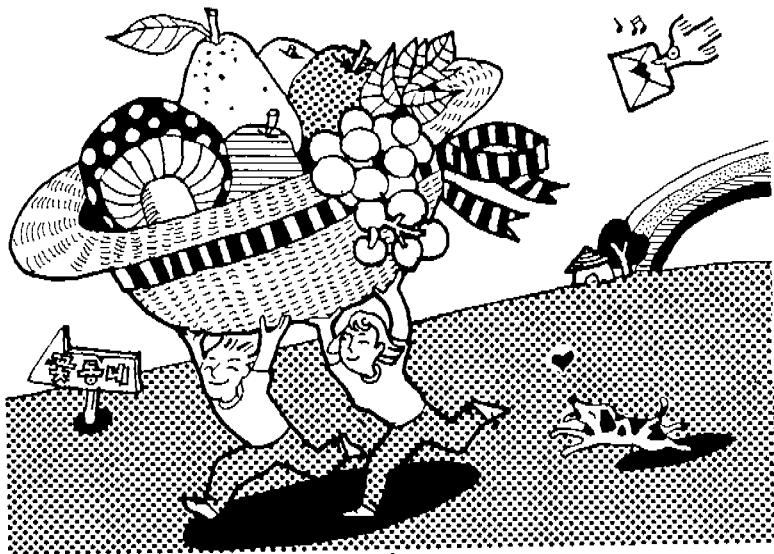
- ▷ 꽃동네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들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발표하게 한다.
- ▷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의논한다.

- ▷ 각자 꽃동네에 대한 보충정보를 조사해 오게 한다.

과정 2 방문계획

꽃동네 방문에 관심있는 동아리나 사람들의 모임이 구성되면 효율적이고 성과있는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방문계획을 짠다.

- ▷ 참가자 전체가 모여 모두에게 가능한 날짜와 기간을 정한다.
- ▷ 활동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진행조를 편성하고 조장을 선출한다.
- ▷ 진행조는 꽃동네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자신들이 정한 날짜와 참가자 수를 알리고 그곳에서의 활동이 가능한지 타진하여 본다.
- ▷ 방문이 확정되면 꽃동네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문의하고 각자 원하는 활동 중심으로 조를 구성한다.
 - ▶ 환자들보기조 : 환자 식사돕기, 환자 목욕시키기
 - ▶ 주방돕기조 : 식당에서의 식사준비



- ▶ 세탁조 : 세탁하기
- ▶ 환경미화조 : 청소 및 주변환경 가꾸기
- ▷ 또한 꽃동네 담당자와 상의하여 꽃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기쁨을 줄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한다.
- ▷ 진행조는 꽃동네 담당자에게 문의해 참가자 전체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나 준비해야 할 물품 등을 자세히 조사해 보고 미리 알려 준다.

과정 3 우리는 한가족

참가자들은 일차고 보람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활동에 임한다.

활동 일정표

	준비일	첫째날	둘째날	마지막날
6 : 30		기상		
7 : 30		아침체조 및 세면		
8 : 00		아침식사		
9 : 00		집합 완료 출발	오전 활동	
13 : 00			점심	
14 : 00	마지막 점검 (준비물 확인)	도착 숙소 배정	오후 활동	정리, 청소 작별인사, 사진촬영 출발
16 : 00		동네 구경		
18 : 00		저녁식사		
19 : 00		작은 잔치	나눔의 시간 (소감문 작성)	
22 : 00		축침		

- ▷ 2박 3일의 상기 일정표는 둘째날의 활동의 반복으로 시간여건에 따라 유동성 있게 활동기간을 늘릴 수 있다.
- ▷ 참가자들은 활동이 시작되면서 부터 자신의 시간이 공동의 시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활동시간을 염수한다.
- ▷ 각 조마다 봉사활동의 종류를 달리하여 활동 후 서로 다양한 체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
- ▷ 협력과 조화를 기반으로 한 공동작업이 될 수 있도록 대인관계에 유의한다. 특히 같은 조원간의 팀웍을 중시한다. 즐거운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해 주게 한다.
- ▷ 시설에 도착하면 시설 담당자나 인솔 지도자는 시설소개 시간을 통하여 활동시 시설사람들의 일상생활 리듬을 깨게 하는 무질서하거나 소란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지시킨다.
- ▷ 출발 전날 나눔의 시간을 가져 활동시 얻었던 느낌이나 마음의 변화를 정리한다.

과정 4 사랑의 모금활동

사랑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이다. 꽃동네에서 체험한 사랑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나눔의 활동을 벌인다.

- ▷ 봉사활동에서 돌아와 활동을 조용히 정리해 보는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도움자료 ①).
- ▷ 작은 실천으로 꽃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꽃동네 봉사자들의 글을 수집하여 읽고 좋은 아이디어를 빌려온다(도움자료 ②).
- ▷ 나눔활동의 한 예로 꽃동네회의 회원을 모아본다.
 - ▶ 꽃동네회원이 되시려면?(도움자료 ③)
- ▷ 동의한 사람들은 함께 모여 꽃동네를 바르게 소개하면서 자신들의 의도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글을 만들어 홍보한다. 다음과 같은 홍보기사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들이 꽃동네에서 봉사활동하면서 느낀 소감 그리고 후원회 모집활동을 하게 된 경위를 명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홍보문」을 만든다.



▶ 『꽃동네를 아십니까?

어느 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어둡고 비내리는 길목에서 누워 신음하는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를 차에 실고 빗길을 달리며 제 가슴은 고통에 짓눌렸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번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얼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동냥하던 결인들이 병들면 아무도 모르게 길가에서 죽어갑니다. 이들의 영혼과 육신을 쉬게 할 장소가 시급합니다. 영생을 준비시키는 구원의 집,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할 부활의 집, 꽃동네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꽃동네는 감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모아 저들을 보호하고 간호해 주자는 것이 꽃동네 모임의 취지입니다.

작은 시냇물이 자연스럽게 한데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우리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형제애가 어느 날엔가는 아름다운 꽃동네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소외당하고 멸시받는 이 불우한 형제자매들에게 삶의 용기와 부활의 기쁨을 안겨줍시다.

꽃동네를 돋는 분들은 종교와 국적에 구애받지 않고 매달 1000원의 회비로 조그만 성의를 표시하시면 족합니다. 물론 회원의 가족이나 자녀들도 우리 꽃동네회원이 되실 수 있으며, 회원이 되신 다음에라도 각자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로이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꽃동네회의 모든 사업은 꽃동네 자문위원들과 운영위원들의 결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사업 및 재정보고, 회원들의 소식은 꽃동네회보를 통하여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끊임없는 협조를 요망합니다.』

* 자료 : 꽃동네 회보, 1994.

- ▷ 동참자가 구성이 되면 꽃동네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후원활동을 벌인다.
- ▷ 활동 중 생기는 미금이나 감상을 다른 회원들과 나눌 수 있도록 「꽃동네회」의 편집실에 수첩이나 편지 형태로 보낸다.

3. 유의사항

- ▷ 지도자는 청소년 부모에게 글을 띠어 활동의 의의를 충분히 알리고 사전에 그 활동에 대한 부모의 승락서를 받아두도록 한다.
- ▷ 꽃동네 담당자와 지도자 그리고 청소년 대표는 긴밀히 연락하여 방문계획과 방문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 ▷ 청소년 지도자는 이 활동에 관심이 많은 학생을 대표로 뽑아 지도력을 키워 지속적인 방문회 후원회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해 준다.
- ▷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을 알려준다(도움자료 ④).

4. 도움자료

① 우리가 느낀 것들

도착 첫날

먼저 당신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이미 거기 있겠지만) 몇 분동안 조용하고 편안한 자리에 잠시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출발지

에서 도착지에 이르기까지 보낸 시간들을 다시 한 번 천천히,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모든 사건들을 마음 속에 되새기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신의 생각을 안내하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자리에서 그것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손에 그것을 들고 읽으면서 당신이 가졌던 만족, 지루함, 분노, 홍분 등의 감정을 가라앉히시길 바랍니다.

떠오르는 사건들	느낌
(각각의 장면에서 당시의 느낌을 적어 보세요)	
도착	
봉사지에 대한 첫인상	
당신이 함께 일한 사람들과의 첫번째 만남	
당신의 지도자와의 첫 번째 만남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고 했습니까?)	
첫 번째 수행한 일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	
동료들과의 관계	
당신의 지도자와의 관계	
봉사지 사람들에 대한 느낌	
떠나야 할 시간	
학교로 돌아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② 꽃동네 회원의 글

『꽃동네는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 저는 대전 변동 중학교 3학년 김수경이라고 해요. 전 꽃

동네회원이 된 동기가 참 우습답니다. 1년 전 등교길에 트럭이 세계 달리며 주변의 돌을 뿌겼는데 그 돌이 내 머리에 맞아서 켜맸죠. 그래서 한 주일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웃을 때마다 찢어진 곳이 아프고 머리를 합부로 움직이질 못했답니다.

정말 불편해서 짜증도 나고 이렇게는 평생 못 살겠더군요. 그런데 마침 도덕 선생님께서 꽃동네에 대해 얘기해 주신 게 생각이 나더군요. 난 고작 일주일 동안이지만 그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거동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도덕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주소로 1000원이라는 돈을 부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들의 그 괴로움을 백분의 일이라도 이해 하진 못했을 겁니다만, 그 불편한 거동으로도 우편물에서 본 것처럼 밝고 진실되고 감사해 하는 마음이 나온다는데 전 너무 감동했어요. 전 정상적인 거동으로도 언제나 짜증스럽고 불만이고 모든게 힘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그 밝고 진실된 마음이 씨가 되고, 봉사하는 이들의 그 따뜻하고 현신적인 사랑이 씨의 목을 축이이는 물이 되어 그곳은 아름답게 편 꽃들이 사는 바로 「꽃동네」, 그죠?』

* 자료 : 꽃동네 회보, 1994.

③ 꽃동네 회원이 되시려면?

▶ 이 나라의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복지의 창건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는 약소하지만 생명을 내 놓을 테니 한 달에 천 원씩만이라도 보태어 주십시오.

함께 합시다.

회원에 가입하실 분은 은행지로나 우편대체를 이용하시면 되으며 전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외국에서 보내실 때는 한국외환은행을 이용하십시오(국내회원은 제외).

- 은행지로 : 7514081
- 우편대체 : 301341-32-0022392
- 외국에서의 온라인 : 090-18-00808-1

한국외환은행 청주지점 오웅진

▶ 신규가입양식

성명	세례명	주소(아파트·연립·빌딩·회사명 기재)	전화	주민등록번호	추천인
본인			자택		
세대주			직장		

▶ 회원님이 꼭 아셔야 될 사항

- 회비를 내실 때마다 회원번호를 꼭 적어 보내주십시오.
- 다른 신규 회원님을 추천하실 경우 '신규' 표시를 꼭 해 주십시오.
- 한 분이 여러 회원님의 회비를 보내실 경우 각 회원님의 개인회원번호·성명·금액을 꼭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 신규 가입 회원님은 위의 양식대로 인적사항을 자세히 기록하여 보내주십시오.
-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전주소와 현주소를 함께 기입하여 보내주십시오(전화연락가능).
- 혹 보내드린 용지를 분실하였을 때는 각 은행이나 우체국에 비치되어 있는 일반용 용지에 꽃동네 구좌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시든지 가까운 꽃동네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추천인 명단은 우편으로 보내셔도 좋으며 팩시밀리로 보내셔도 됩니다. FAX. (02)275-2438

- 여러분의 주위에서 꽃동네회원 한 분씩만 더 늘려 주십시오. 회비는 한 달에 1000원입니다. 국적·종교·성별·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 「사랑의 한마음 손잡기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형편 탓은 대로 땅 한 평(5000원) 이상을 사서 선물해 주시면 됩니다. 임야·대지·건물 등 내용과 규모에 상관없이 가지고 계신 땅을 기증해 주셔도 됩니다.
- 사랑의 연수원 신축을 위해 회비외에 1만원 이상씩 내 주십시오.

* 자료: 꽃동네 회보, 1994.

④ 우리가 도움을 주려 갈 수 있는 곳(장애인 복지시설)

구분	시 설 명	종별	시설장	우편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서 울 특 별 시	삼육아동재활원	지체	김현심	151-050	관악구 봉천동 722-3	878-8121~4			
	천애재활원	"	허원	139-220	노원구 중계동 308-1	930-3028 4635			
주 동 총 현 복 지 원	몽 채 환 원	"	장성옥	134-090	강동구 상일동 179	427-9734			
	정 박	성선경	138-200	송파구 문정동 18	404-8314 402-7957				
인 우 온 교	강 성 평 남	원	"	이진명	132-011	도봉구 도봉1동 381-1			
	아 성 평	원	"	최병문	134-080	강동구 고덕동 298			
	재 복 지	"	윤경숙	122-060	은평구 구산동 191-1	385-2046			
	활 의 집	"	조명진	157-010	강서구 화곡본동 960-22	602-3880 1527			
다 신 성 한 맹	니 아 모 빛 인	엘 재 자 맹 인	"	김성언	133-210	성동구 광장동 533			
	엘 재 자 맹 인	학 활 재 맹 인	"	황희	138-110	송파구 거여동 251-23			
	학 활 재 맹 인	원	시각	최선옥	139-208	노원구 상계8동 856			
	원	"	반순자	132-071	도봉구 수유1동 484-21	989-0617			
	원	"	김원제	139-200	노원구 상계동 1131-41	939-2298 0735			
삼	성	농	아	원	청각	정명규	156-034	동작구 상도4동 211-121	823-2234 2236
쉼터	요양원	요양	김원제	139-200	노원구 상계동 1146-6	937-5057			
에덴하우스	근로	정덕환	152-091	구로구 개봉1동 50-8	681-2195				
정립회관	지, 용	황연대	133-200	성동구 구의동 16-3	446-1237 1238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시, 용	신동열	134-090	강동구 상일동 137	427-9111~2				
청음회관	청, 용	김완	135-080	강남구 역삼동 681-50	556-3493 4758				
서울특별시	정, 용	전익준	156-012	동작구 신대방2동 395	846-1569 9277				
정박자복지관									
서울시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	주성오	156-012	동작구 신대방2동 395	841-2077 ~9				
서울상이군경복지회관	"	심형거	139-206	노원구 상계6동 724-4	935-6375~6				
서울맹인복지회관	시, 용	박근수	139-206	노원구 상계6동 724-4	934-7561~5				
서울뇌성마비복지관	이용	백수웅	139-206	노원구 상계6동 724-4	933-9478 932-4297				
종합복지관	종합	김학기	132-075	도봉구 수유5동 520	902-3763				
국립재활원	이용	양금순	134-080	강동구 고덕동 317-7	441-5001				
서울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	문병기	156-012	동작구 신대방2동 400 (보라매공원)	841-1826 ~7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김석원	138-240	송파구 신천동 11-7 (교통회관 11층)	416-2596 9565				

구분	시 설 명	종별	시설장	우편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서 울 특 별 시	대한정신박약자 애호협회		황희	156-012	동작구 신대방2동 395 (보라매공원)	846-9275 ~7
	한국농아복지협회		김완	135-080	강남구 역삼동 681-50	556-3493 4758
	한국맹인복지협회		박근수	139-206	노원구 상계6동 724-4 (중계지구복지단체)	934-7561 ~5
	한국신체장애인 복지회		한상철	121-210	마포구 서교동 444-4 (국민은행빌딩 3층)	324-7812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자행회		김학목	139-206	노원구 상계6동 724-4	933-9478
			오선환	100-412	중구 광희동2가 303-1 (동산빌딩내)	268-1938
소계	34					
부 산 직 할 시	양지재활원 천성아동재활원 신애재활원 영광재활원 소화영아재활원 아이들의집 성우원 천마재활원 부산타이트하우스 선아원 메데스다원 양자근로관	지체	신익균 권막선 박상근 박현기 이순금 윤승자 김창숙 박근련 시각 청각 유독주 근로	607-072 606-072 614-080 612-061 608-071 612-082 607-089 602-030 602-030 609-392 616-141 607-072	동래구 거제2동 801-89 영도구 청학2동 57 부산진구 초읍동 603 해운대구 반여1동 산 1062-1 남구 간만1동 491-1 해운대구 반송2동 614 동래구 연산9동 산35-5 서구 암남동 산 13-5 서구 암남동 180 금정구 장전2동 산 38-6 강서구 대저1동 393-20 동래구 거제동 801-89	861-6001 413-4448 88-2303 523-5451 644-1729 521-5980 84-9211~2 255-6951 256-3096 56-0089 98-0330 861-6001
소계	12					
대 구 직 할 시	대구안식원 애망원 성보재활원 일심재활원 자유재활원 인제요양원 선명요육원 대구장애인복지관	지체	김봉희 박현철 최옥순 박병기 강영신 황맹순 한외근 이용	702-020 706-070 702-020 701-290 706-220 706-034 706-220 702-070	대구시 북구 복현동 57 수성구 파동 13 북구 복현동 315 동구 각산동 896 수성구 시지동 28-1 수성구 수성4가 1225-2 수성구 시지동 28-1 수성구 파동 1-1	956-1560 763-7363 92-8328 963-3927 82-1630 752-4966 82-2050 763-1011
소계	8					
인 천 직 할 시	성령직업재활원 광원 예림원 명화원 인천광명원 성동원 인천경신요양원	지체	김영주 이은수 정박 장영순 이원용 시각 양재숙 정현 윤호종	403-132 403-100 403-016 404-220 403-130 403-012 402-130	북구 섭정2동 586-2 북구 부개동 347 북구 부평6동 633 서구 석남동 491 북구 섭정동 185 북구 부평2동 756 남구 동춘동 산 55-4	422-0573 94-0105 93-8516 574-0250 522-8344 522-2984 865-2070

구분	시 설 명	종별	시설장	우편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노틀담장애인교육원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	황명자	403-050	북구 계산2동 산 40	542-3711
소계	9					
광주직할시	행복재활원 광주영광원 광주인화원 행복요양원 광주근로시설 엠마우스복지관 광주장애인복지관	지체 시각 청각 요양 근로 이용 "	정윤영 박현희 박영채 정윤영 한서동 천노엘 장용환	501-190 502-290 502-060 501-190 502-060 500-170 500-180	동구 학동 280 서구 덕흥동 953-2 서구 봉선동 산 38-1 동구 학동 280 서구 봉선동 산 38-1 북구 운암2동 480-2 북구 동림동 24	222-1656 371-5551 66-2167 222-1656 673-5962 524-7701 527-0977~9
소계	7					
대전직할시	성세재활원 온달의집 한마음 경화원 성세재활자립원 대전시립장애인복지관	지체 정박 시각 청각 근로 이용	남일균 윤진순 엄병희 송명호 박준자 남시균	302-172 300-220 302-040 300-220 305-363 302-363	서구 월평동 186-11 대덕구 대화동 39 서구 장안동 59-3 대덕구 대화동 39-1 유성구 용계동 319-1 유성구 용계동 319-1	533-0460 625-3005 822-0783 625-3004 823-3560 823-5111
소계	6					
경기도	석암재활원 석암메데소다요양원 한사랑마을 파파엘의집 성분도장애인 직업재활원 평화원 자립원 향림재활원 동방아동재활원 브니엘 홀트일산복지타운 부천해림원 주내자육원 성심동원 혜인원 장봉혜림원 운보원 에바다농아원	지체 요양 "	홍순자 김종립 윤광석 정지훈 이정모 지체 강성숙 강유상 김문동 주진석 임준 정어진 임병덕 임순익 김연순 김혜경 임성만 이태영 최실자	415-850 415-840 464-860 469-850 464-880 425-170 473-850 464-870 450-080 449-820 411-820 421-010 413-870 445-800 464-800 409-835 473-860 451-860	김포군 대곶면 울생리 산50 김포군 양촌면 양곡리 490 광주군 초월면 신월리 산 5-1 여주군 북내면 중앙2리 산48 광주군 도척면 진우리 661 안산시 사동 386불럭 남양주군 수동면 입석리 522-2 광주군 실촌면 연곡리 산2 평택시 소사동 106-1 용인군 내사면 주북리 산 141-4 고양군 일산읍 관현리 68 부천시 심곡동 산 1-3 파주군 법원읍 금곡리 428-1 오산시 가수동 90 광주군 광주읍 탄별리 674-1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105-1 남양주군 진접면 내작리 766 평택군 진위면 하북리 72	987-7909 988-0909 64-6358 2115 83-6637 62-7283 ~4 85-1135 65-6644 6688 62-8585~6 52-2312 33-4131 ~3 975-2144 62-0682 2973 958-7002 374-3423 64-6892 886-8051~2 65-2130 62-5667

구분	시 설 명	종별	시설장	우편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경 기 도	입석요양원	요양	강유상	473-850	남양주군 수동면 입석리 522-2	65-6688
	소망재활원	"	고부성	461-140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3957	41-3001
	경기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		421-210	부천시 중구 좌동 58-4	
소계	21					
강 원 도	천사들 의 집	지체	김승숙	220-082	원주시 봉산2동 산 23-2	43-9997
	강원도심신 장애자재활원	정박 홍우열		206-820	춘성군 신북면 신천리 345-3	52-1602
	중증장애인요양원	요양	김승숙	220-082	원주시 봉산2동 산 23-2	43-9997
	강원도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용 윤학병		200-140	춘천시 시동동 105-5	55-2491 ~3
	서울장애인요양원	요양		269-800	철원군 갈말면	52-3260
소계	5					
충 청 북 도	승덕재활원	지체	김경애	380-080	충주시 봉방동 404	847-9405
	청산원	정박	최덕운	373-800	옥천읍 삼청리 산 47-2	33-3456
	세하의집	"	장병호	390-270	제천시 흑석동 산 27-13	43-5472 0695
	충북재활원	"	강홍조	360-111	청주시 신봉동 146-7	62-7415~6
	성보나의집	"	오인숙	363-850	청원군 가덕면 내암리 2-4	54-8348
	충북광화원	시각	김승년	360-081	청주시 탑동 185	53-7764
	성심맹아원	"	김명자	380-070	충주시 호암동 365	43-1432
	성심농아재활원	청각	오옥희	380-060	충주시 교현동 640-2	43-1337
	승덕심신장애인요양원	요양	김경애	380-080	충주시 봉방동 404-1	43-9912
	다티아의집	"	강홍조	360-111	청주시 신봉동 146-7	62-7415
	꽃동네심신 장애인요양원	"	이인숙	369-800	음성군 음성읍 동음리 산 127-20	78-9810
	충북장애인복지관	이용	김건준	380-130	충주시 호암동 산 55-24	43-0556
소계	12					
충 청 남 도	한별지음복지원	지체	임석노	352-810	서산군 음암면 율봉리 산 22	63-6423~4
	명주원	정박	이명중	315-920	공주군 반포면 송곡리 268	52-7124
	충남정심원	"	신남순	353-830	보령군 주교면 관창리 산 14	33-1717
	동곡요양원	요양	박옥분	315-920	공주군 반포면 송곡리 188-7	52-7123
	정심요양원	"	신남순	353-830	보령군 주교면 관창리 산 14	33-1717
	인주요양원	"	임석노	352-840	서산군 음암면 율봉리 산 22	63-6423
	충남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		353-830	보령군 주교면 관창리 산 14	33-1717
소계	7					
전 라 북 도	국제어린이재활원	지체	최승구	565-860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산 15-6	71-4352~3
	전주자림원	정박	김제필	560-240	전주시 효자동 3가 427-6	223-1568
	전북보성원	시각	조순화	570-330	이리시 석암동 산 41-88	51-1753
	전주자림요양원	요양	김재필	560-240	전주시 효자동 3가 427-1	223-1568
	어린이세계원	"	최승구	565-860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12	71-4352~3
	동암재활원	근로	박순자	560-240	전주시 완산구 효자2동 1215-5	222-4444

구분	시 설 명	종별	시설장	우편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전북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용	양복규	560-240	전주지 흐지동3가 1251	222-9998 ~9
소계	8					
전 라 남 도	여수동백원	지체	김홍용	556-810	여천군 소라면 관기리 348	83-0678
	에양재활직업보도소	"	유경운	540-070	순천시 매곡동 167-1	52-4716
	덕산	"	전봉운	517-810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산 16-1	82-4548
	곡성삼강원	정박	강영수	543-800	곡성군 곡성읍 죽동리 6	2-2346 2006
	목포공생재활원	"	최순임	530-430	목포시 달동 845-1	72-0036
	목포광명원	시각	하제용	526-890	영암군 삼호면 신호리 442	72-5602
	목포농아원	청각	슈료더	526-890	영암군 삼호면 난전리 85-1	72-6306
	동백요양원	요양	김홍용	556-810	여천군 소라면 관기리 348	83-0678
	계산원		장용환	520-230	나주시 삼영동 산 44	32-9967
	전남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용환	520-230	나주시 삼영동 산 48	32-4105
소계	10					
경 상 북 도	청구혜양원	지체	박윤석	713-840	경산군 와촌면 소월동 109-1	52-0423
	마리아의집	"	최영숙	790-310	포항시 대잠풍 270	72-0586
	안동재활원	"	김윤동	760-310	안동시 옥동 988-2	52-4862 4816
	국제재활원	"	최용병	717-810	고령군 성산면 어곡동 9	954-4176
	대동시온재활원	정박	신명도	713-830	경산군 진량면 양기리 산 3	53-3779
	안동애명복지촌	"	박승탁	762-890	안동군 북후면 동촌동 846	53-5842
	성락원	요양	강조자	713-800	경산시 신천동 산 27-2	83-3226
	안동요양원	"	김윤동	760-310	안동시 옥동 988-2	52-4862 4816
	애명복지촌요양원	"	박승탁	762-890	안동군 북후면 동촌동 846-1	54-2127
	경북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용		762-890	안동군 북후면 동촌동 846-1	54-3283
소계	10					
경 상 남 도	혜성원	정박	송태옥	626-840	양산군 응산면 평진리 527-7	82-2818
	효정원	"	박창숙	689-845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 220	63-6466
	애리원	"	구경중	689-820	울산군 상북면 명촌리 산 71	64-0138~9
	정신요양원	근로	김병대	689-845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 220	63-6465
	홍익재활원	지체	임중기	641-370	창원시 신촌동 30	86-1117~9
	충무자생원	"	한삼주	650-030	충무시 정량동 156	645-2511
	애광재활원	정박	김임순	657-170	장승포시 장승9동 521-14	681-7524
	태연재활원	"	이동성	689-920	울산군 강동면 산하리 161-1	94-4757
	울주메아리복지원	청각	박무덕	689-910	울산군 농소면 중산리 492	95-9069
	무궁애학원	"	박재석	626-810	양산군 물금면 범어리 산 62-8	82-9896
	민들레의집	요양	김필순	657-170	장승포시 장승9동 521-4	681-7524

구분	시 설 명	종별	시설장	우편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				
소계	12					
제 주 도	아 가 의 집 충강장애인근로센타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정박 근로 이용	강종숙 이동한 이동한	695-810 690-120 690-120	북제주군 조천읍 합덕리 20-2 아라동 396-1 아라동 396-30	83-9000 55-7852 52-0295~6
소계	3					
총계	164					

* 자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1, 한국사회복지총람.

세대를 넘어서

우리는 고유의 가족제도 아래 경로효친과 인보상조의 미풍양속을 가진 국민으로서 이를 발전시켜 노인을 경애하고 봉양하여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힘써 왔다. 그러나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인구의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는 점차 노후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노인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을 이해하고 공경할 수 있게 하는 데 한 몫을 담당할 수 있게 할 것이다.

1. 활동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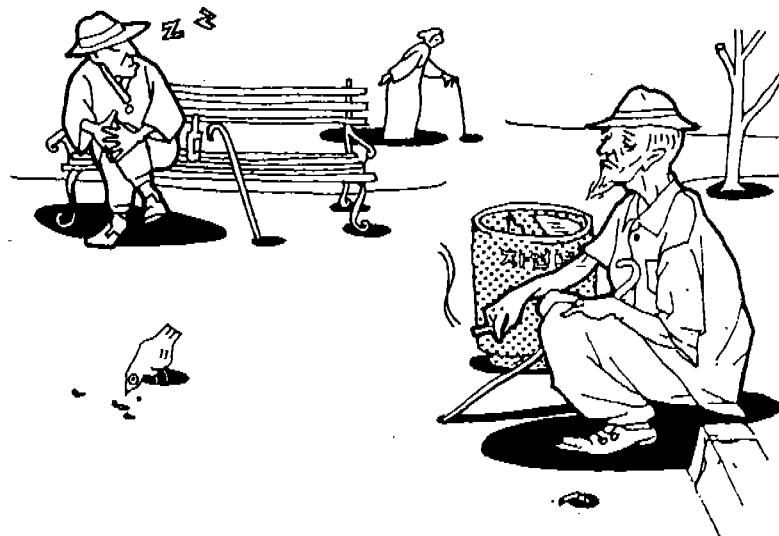
목 표	노인문제와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행함으로써 세대 간의 이해를 도모한다.			
활 동 과 정	노인공원 나들이 노인들이 많이 모여 시간을 보내는 장소를 방문하여 노인 문제와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함께 느껴본다.	재가노인복지 봉사란 노인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재가노인 복지봉사에 대해 알아보고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연구해 본다.	도우미활동 기술 익히기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 시 필요한 간단한 기술을 배워본다.	손주역할 해보기 노인에 대한 이해와 그동안 배우고 익힌 기술을 바탕으로 재가 노인을 실제로 방문하여 봉사 활동을 벌인다.

2. 활동 내용

과정 1 노인공원 나들이

파고다 공원 같이 노인들이 많이 모여 시간을 보내는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노인 문제와 실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감각으로 느껴본다.

- ▷ 5~6명씩 한 조가 되어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을 방문하여 노인들의 활동을 관찰한다. 조별로 다른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다양한 정보와 느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느낌 등을 사진이나 VTR로 촬영해 본다.



- ▷ 조별로 조사한 내용이나 느낌 등을 종합정리하여 발표한다.
- ▷ 사진 전시회 및 우수작품 시상식도 가져본다.
- ▷ 「효」의 가치나 개념 또는 「경로사상」에 대해 토론해 보게 한다.
- ▷ 지도자는 노인들에 대해 이해를 다질 수 있는 내용과 함께 노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정리해 준다(도움자료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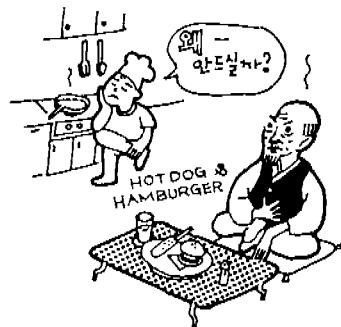
과정 2 재가노인복지봉사란

전체 재가노인 중 22.9%가 노인 단독가구이다. 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봉사에 대해 알아보고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함께 연구해 본다.

- ▷ 가정봉사원의 활동내용을 알아보고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표시해 본다(표 1~4).
- ▷ 재가복지봉사와 재가노인복지봉사의 봉사자인 「가정봉사원」에 대해 기관의 실무자나 지도자가 강의를 통해 소개 한다(도움자료 ②③).
- ▷ 청소년들이 가정봉사원으로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능력에 맞게 할 수 있는 활동 방법에 대해 의논해 본다.

1 가사 서비스

- 식사준비 및 취사
- 식이요법 지도
- 청소
- 세탁
- 정리정돈
- 다림질
- 생필품 구매
- 난방
- 잔심부름
- 기타 가사원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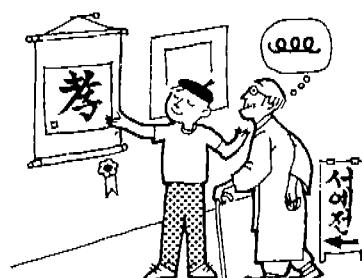
2 보건·의료 서비스

- 병간호·신체적 수발
- 병원안내·수속 대행
- 약품구입 대행
- 약물복용 지도·감독·시중
- 체온·맥박 측정
- 신체 재활운동 지원
- 산책동행
- 개인 위생관리(머리손질,
손톱·발톱깍기, 목욕)
- 건강관리 지도
- 안마



3 정서적 서비스

- 생활상담
- 신상조언
- 말벗
- 우애방문
- 전화방문
- 책읽어 드리기
- 편지 쓰기
- 전시회 및 시내구경
동반



4 사회적 서비스	
· 법규 및 규정에 대한 정보 제공	<input type="checkbox"/>
· 행정서류 대행	<input type="checkbox"/>
· 동회배급 수령	<input type="checkbox"/>
· 이웃, 집주인, 친척과의 관계유지	<input type="checkbox"/>
· 사회복지 기관 및 프로그램과의 연계	<input type="checkbox"/>
· 시설입소 주선	<input type="checkbox"/>
· 취미 및 사회활동 조장	<input type="check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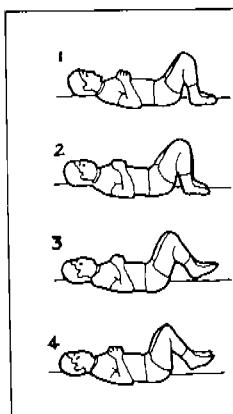
* 자료 : 이창희, 1992.

과정 3 도우미 활동기술 익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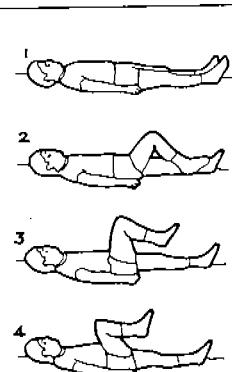
노인들을 위한 가정봉사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알아 두어야 할 간단하고 기본적인 기술을 배워본다.

▷ 청소년들은 「노인을 위한 운동 10가지」를 배워 노인들과 함께 해봄으로써 노인들이 간단한 운동을 통해 건강도 유지하고 정서적인 교류도 갖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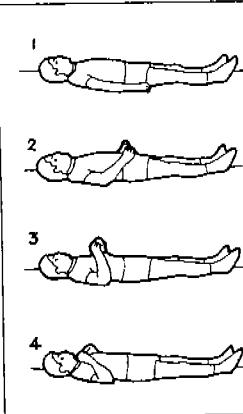
① 무릎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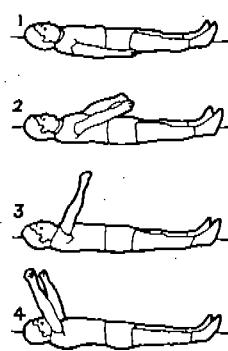
② 다리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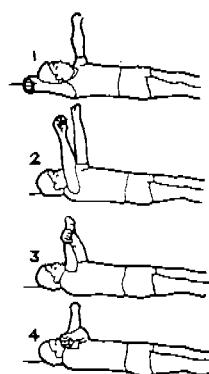
③ 팔꿈치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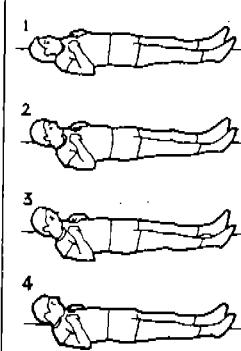
④ 팔 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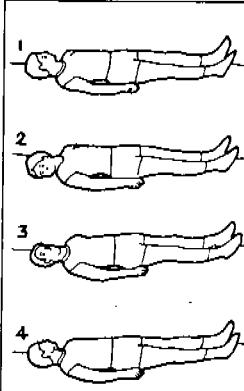
⑤ 팔 벌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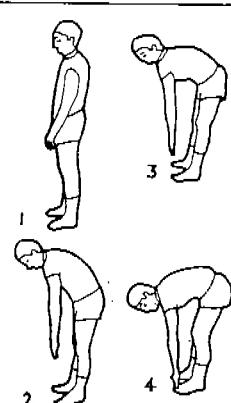
⑥ 누워서 목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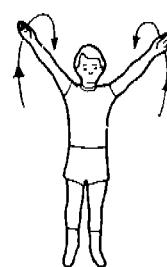
⑦ 목 좌우로 돌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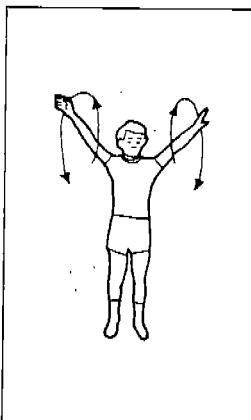
⑧ 등 굽히기



⑨ 팔 앞으로 돌리기



⑩ 팔 뒤로 돌리기



* 자료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1993.

▷ 몇 가지 기본적인 일상동작에서의 간호법을 익힌다.

▶ 일으켜 앉히는 동작 I (부분적 보조)

(배힘이 약해서 혼자 일어날 수
없을 때 부분적으로 보조하는
방법)

- ① 발을 꼬게 하고 측와위로
될 때 도와준다.
- ② 간호자는 한쪽 손으로 어깨
를 받치고 또 한 손으로는
팔꿈치를 눌러 팔꿈치를 촉
으로 삼아 몸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돕는다.



▶ 일으켜 앉히는 동작 II (완전보조)

① 노인에게 움직인다는 것을
설명하고 무릎을 가볍게 세
우도록 한다.

② 노인의 손을 간호자의 목
뒤로 돌리게 하고 간호자는
노인을 끌어안는 것처럼 해
서 한쪽 손을 겨드랑이 아
래로 넣어 등으로 돌리고
나머지 한 손도 뒤로 돌린
다.



- ③ 안아서 일으키려 하지 말고
간호자가 뒤로 엉덩방아를 짚듯이 가만히 옹크린다.

▶ 체위의 변환

병자와 고령자에게는 안정과 휴식이 중요하지만 늘 같은 자세로 누워있는 것은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를 일으키기 쉽다.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2시간마다 체위를 바꾸어야 한다. 고령자의 경우에는 뼈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움직이면 골절될 우려도 있으므로 가만히 신중하게 수행한다.

방법 I (맞은 편을 향한 측와위)

- ① 움직인다는 것을 알린다.
- ② 간호자는 노인을 자신 쪽으로 잡아 당긴다.
- ③ 향할 방향의 반대측 무릎을 세우든가 그 다리를 위로 해서 꼬게 한다(옆으로 뉘이기 쉽다).

④ 향하는 쪽의 팔은 몸의 아래에 깔리지 않도록 올리고 다른 팔은 위에 놓는다.

⑤ 간호자는 노인의 어깨와 다리 가랑이 사이를 통해 넓적 다리에 손을 얹고 몸을 일으키면서 지레의 원리를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를 맞은 편 쪽으로 향하게 한다.

방법 II(간호자가 있는 쪽으로의 측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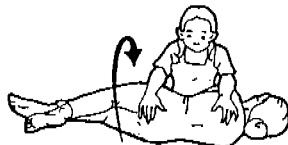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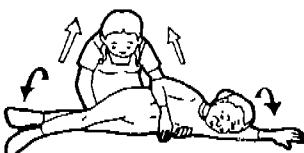
① 간호자는 향할 반대쪽에 서서 노인을 자기 앞으로 풀어 당긴다.

② 맞은편 방향의 측화위 일 때의 ③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③ 간호자는 향해 같은 쪽으로 와서 노인의 위로 팔을 내밀어 맞은 편 어깨와 허리에 손을 대고 간호자 쪽으로 당긴다.



팔을 지레와 같이 이용한다.



* 자료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1993.

▷ 위의 기술들을 2명이 한 조가 되어 실습해 보고 서로 고쳐 준다.

과정 4 손주역할 해보기

위의 활동을 통해 배우고 익힌 지식과 기술 그리고 노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재가노인을 실제로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벌여 본다.

▷ 우선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이 활동에 들어가기 까지의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 본다.

▶ 가정봉사원 자원신청

가정봉사원의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인근 지역의 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지원신청한다.

- ▶ 신청자에게 안내서 및 신청서 발송기관에서는 가정봉사원 활동 신청자에게 가정봉사원 사업안내서 및 봉사자 신청서를 발송한다.

- ▶ 신청서 접수

신청서를 받은 봉사자는 자세히 내용을 기입하고 사진을 붙인 후 기관으로 다시 발송하며 기관은 이 신청서를 접수한다.

- ▶ 가정봉사원 신규교육 수료

신규봉사자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 : 노인 이해, 가정간호, 가정봉사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 등

- ▶ 대상노인 연결

기관은 실태조사를 통하여 대상 노인의 종교, 지역, 성별, 건강상태 및 그밖의 특성을 고려하여 봉사자와 연결시켜 준다.

- ▶ 대상노인 방문봉사

가정봉사원은 연결된 대상노인의 가정에 최소한 주 1회 2~3시간 방문하여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봉사활동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봉사를 중단할 시에는 담당 사회사업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봉사활동일지 제출

매 방문사항은 요약 기록하여 담당 사회사업가에게 제출한다. 활동 일지는 우편을 통하여 기관으로 발송하거나 월례모임시 기관에 제출 한다. 활동일지는 노인의 개인 화일에 보관되며 봉사원의 활동 및 대상 노인 변동사항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봉사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상 노인 변경시 차기 봉사원이 대상 노인을 이해하는데 참고자료가 되며, 또한 월례모임시 토의 자료 및 가정봉사원 제도에 관한 연구자료로 활용된다.

- ▶ 월례모임 참석

가정봉사원은 월례모임에 참석하여 봉사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이 모임을 통하여 1 개월간의 봉사활동 중의 어려웠던 점, 문제 점 등을 서로 토의하며 의견을 교환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자문을 얻는다. 또한 연구회를 통하여 보다 나은 가정봉사활동에 힘쓰며 자기 발전을 꾀한다.

- ▷ 지도자는 위의 과정을 참고하여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재가노인홈을 복지관을 통해 알아 보고 청소년의 봉사활동 욕구와 봉사대상 노인의 요구가 일치하는 곳을 청소년들이 방문 할 수 있도록 한다(도움자료 ④).

복지관협회 가입자명단

- ▷ 가정봉사활동을 위해 갖추어야 할 여러가지 지식에 대해 알려준다.
- ▶ 봉사활동 전에 알아야 할 사전정보(도움자료 ⑤).
 - ▶ 첫 방문시 봉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도움자료 ⑥).
 - ▶ 봉사대상 노인 및 가족과 대면할 때 봉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도움자료 ⑦).
 - ▶ 봉사활동과정에서 봉사자의 자세(도움자료 ⑧).
 - ▷ 활동의 첫 단계로 2~3명이 한 조가 되어 기존의 성인 가정봉사원과 함께 재가노인홈을 방문하여 노인과 인사를 나누고 가정봉사원이 하는 활동을 관찰하며 쉬운 활동을 보조한다.
 - ▷ 활동이 진전되고 봉사대상 노인과의 친밀감이 형성되면 2~3명이 교대로 한 명씩 자신의 시간과 능력 그리고 적성을 고려한 활동을 벌인다(산책동반, 운동시키기, 청소, 책 읽어 드리기 등 위의 활동을 참조하여 선택한다).
 - ▷ 봉사활동일지를 조별로 공동으로 준비하여 작성한다(도움자료 ⑨).
 - ▷ 조별로 또는 전체가 함께 모여 자신들이 한 활동내용을 소개하고 나눔으로써 서로의 활동을 평가하여 주고 단점은 개선하고 장점은 북돋아 주며 본받는다.

3. 유의사항

- ▷ 활동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동과정 1~4중 취사선택하여 활동한다.

- ▷ 지도자는 복지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고무시킨다.
- ▷ 첫 방문시 성인 가정봉사원이나 지도자가 반드시 동행하도록 한다.
- ▷ 2~3명이 한 조가 되어 활동하게 함으로써 협동심도 기르고 안전도 도모한다.

4. 도움자료

① 노인문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농경생활을 영위해오며 대가족을 형성하여 살아왔다.

농경사회에서의 대가족제도는 가족들의 생활보장 책임과 노인부양문제,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 문화전달 등의 모든 기능을 담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대가족제도는 가족들의 모든 생활문제를 그들이 소속된 가족, 특히 가장의 책임하에 자체적으로 해결해 왔다. 그러나 서구의 산업 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산업기술의 발달과 그로 인한 생산성의 향상으로 종래의 농경사회 경제체계가 산업사회 경제체계로 변화됨에 따라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현상이 수반되면서 가족형태도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는 붕괴되고 현대적인 부부중심의 핵가족제로 되어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빈곤, 실업, 주택, 공중보건, 환경, 산업 재해, 가족해체, 범죄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가족제도하의 가장의 권한이나 지위가 현저하게 약화되었고 생활환경은 생활양식의 현대화와 경제적인 면에서의 자기의 처자부양에 바쁜 나머지 노부모를 부양하며 함께 살아가는데 힘든 생활여건으로 변하고 말았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노인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니게끔 되었다.

1) 경제적 어려움

노인문제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문제이다. 즉 노인들은 빈곤 하다는 것이다. 핵가족제도하에서 노인의 가정적,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저하됨에 따라 노인부양의 책임을 종래의 가정으로부터 연금, 공적부조의 형태로 사회가 분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생활의 책임이 가족이나 개인에게 책임지워져 있는 실정으로 노후대책에 대한 준비와 노력을 개인적으로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물질적, 정신적 부양 등 모든 문제를 안고 불안한 노후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 질병문제

자녀와의 동거율이 감소하면서 혼자 사는 노인이나 노인 부부세대가 증가하였다. 그 결과 노인들은 경제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건강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체적으로 쇠약해진 노인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데 기족구조의 변화와 기능의 약화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소외와 고독감의 문제

노동력과 생산성, 노련한 기술, 고도의 지식 등 능력을 중시하는 현대의 산업사회에서 노인들은 소외시되며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고속화, 고총화, 지하화, 자동화 등은 노인들의 정서적 생활에 불안감만을 더해주고 있다.

4) 역할상실의 문제

노인들의 역할상실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핵가족 구조하에서 노인의 역할은 크게 기대되지 못하고 있다. 노인은 노동력의 쇠퇴로 취업의 기회가 적어지고 손자손녀의 교육에도 노부모의 역할은 미미하게 되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그들의 역할이 상실되어가고 있다. 소수의 자녀들의 결혼 후 노부부만 남게 되고, 노년이 길어짐에 따라 노후생활을 어떻게 영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② 재가노인복지봉사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른 산업화, 도시화로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가치관 및 생활양식 등의 변화로 노인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991년 현재 전체 인구의 5.1%에서 2000년에는 6.8% 그리고 2020년에는 12.5%로 추계되고 있으며, 평균수명에 있어서도 1990년 현재 남녀 평균 71.3세로 바야흐로 우리 사회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 들고 있다 하겠다. 근래에 들어 노인복지 분야에 국가,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이를 노인들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은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나마도 무의탁 노인에 대한 시설 보호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설보호는 이미 선진외국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노인을 외부와 단절시키고 경제성에 있어서도 비효율

적이라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노인들 자신도 가정에서 이 웃과 더불어 노후를 보내기를 원하며 시설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를 갖고 있고, 또한 한정된 국가재원으로는 노인인구의 증가 특히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날로 증가하는 단독세대노인이나 거동불능노인을 모두 시설에 수용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시설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전체 노인의 0.3%(약 6,600명)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로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무의탁 거택보호대상 노인이 전체노인의 약 6%인 111,000명이 되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89년에 실시한 「노인단독가구 실태에 관한 연구」를 보면 전체 재가노인 중 22.9%가 노인단독가구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구조의 변화(핵가족형 가구 68.8%, 1989)와 더불어 노인 인구의 주된 신체적 부양자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45%, 1988) 및 가족원 수의 소수화(3.8명, 1990) 등으로 질병 시의 간호, 서중 등 노인에 대한 가족의 서비스 기능은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빈곤 노인들의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 이외에 신체적으로도 노쇠하며 정서적으로도 심한 고독감을 느끼고 있어 이를 해소 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1987년부터 한국노인복지회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범사업으로써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무의탁 노인들에게 개인적,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고 가족의 기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의 일차적 대안으로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통해 노인이 자기가정 및 그 지역에 머물면서 재가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이들 노인가정을 방문하여 보호해 주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가정봉사원 서비스가 서울시 몇몇 노인복지기관에서 지난 4~5년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1992년부터는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전국에 144개소(이 중 사회복지관 부설 105개소)가 설치되어 주 대상인 노인을 배롯하여 장애자, 소년소녀가장가정 등 기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③ 가정봉사원

우리나라에서 가정봉사원 서비스란 용어는 아직까지 개념 이해가 불충분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진외국에서는 이미 그러하듯 이 우리나라에서도 국민 경제수준이나 복지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가족과 분리하는 시설보호위주에서 지역 사회로의 재가보호위주의 정책에

점차 관심을 두면서부터 가정봉사원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지역과 미국 등에서 사회적 서비스로서 발전하여 (영국 : Home help service, 미국 : Homemaker service) 세계 각국으로 확산, 전개되고 있다.

가정봉사원 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의로는 「노인들의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거주지에서 세탁, 장보기, 청소, 식사준비 등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그들 자신의 가정에서 안락한 노후생활을 돋는 것으로 예방 서비스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일반적으로 노인, 만성질환자, 아동 등을 대상으로 그들 가정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 다양하다.

따라서 가정봉사원 서비스란 요보호자들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그들의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돋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며 수혜대상도 노인, 장애자, 아동 등 여러 집단이지만 보통 노인에 한정한다.

* 자료 : 이창희, 1992.

④ 전국 사회복지관부설 재기복지봉사센터

시도	번호	기 관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서 울	1	YM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관악구 봉천3동 37번지 7-160	02)875-4422~3
	2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송파구 가락1동 481	449-2341~3
	3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강서구 가양동 택지개발 4블럭	668-6689
	4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강서구 가양동 택지개발 5블럭	668-0600
	5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강서구 가양동 택지개발 7블럭	668-8600
	6	강남종합사회복지관	강남구 개포3동 12-46	451-0051~3
	7	강동종합사회복지관	강동구 천호3동 397-53	475-4585~8
	8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구로구 구로3동 256-7	852-0522~5
	9	구세군도봉종합사회복지관	도봉구 미아2동 791-1509	986-0988~9
	10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성북구 길음3동 905	985-0161~4
	11	동작종합사회복지관	동작구 대방동 5-1	814-8114~5
	12	마을사회복지관	노원구 중계1동개발지구102-1B	971-8387~8
	13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송파구 마천동 323-197	449-3141~2
	14	면목사회복지관	중랑구 면목4동 산 72-6	439-2038~9
	15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도봉구 번3동 주공22동2단지내	987-5078
	16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도봉구 번2동237 번동3단지302	984-2961
	17	본동종합사회복지관	동작구 본동 16-3	817-8052~4
	18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노원구 상계1동 1146-11	934-7711~5

시도	번호	기 관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서 울	19	사랑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마포구 신공덕동 15-66	712-8600
	20	삼천종합사회복지관	송파구 삼천동 177	421-6077~9
	21	상도종합사회복지관	동작구 상도1동 456	824-6011~3
	22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성북구 하월곡동 96-155	916-9193~5
	23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서대문구 남가좌동 139-3	375-5040
	24	서초종합사회복지관	서초구 양재동 11-13	579-4783~4
	25	선의은행종합사회복지관	관악구 봉천5동 4-2	886-9941~3
	26	송파종합사회복지관	송파구 거여동 5-8	401-1919,1949
	27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강남구 수서동 백지개발3블럭	459-2696~7
	28	수서성립종합사회복지관	강남구 일원1동 수서백지개발1B	459-6333~5
	29	수서종합사회복지관	강남구 수서동255 도시개발APT	459-5504
	30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양천구 신월2동 615-43	605-8728~9
	31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영등포구 신길5동 440-56	846-1117
	32	월계종합사회복지관	노원구 월계2동 600주공단지내	999-4211~3
	33	월곡종합사회복지관	성북구 하월곡동 77-45	943-0251
	34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중랑구 신내동 572-2	438-4011~4
	35	은평종합사회복지관	은평구 수색동 8-15	307-5975
	36	이대성산종합사회복지관	마포구 성산2동 350	374-5884~5
	37	이대종합사회복지관	서대문구 대신동 22번지	362-6080
	38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송파구 잠실동 188-1	423-7807~8
	39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구 장안1동 395-2	242-7564
	40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노원구 중계1동 2-1B 주공3단지	952-0333~5
	41	중대부설종합사회복지관	관악구 봉천10동 890-1	872-5802
	42	태화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종로구 인사동 194-27 태화빌딩	734-4772
	43	평화종합사회복지관	노원구 중계3동 103번지	949-0123~4
	44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송파구 풍납2동 330-1	474-1201
	45	하계종합사회복지관	노원구 하계동 312	973-9955
	46	하트하트종합사회복지관	송파구 가락2동 149-16	430-2000~1
부 산	47	금곡종합사회복지관	북구 금곡동 813	051)338-3695
	48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금정구 금사동 545-22	523-0115~8
	49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남구 우암동 산 22-1	647-3655~6
	50	다대사회복지관	사하구 다대동 산 13-11	264-5420~1
	51	덕천종합사회복지관	북구 덕천2동 산 133-7	331-4674~5
	52	동구종합사회복지관	동구 범일6동 산 65-147	633-3367~9
	53	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	동래구 연산3동 2015-9	863-8360~1
	54	동삼사회복지관	영도구 동삼1동 222	430-0386,1330
	55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서구 토성동 2가 4	241-0706,6331
	56	부산종합사회복지관(K.C.F)	남구 망미동 774-269	755-3367~8

시도	번호	기 관 명	주 소	전 화 번 호
부 산	57	부산종합사회복지관(로사)	동구 수정동 1169-3	465-7634
	58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 개금2동 산 57-9	893-0035~7
	59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사하구 감천2동 12278	28-2688~9
	60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	영도구 신선3동 3가 산112-127	413-7879,4661
	61	영진종합사회복지관	해운대구 반여1동 1247	529-0005~7
	62	운봉종합사회복지관	해운대구 반송2동 산 20	532-2431~2
	63	장선종합사회복지관	복구 구포동 산 57-1	336-7007
	64	해운대반송종합사회복지관	해운대구 반송1동 756-228	531-8006~9
	65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해운대구 채총동 100-9	782-5005~7
대 구	66	대구가정복지회종합복지회	북구 산격동 1304-1	053)955-8310
	67	대구종합사회복지관	동구 서호동 89-1	964-3334~5
	68	산격종합사회복지관	북구 산격1동 750-1	943-3094~5
	69	월성카톨릭종합사회복지관	달성구 월성동 86	634-7230~1
	70	월성종합사회복지관	달서구 월성동 273	634-5345~6
	71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수성구 지산동 지산5단지 33블럭	767-5136~6
	72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수성구 범어동 238-50	753-9310
인 천	73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남동구 만수1동 만수주공7단지내	032)463-8161~3
	74	삼산종합사회복지관	북구 삼산동 주공APT단지내	529-8607~8
	75	연수종합사회복지관	남구 연수동 16B연수시령 A단지내	811-8010~2
	76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남구 학의1동 산 75-6	867-4416
	77	인천종합사회복지관	동구 창영동 42	761-5508
광 주	78	광주시민종합사회복지관	북구 양산동 산 116-5	062)571-6222~3
	79	광주종합사회복지관	북구 오치동 912-1	264-4370,5308
	80	무진종합사회복지관	서구 광천동 655-9	372-2600,6727
	81	쌍촌종합사회복지관	서구 쌍촌동 1229	375-0036~7
	82	하남종합사회복지관	광산구 하남2단지 177블럭	951-0701~2
	83	호남종합사회복지관	서구 쌍촌동 887-5	371-2670
	84	대전종합사회복지관	대덕구 비래동 116-7	042)627-2957~8
대 전	85	대전중리종합사회복지관	대덕구 범동 283-1	628-1476
	86	산내종합사회복지관	동구 낭월동 205	272-0591~2
	87	성락종합사회복지관	종구 용두1동 53-31	255-2278
	88	성신종합사회복지관	동구 삼정동 118-5	272-8882~3
	89	충촌사회복지관	종구 충촌동 128-1	254-8132
	90	판암사회복지관	동구 판암동 314	272-8981
	91	YMCA장암종합	의정부시 장암동 5번지	0351)874-8081
경 기	92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광명시 철산2동 158	02)687-1543~4

시도	번호	기 관 명	주 소	전화 번호
경 기	93	부천시사회복지관	부천시 남구 상동 318-1	032)652-0420
	94	부천종합사회복지관	부천시 남구 소사2동 101-142	032)612-7300
	95	성남사회복지관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2957	0342)48-7151
	96	성남시민사회복지관	성남시 은행1동 2356	0342)42-5549
	97	수원연무사회복지관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60-34	0331)45-7576
	98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광명시 하안동 13단지 1303동	02)894-0720
강 원	99	원주카톨릭종합사회복지관	원주시 봉산2동 950	0371)44-6618
	100	원주종합사회복지관	원주시 태장1동 729-3	0371)732-4005~7
	101	춘천사회복지관	춘천시 근화동 601	0361)52-9112
	102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춘천시 효자1동 373-90	0361)54-7244
	103	춘천효자동종합사회복지관	춘천시 효자3동 333, 주공8단지	0361)262-2390
충 북	104	산남종합사회복지관	청주시 수곡동 169 산남주공2단지	0431)271-1428~9
	105	증평종합사회복지관	괴산군 증평읍 송산리 495-1	0445)838-2875
	106	청주사회복지관	청주시 영운동 209-6	0431)53-4493
	107	청주종합사회복지관	청주시 신봉동 32-1	0431)66-4761
충 남	108	대천종합사회복지관	대천시 대천동 618-9	0452)935-1669
	109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천안시 성정동 787	0417)552-3909
	110	홍성사회복지관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701	0451)32-2008
전 북	111	길보종합사회복지관	김제시 신풍동 88-22	0658)45-1923
	112	원광종합사회복지관	이리시 산동 423-1	0653)856-2385
	113	전북종합사회복지관	전주시 평화동 1가 304-1	0652)82-7230
전 남	114	나주종합사회복지관	나주시 축립동 88	0613)32-8991
	115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목포시 산정동 1749	0631)72-2671
	116	상동종합사회복지관	목포시 상동 300-1	0631)73-1142
	117	여수시종합사회복지관	여수시 미평동 산 20번지	0662)651-9460
	118	해남종합사회복지관	해남군 해남읍 해리 451-1	0634)34-6777
경 북	119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	구미시 황상동 110	0546)472-5060
	120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	김천시 대광동 1000-11	0547)33-6446
	121	포항종합사회복지관	포항시 대도동 632-11	0562)82-0100
경 남	122	경남종합사회복지관	마산시 구암동 31	0551)98-8600
	123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삼천포시 송포동 279	0593)34-4196
	124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	진주시 남성동 3-18	0591)43-9059
	125	진주평거종합사회복지관	진주시 평거동 329, 평거주공2단지	0591)746-5480~1
제주	126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제주시 체신청 사서함 41호	064)53-2740

* 자료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1993.

⑤ 가정봉사활동 전에 알아야 할 사전정보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단계로 이 부분에서는 노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파악과 봉사원의 봉사활동에 대한 마음 가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다음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 1) 파견목적을 확인한다. 노인이 어떤 욕구가 있어 파견되는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 2) 대상노인에 대한 정확한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에 대한 정보로서,
 - * 지금까지 어떠한 생활방식으로 살아왔는가?
 - * 신체적으로 질병 및 이상은 없는가?
 - * 가치관 및 성격은 어떠한가?
 - * 사물에 대한 이해 정도는 어떠한가?
 - * 경제상태 및 주거상태는 어떠한가?
 - *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이해하고 방문한다.

이와 같은 노인에 대한 정보는 기관의 담당 직원을 통하여 얻을 수 있으며 봉사자는 방문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대상 노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한 후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첫 방문시 봉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봉사활동을 하려고 처음 방문하였을 때 봉사원은 예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을 처음하므로 무엇을 어떻게 먼저 해야 하며 처음 방문시 복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난감해 할 것이다. 이에 이 부분에서는 봉사자가 노인댁에 처음 방문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 볼 것이다.

- 1) 노인에게(가족포함) 인사하고 봉사자 자신을 소개한다.
노인가정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봉사자는 다정하고 상냥하게 인사를 한 후 외부 방문자에 대한 노인과 노인가족의 의심을 풀어 주기 위하여 소속기관 및 봉사자의 이름, 활동사항 등에 대하여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 2) 노인과 친밀감 형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처음 방문시에는 노인과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친밀감 있는 자세를 보여 춤으로써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여 노인과 친해지려는 봉사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 3) 봉사원의 업무를 인식시킨다.
봉사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기관의 결정된 금지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에 이야기 해드린다.
- 4) 봉사자는 봉사활동 방문시 간편하고 청결한 옷차림을 한다.
 - * 복장은 활동하기에 간편한 차림으로 하여 방문자의 분위기에 맞추어 밝고 차분한 색으로 청결한 복장을 한다.
 - * 머리는 청결하게 하고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잘 다듬어야 한다.
 - * 손톱은 청결하게 다듬고 너무 짙은 화장이나 반지, 목걸이, 팔찌 등 화려한 악세사리 착용은 금한다.

⑦ 봉사활동 과정에서의 봉사자의 자세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나면 봉사원은 봉사활동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계획없이 손쉽게 해나갈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봉사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일을 추진할 수도 있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혼자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 쉽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봉사자의 봉사활동 과정에서 노인에게 접근해 가는 방법 및 활동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들에 대하여 살펴 보자.

- 1) 과전 전에 대상자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었어도 대상자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하여 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등에 대한 빠른 이해를 한 후 방문시 도움을 주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 2) 방문해서 봉사활동 중에는 피로를 노인에게 보이지 않도록 배려하며 무심한 자신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한다.
- 3) 봉사활동시 부담감을 가지거나 또는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봉사원의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욕구를 파악하여 조그마한 계획부터 세워 대상자에게 필요한 부담감 없는 일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보다 구체적인 욕구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활동해 나간다.
문제점을 파악하여 활동해 나갈 경우에는,
 - * 대상노인이 무엇을 문제시 하고 있는가?
 - * 문제가 되는 원인, 배경은 무엇인가?
 - * 어떤 방법의 해결을 원하고 있는가?
 - * 봉사원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한 후 봉사자 스스로 혹은 다른 직원에 의뢰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한다.

- 4)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무리를 하지 않으며 정한 일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한다.
- 5) 노인에게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노인을 원조해 가도록 한다. 초기에 가족은 본래 타인이 들어온 적이 없는 가정에 외부에서 들어 오는 봉사자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이 경우 봉사자는 가족과의 신뢰감이 형성되기까지 일어나는 갈등을 이해하고 이해롭게 대처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 6) 방문을 시작한 후 노인에 대한 상황이 파악된 시점에서 관련 기관과의 연락방법, 긴급한 경우 발생시 연락방법, 기타 가족과의 연락지 등을 기록하여 어떤 상황, 장소에서도 쉽고 신속하게 필요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기록노트를 휴대한다.
- 7) 노인 및 노인가족과의 금전 거래는 하지 않는다. 만약 물건 사기 등의 금전 출납관계는 가능한 영수증을 받아서 돈의 쓰인 용도를 정확하고 친절하게 설명한다.
- 8) 봉사활동 후에는 활동일지를 쓴다. 활동일지를 쓰으로써 자신의 업무를 확인하고, 다른 일의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기관의 활동일지 양식에 맞추어 성심성의껏 기록한다.
- 9) 노인의 욕구를 파악한 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료자원, 유료 자원 이외에 제도 등을 파악하여 노인의 생활과 연계한 후 재서비스의 연계도 생각해 본다.
- 10) 지역사회모임(부녀회), 사회복지사, 이웃, 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 의사, 종교단체 등과의 연계를 가짐으로 노인문제를 봉사원 한 사람이 모두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이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⑧ 대상 노인 및 가족과의 접촉시 유의점

대상 노인과 그 가족을 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응하여 협력관계, 신뢰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봉사활동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1. 대상 노인이 무력하며 자립심이 부족한 경우, 2. 가족의 무력으로 인한 비협조 관계, 3. 가족들과의 감정적 대립 등이다.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며 보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접촉을 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대상 노인과의 접촉시

- (1)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얼굴 높이에서 알기 쉬운 말로 이야기하며 전문용어, 외래어 등의 사용은 삼가한다.

- (2) 아무리 사소한 이야기일지라도 관심있게 들음으로써 본인의 의견이 수용되고 있음을 느끼도록 한다.
 - (3) 노인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화제를 이야기한다.
 - (4) 노인과 친밀감이 형성되었다고 반말, 지나친 농담 등을 사용하지 말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 (5) 본인이 없는 곳에서 홍을 보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삼가한다.
 - (6) 노인과 이야기 중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경우 노인의 비밀을 지켜준다.
 - (7) 노인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가치관 등으로 고집을 내세우거나 강하게 주장을 펼 경우, 쉽거나 틀리다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우선 노인을 이해하는 자세를 보이고, 천천히 노인이 이해하고 받아 들일 수 있도록 한다.
 - (8)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9) 봉사활동시 봉사원의 판단 만으로 처리하지 말며, 반드시 대상 노인에게 물은 후에 하도록 한다.
- 2) 대상 노인 가족과의 접촉시
- (1) 가족과 봉사원의 역할분담을 확실히 정해 둔다.
 - (2) 봉사원의 파견 이유,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항상 가족과 상의할 기회를 가진다.
 - (3) 대상 노인과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한지 파악해 둔다(문제 요인을 분석하며 보다 적절한 대응방법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
 - (4) 가족구성, 각각의 경력, 건강, 경제상태, 성격 등을 잘 파악해 둔다.

* 자료 : 이창희, 1992.

⑨ 봉사활동 일지

가정봉사원 성명							담당	부장	관장
가정봉사원 대상자									
봉사일시	1993. 2. 6(토) 맑음								
봉 사 내 용 란 에 V 표 시	가사 서비스		정서 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사회서비스		
	식사준비 및 취사 ()	식이요법 지 도 ()	생활상담 주 기 ()	책 읽어 기 ()	병원수행 체온맥박 측 정 ()	동화배급 수 령 ()	생활정보 제 공 ()		
	청소 ()	세 탁 ()	전화방문 ()	말 벗 ()	약품구입 ()	안 마 ()	행정서류 대 행 ()	이용시설 안내 ()	
	시장보기 ()	다림질 ()	편지대필 ()	산 책 ()	병 간호 ()	목욕보조 ()	시설입소 정보제공 ()	취미활동 조장 ()	
	잔심부름 ()	난 방 ()	외출수행 ()	고민상담 ()	재활운동 보 조 ()	위 생 관 리 ()	이웃관계 향상유지 ()	도시락 배달 ()	
	이불소독 ()	실내환기 ()	야 외 나 들 이 ()	친구초대 ()	이·미용 ()	약물복용 시 중 ()	부업알선 ()	후원자 연결 ()	
	생활상황 및 문제점	장기간 계속되는 병환이라 할머님이 매우 지치신 것 같다. 그러나 지난번보다 건강이 많이 좋아져 보여 기뻤다. 젊은 봉사자가 좀 더 가까이에서 자주 찾아 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나 혼자서 큰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 안타깝다.							
	견의사항	젊은 봉사자의 정서적 서비스의 연결을 의뢰함.							

재활용으로 복지를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량은 하루 평균 9만 2천여 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국민 한 사람이 매일 2.1kg 이상의 쓰레기를 버린 셈이다. 이 많은 쓰레기 중 재활용된 것은 불과 7.2%. 대부분이 땅에 묻히거나 태워지는 ‘1회용’ 생명으로 마감되었다. 많은 쓰레기는 곧 자원의 낭비를 의미한다. 덜 쓰고, 덜 버리고, 재활용하는 ‘작은 실천’으로 쓰레기를 ‘살아 있는’ 값진 자원으로 만들어야겠다.

1. 활동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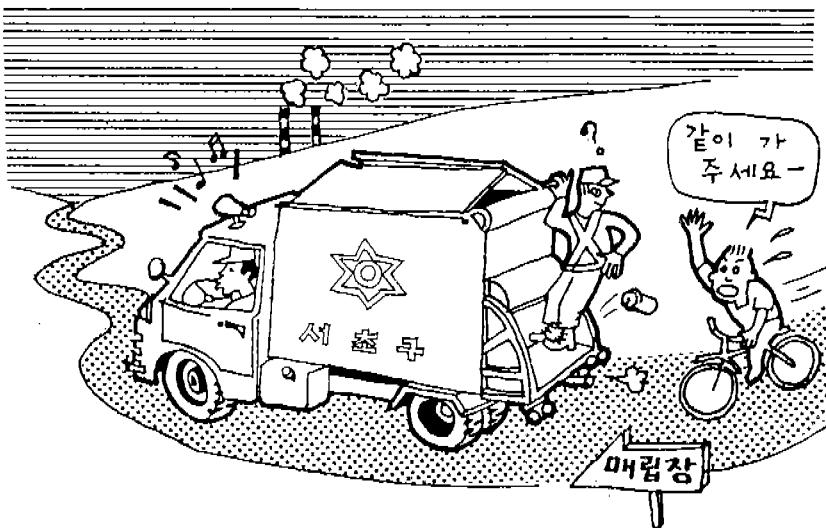
목표	쓰레기 매립장 견학을 통해 환경과 분리되어 살 수 없는 인간의 조건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쓰레기 재활용이 환경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배워 간단한 재활용활동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키면서 확산시켜 나간다.			
활동 과정	쓰레기 매립장 견학 쓰레기 매립현장을 방문하여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활용 실천의 동기를 유발한다.	우리집 쓰레기 부터 우리 가정부터 분리수거 상태를 조사해 보고 간단한 것부터 실천해 본다.	학교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분리수거 활동을 학교의 공동체적 활동으로 확장 실천하게 한다.	재활용으로 복지를 재활용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복지기금으로 활용하여 본다.

2. 활동 내용

과정 1 쓰레기 매립장 견학

주변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 현장을 방문하여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실천동기를 유발시킨다.

- ▷ 견학시 사진기나 VTR 사진기로 현장을 촬영해 학교에서 전시회를 갖고 쓰레기 배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한다.
- ▷ 환경전문가를 초빙해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들어보고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 소개받는다.



- ▷ 쓰레기가 일으키는 환경오염과 이를 위한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 본다(도움자료 ①②③).
- ▷ 재활용을 소개하는 VTR 작품을 감상한다(도움자료 ④).

과정 2 우리집 쓰레기부터

우리 가정부터 시작하여 쓰레기량과 분리수거와 재활용 상태를 조사해 보고 간단한 것부터 실천해 본다.

- ▷ 우리 가정에서 일 주일동안 어떠한 종류의 쓰레기가 어느 정도 (몇 봉지) 쏟아져 나오는지 조사해 본다.
- ▷ 현재 발생되는 쓰레기의 몇 할이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인가 ? 몇 할이 미생물로 분해되는 것이고 몇 할이 유독한 쓰레기인가를 측정해 본다.
 - ▶ 종이, 유리, 캔, 플라스틱 제품, 우유곽, 의류, 폐건전지 () %
 - ▶ 음식물 찌꺼기 () %
 - ▶ 합성세제, 자동차 기름, 비료, 인산비료, 유독성 물질 () %
- ▷ 우리 집에서 분리수거하거나 재활용하는 쓰레기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알아 본다.

- ▷ 우리가 마음만 가지면 손 쉽게 할 수 있는 분리수거부터 실천에 옮기고 한 주일간 실천한 내용을 기록하여 사례를 발표한다.
- ▷ 작은 실천 사례를 소개해 준다. 간단하지만 실천하기 쉽지 않은 재활용운동과 환경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친구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 본다(도움자료 ⑤⑥).

과정 3 학교 쓰레기의 분리수거

활동과정 2에서의 개인활동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공동체적인 활동으로 확장 실천하게 한다.

- ▷ 학교의 쓰레기장을 점검해 본다.
 - ▶ 아직 쓰레기가 되어서는 안될 것들은?
 - ▶ 재활용을 위해 분리수거가 가능한 쓰레기는?
 - ▶ 그러면 지금 쓰레기의 몇 할을 줄일 수 있을까?
- ▷ 우리가 할 수 있는 재활용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조사하여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짜고 실행에 들어간다.
 - ▶ 교과서 하급학생에게 물려주기
 - ▶ 캔 압착기로 빈깡통 감량화
 - ▶ 우유곽, 폐지교환으로 재생 화장지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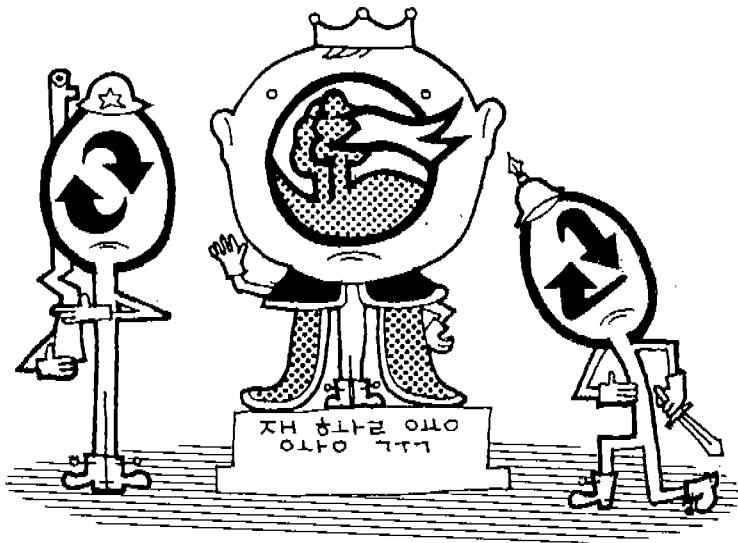


- ▶ 교실에서부터 폐휴지의 분리수거
- ▶ 재생지 공책사용
- ▶ 무공해 비누만들기(도움자료 ⑦)
- ▶ 물물교환을 위한 「되살이 시장」 개최
- ▷ 재활용운동을 위한 기금마련에 도움이 될만한 재활용품을 가정에서 가져와 함께 모아 본다(신문지+광고지, 우유곽, 빈병, 알루미늄 캔, 폐건전지 등).
- ▷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기단위로 학급별 「재활용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 ▷ 재활용활동을 위한 표어도 공모해 학생들의 인식을 돋고 참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글을 학교 게시판에 전시한다(예 : 신문 1년치를 모으면 아름드리 나무 한 그루를 살릴 수 있다).
- ▷ 이웃나라 학생들의 재활용 활동기를 소개해 주어 활동동기를 강화시켜 준다(도움자료 ⑧).
- ▷ 봉사반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재활용 수익금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해 유익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연구한다.

과정 4 재활용으로 복지를

재활용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어떠한 보람된 활동을 할 수 있나 연구하여 실천에 옮겨 본다.

- ▷ 제조한 무공해 비누는 청소용, 실험기구 세척용 등으로 사용하고 남는 것은 복지 시설을 방문할 때 선물로 가져가거나 「되살이 시장」 개최시 판매하여 수익금에 보탠다.
- ▷ 환경정화수를 사서 학교나 지역사회에 심어 자연을 되살린다.
 - ▶ 대상나무 : 은행나무, 플라타나스, 노티나무, 오동나무, 벚나무, 참나무, 감나무 틀립나무, 밤나무, 목련, 매화나무, 상수리나무
 - ▶ 장소 : 도로변, 공단주변, 주거지역, 학교주변
- ▷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학교의 비품을 구입한다.
- ▷ VTR 작품 등 환경교육을 위한 자료를 구입하는데 사용한다.
- ▷ 유니세프나 저개발국가의 어린이들을 위한 자선기금으로 보낸다.



- ▷ 한 학기 또는 일년 단위로 활동경과보고를 학교신문이나 학교 게시판 그리고 학교방송 등을 통하여 정확하게 공고한다.

3. 유의사항

- ▷ 성공적으로 재활용운동을 하고 있는 학교의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여 참고한다(도움자료 ⑨).
- ▷ 지도자간에 만남의 시간을 주기적으로 마련하여 새로운 지식과 효율적인 활동기술 등 다양한 정보를 서로 나눈다.
- ▷ 재활용활동의 수익금은 정확히 기록되어야 하며 회계담당 청소년과 지도자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회원들에게 정기보고 되어야 한다.

4. 도움자료

① 나와서 갈 곳 없는 산같은 쓰레기

심천리 반도 어디나 쓰레기 동산.

우리 나라의 쓰레기량은 '92년 현재 한 사람이 하루에 내놓는 쓰레기량이 1.8kg에 이르고 있습니다(환경처). 이는 지난 '90년까지만 해도 평균 2.3kg이었던 데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양이지만, 미국 1.3kg, 일본 1.0kg, 독일 0.9kg 등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나라는 산더미같이 나온 생활 쓰레기의 90%를 주로 매립처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결국 4톤 트럭으로 2만대 가까운 분량의 쓰레기산이 하루에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으며 연간으로 치면 여의도 63빌딩 40개 정도 크기에 해당합니다.

* 자료 : 대한YMCA연맹, 1993.

② 쓰레기가 일으키는 환경오염

쓰레기는 막대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쓰레기 매립장은 쓰레기에서 나오는 더러운 물(침출수)로부터 지하수의 오염을 막는 차단벽이 설치 되지 않은 단순매립지입니다. 문제는 쓰레기 매립을 위해 매년 약 150만 평의 국토가 잠식당하고 있는데, 토지의 재한성과 지역 주민들의 환경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매립장 확보가 갈수록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몇 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많은 쓰레기는 유기체인 땅의 숨구멍을 막아버릴 뿐 아니라, 썩어가는 쓰레기는 분해되면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각종 별례(미생물)를 발생시키고 각종 유독한 중금속 성분을 방출하여 땅을 오염시킵니다. 쓰레기를 소각처리 할 때 나오는 연기 속에 함유된 염화수소나 염소가스, 다이옥신 등은 대기를 오염시키고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해를 미치기도 합니다.

* 자료 : 대한YMCA연맹, 1993.

③ 쓰레기 줄이기의 첫걸음은 절약(Reduce)과 재사용(Reuse)

쓰레기 대책으로는 절약하고 재사용하는 생활을 통해 쓰레기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최선책이고 그 다음으로는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단계별로 쓰레기를 감량화하고 재활용하는 것이다. 재활용품 수거활동을 우리 집, 우리 학교에서 시작해 본다. 종이를 종이로, 유리를 유리로, 알루미늄을 알루미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은 지원절약 뿐 아니라 쓰레기를 줄이고 공기, 물, 땅의 오염을 줄이는 일이기도 하다.

- 한 번 산 물건은 아껴 쓰고 절약하는 습관을 갖는다.
- 새 것을 살 때는 될수록 현 것도 취급하는 상점을 택한다.
- 튼튼하고 견소한 것을 구입하여 가능한 한 오랫동안 소중히 사용한다.
- 입을 수 있는 현 옷은 알뜰시장에 내놓거나 이웃과 교환해서 재사용 한다.
- 고장난 가구, 가전제품 및 일상용품은 수리해서 다시 쓴다.
- 사용기간이 짧은 가구(어린이용 침대, 보행기 등)나 가전제품은 이 옷, 친지들과 교환해서 쓴다.
- 백화점에서 얻은 봉투는 몇 번이고 다시 이용한다.

재활용품 분류·보관요령 – 모으면 이렇게 다시 태어납니다

품 종 별				
종 이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문, 현책, 박스, 포장지 ·우유팩, 음료수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문, 책, 박스 등으로 구분 30cm 높이 끈으로 묶음 ·종이팩류는 쟁어 평면으로 잘라 말린뒤 묶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판지 상자: 골판지 상자 ·신문: 신문용지 / 포장상자 ·잡지: 엘범, 그림책 표지, 포장상자 ·우유팩(40개): 화장지
캔 철 류	알미늄캔 철 캔 가스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맥주캔, 음료수캔 ·쥬스캔, 음료수캔, ·부탄가스용기, 라이터 가스 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캔류는 세척하여 쭈그리뜨림 ·가스용기는 구멍을 뚫은 뒤 쭈그리뜨림 	
고 철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텐그릇, 수저, 냄비, 동파이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고철과 스펜 등으로 구분 	
병	청색병 갈색병 무색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다병, 소주병 등 ·음료수병, 약병 ·맥주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물을 비운뒤 뚜껑 제거 ·색깔별로 분류 	
플라스틱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료품통, 삼푸통, ·요구르트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통, 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포대류는 접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플라스틱 음료수병, 우유병, 물통, 수도 미터기 보호통, 정화조 등 가용용기, 토목·건축·어업·농업 용 자재

* 자료: 대한YMCA연맹, 1993.

④ 쓰레기 오염 VTR 자료

제 목	제작	제작년도	시간
환경기획 : 쓰레기 줄여야 한다	KBS	91	50분
환경기획 : 일본의 쓰레기 제로작전	KBS	91	50분
환경을 지킵시다(2) : 유폐폐기물 불속에 살고있다.	KBS	91	50분
쓰레기 1, 2	EBS	92	각각5분
생활쓰레기	EBS	92	5분
흙이 되려면 얼마나 걸리나	EBS	92	5분
하나뿐인 지구 : 쓰레기 분리수거 1, 2	EBS	91	각각5분
나누어 버려야할 쓰레기	EBS	93	20분
하나뿐인 지구 : 이 땅이 죽어간다 심각한 비닐공해	EBS	91	5분
하나뿐인 지구 : 알루미늄	EBS	91	5분
하나뿐인 지구 : 일회용 종이	EBS	91	5분
하나뿐인 지구 : 썩지 않는 오염물질 스티로폼	EBS	91	5분

* 자료 : 대한YMCA연맹, 1993.

⑤ 나 하나 쯤이야

그동안 우리는 ‘늘푸른 평화’ 쪽지와 대중 매체 그리고 많은 환경 단체들을 통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환경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듣고 배워왔다. 하지만 아직도 ‘나 하나 쯤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듯하다. 물론 환경을 위한 실천(우유팩 재활용, 비누로 머리 감기 등)은 편한 것에만 길들여져 있던 우리에게 무척 귀찮고 힘든 일이다. 그래서 처음엔 누구나 잘 되지 않고 힘이 든다. 나도 처음에 우리 가족들을 설득시켜 환경의식을 심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 하지만 계속 노력 한 끝에 마침내 우리 식구들은 나와 생각을 같이 하고 환경살리기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다. 우리 집은 비누로 머리 감기, 우유곽 수집, 빈병 캔 종이 재활용, 폐건전지 수집, 일회용품 안쓰기, 세제 사용 줄이기 등 작은 실천을 하고 있다. 특히 내 방에 두 개의 상자를 두어 각각 폐휴지 상자와 재활용 종이 상자로 쓰고, 우유곽 모으는 상자도 따로 배치해 이용하고 있다. 상자를 이쁘게 꾸며서 보기에도 좋고 정리도 잘 되어 참 편하다. 또 며칠 전부터 소금으로 양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잇몸이 쓰라리고 입에 맞지 않아 무척 힘들었다. 이런 일을 처음 할 때 무척 귀찮고 힘들고 포기하려 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그렇지만 내 가 힘들게 모은 우유곽이 재생 화장지로 바뀌어 지고 신문이나 방송에

서 환경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가 환경을 살린 듯한 마음에 얼마나 뿌듯하고 기쁜지 모른다.

한 외국 여성이 우리 나라 여성들을 보고 두 가지 놀랐다고 한다. 첫번째는 우리 여성들이 우유로 목욕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목욕하고 쓴 우유팩을 씻어 재활용 하더라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라. 과연 이것이 올바로 알고 한 일인가?

물을 더럽혀 놓고 우유팩을 재생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환경을 살리는 것도 올바로 알고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올바른 마음으로 환경을 살린다면 환경은 머지 않아 다시 눈을 뜰 것이다. 그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모두가 조금씩만 노력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 자료 : 늘 푸른평화, 1994.

⑥ 쓰레기장에서 주운 크레파스

며칠 전 우리집 큰 아이가 무엇인가 한아름 안고서 집으로 헐레벌떡 들어왔다. 가져온 것을 보니 새 것이나 다름 없는 크레파스, 국민학교 3학년 교과서, 공책 등이었다. 나는 어떤 아이가 잊어버린 물건이려니 생각하고 얼른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말했다. 그러자 우리 아이는 “엄마가 물건을 주워오면 안된다고 한건 알지만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길래 아까와서 주워 왔어요.”라고 하면서 “이런 것도 가지면 안되나요?”라고 물었다. 순간 나는 기분이 몹시 우울했다. 내 아이가 다 쓴 크레파스를 내보이며 날마다 새로 사달라고 졸랐지만 조금 더 쓰라고 달래던 참이었기 때문이다. 쟁쟁한 심정으로 “다시 갖다 놓으면 청소차가 싣고 갈테니 그냥 가져라”고 하니 크레파스를 이리보고 저리보고 하면서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자기가 쓴 크레파스를 선듯 동생에게 물려주는 것이었다. 얼마 전에 나도 시장바구니로 안성마춤인 천가방을 주운 일이 있다. 시장가방이 작아서 새로 살까 생각하면서 쓰레기통 옆에 근사한 천가방이 나뒹굴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옆에서 놀던 우리 아이가 “어떤 애가 슈퍼에 빈병을 담아 가지고 왔다가 버리고 가길래 가져가라고 하니까 필요없다고 하던대요”라고 밀했다. 나에게는 이렇게 훌륭한 가방이 어떤 이들에게는 버려도 그만이라니… 하지만 오늘도 나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 천가방을 메고 시장을 다녀올 것이다.

* 자료 : 늘 푸른평화, 1994.

⑦ 무공해 비누만들기

1) 그릇에 가성소다 270g을 넣고 물 0.5 ℥를 살며시 부으며 막대기로 젓는다.

2) 가성소다가 녹으면 1.8 ℥의 폐식용유를 살며시 끓는다.

Ⓐ 가성소다는 극약이므로 꼭 면장갑이나 고무장갑을 끼고 피부나 옷에 튀지 않도록 주의한다(가성소다가 피부에 스쳤을 경우, 물로 깨끗이 씻은 후 소금물로 씻는다).

Ⓑ 가성소다와 물의 넣은 순서가 바뀌면 순간적으로 반응, 고열을 내고 용액이 밖으로 튀는 수가 있다.

Ⓒ 자극성 냄새가 나므로 반드시 옥외에서 만든다.

3) 막대기를 사용하여 약 30분 정도 같은 방향으로 젓는다(기름의 산ぱ 정도에 따라 시간차가 있다.).

4) 반응열이 없어지고 끈기가 생기면(유화상태) 우유팩이나 상자에 끓는다.

5) 현 신문지로 일주일 정도 덮어두면 비누형태가 된다.

6) 알칼리가 강하므로 일 개월 정도 숙성시킨 뒤 사용하면 좋다.

⑧ 알루미늄 캔 회수로 학교를 세운다

1) 시작

평성원년 가을, 당시의 3학년이었던 보건부장 A군이 “400만원으로 네 팔의 어린이들에게 학교를 세워주면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다. 우리 손으로 알루미늄 캔을 수거하여 학교 설립을 위한 모금을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했다. 그 학생은 여름 방학 동안에 근처의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고 센터의 관계자는 우리에게 말했다. A 군의 제안은 보건부회를 거쳐 학생회의 평의회에 상정되어 전교생의 협력으로 활동이 전개되어 현재(평성 3년)에 이르렀다. 본교의 이러한 활동은 학생의 제안에 의한 학생들의 주체적인 활동으로 권장되고 있으며 교사들도 이 활동을 조건부로 지원하고 있다.

2) 활동의 상황

(1) 활동의 주체

평성원년에는 학생들 중 보건부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근처의 단지, 공원, 노상 등에 버려진 알루미늄 캔을 수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어느새 전교생이 자택이나 근처에서 수거한 알루미늄 캔을 지참하고 등

교하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 수거된 캔은 압축시켜 비닐 봉지에 밀봉된 후 일정량이 되면 회수업자에게 전네진다.

1년후 이 활동은 소수의 학생들에 의한 비조직적인 활동이라고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학생회와는 별도로 자원봉사회를 설치하여 뜻있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으며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활동을 공고히 하였다. 자원봉사회는 정례 활동일인 매주 수요일에 자율적으로 수거작업을 하고 있다.

(2) 지역의 지원

학생들의 활동이 근처의 시민들에게까지 홍보되어 이 활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속속 늘기 시작했다. 특히, 휴만구 구민 및 구내에 위치한 직장에서는 이 활동에 적극 동참했다. 심지어 타교의 학생들이 용돈을 절약해 보내주는 일과 익명의 부모로부터 송부된 ‘학생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는 일까지 생겼다. 이와 같은 주위의 성원으로 이 활동은 3년간 지속되었다.

(3) 교사의 지원

교사는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만을 한다. 활동이래 1명의 담당 교사와 5명의 교사로 구성된 지원조직이 활동을 지도하였다. 특히, 자금관리는 교사 또는 PTA 역원에 의해 엄격하게 정기감사가 행해진다.

3) 과제

- 학생들이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키 위해 교사들은 어떤 연구와 노력을 할 것인가?
- 자원봉사활동은 뜻있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활동이며 이에 가입하는 것은 자유이다. 자원봉사를 하는 학생들간에 동료애를 느끼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학생들에게 개방된 활동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 자료 : 동경자원봉사센터, 1992.

⑨ 대전 성모여고의 자원 재활용 사례 소개

활동명	활동내용	활동의 성과
무공해 비누 제조 사용 및 제조법 보급	<p>1990년 3월부터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매월 평균 60ℓ의 폐식용유를 통닭집, 뒤김집 등에서 수거하여 가사 실습실에서 청소 시간에 결스카웃 학생들이 주당 500장씩 매월 약 2천장의 순수 유지 일칼리만을 사용한 무공해 비누를 제조하고 있다. 제조한 무공해 비누는 청소용, 설협기구세척용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것은 매년 5월과 11월에 열리는 바자회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공해 비누 종류 무공해 고체비누, 무공해 푸딩비누, 무공해 세탁기용세제 3종 * '90년 3월부터 '94년 3월까지 실적 - 제조총량 : 80,000장(연 20,000장x4년) - 판매수익총액 : 9,600,000원 (연 240,000원x4년) 	본 내용이 '92년 9월 16일자 중도일보와 '93년 11월 1일자 조선일보에 홍보된 후 각급 학교, 기관으로부터 제조법을 문의해 오고 있어 무공해 비누 제조법 보급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캔 압착기 활용으로 감량화 운동 선호	<p>빈 깡통을 수거하여 각 학급 당번학생이 망치로 두드려 압착하던 것을 '93년 10월초 대전 엑스포 번영관에서 캔 압착기 1대를 구입한 후부터 4명 1조로 편성된 자원 활용반 학생들이 청소시간에 빈 깡통을 매월 70~80kg씩 쉽게 빨리 압착하여 쓰레기 감량화 운동에 솔선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거 총량 : 320kg * 판매수익총액 : 2,000,000원 * 복지시설 : 책꽂이 4대, 신문대 3대 구입비 총액 : 490,000원 	이를 자원 재생공사에 매각하여 연간 5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 며 '93년도에는 이 수익금으로 간이 서가, 열람대 등을 구입하여 학생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전교생 재생공책 주문 사용	<p>'90년부터 매년 재생지를 사용한 공책 2만권을 주문 제작하여 학교 매점에서 학생들이 자율의지로 구매 사용하도록 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회사 : 신진노트사 * 재생공책 소비총량 : 80,000권 (연간 20,000x4년) * 1권당 가격 : 300원(40장) * 시중가와의 대비 : 시중공책 1권에 350원(32장) 재생공책 1권에 300원(40장) 	시중의 일반 공책보다 값이 싸고 공책의 질도 큰 차이가 없을 뿐 더러 학교를 상징한 디자인이 에교심과 친근감을 유발하여 천이 백여명의 전교생이 주문 제작한 재생공책 전량을 구입 사용하고 있다.
우유곽 모아 재생화장지와 교환사용	본교 24개 학급마다 우유곽 수거용 상자를 구비하여 주고 매일 학급에서 수거한 우유곽을 전교 수거함에 모아 학생 4명과 교사 1명으로 구성된 전교 우유곽 수거반이 매일	연간 재생 화장지 1,200개와 교환하여 교실 및 화장실 등 교내 사용 전량을 공급한다.

활동명	활동내용	활동의성과
우유곽 모아 재 생화장지와 교환사용	수거된 우유곽을 셋고 폐서 말린다. * 우유곽 수거 총량 : 12,000kg (연간 3,000kgx4년) * 교환 화장지 총량 : 4,800개 (연간 1,200개x4년) * 우유곽 수거 수익금 총액 : 816,000원 (연간 204,000원x4년)	
교실에서부터 폐휴지 분리수거	'91년부터 각 교실에 불용 쓰레기장을 버리는 통과 재활용 폐휴지 수거용 통을 분리 설치하여 놓고 재활용 가능한 폐휴지를 매일 따로 모아 당번이 청소시간에 학급에서 수집된 폐지를 전교 보관창고에 옮겨 수거한다. * 수거총량 : 50,000kg * 판매수익총액 : 250만원	'93년도 15,013kg을 수거, 매각한 결과 710,365 원의 실적을 올렸다.
순환클럽 활동 환경 교육프로그램 지도	'90학년부터 학교 환경교육의 방향을 환경 보호 학생들의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환경 보전 의식의 행동화를 통한 습관 형성으로 선정하고 이를 실천키위해 클럽 활동반에 환경보전반을 편성하여 본교에서 구안한 "순환클럽활동 환경교육 프로그램" 모델을 적용한 클럽활동 학습을 매 학년 실시한다. * 대상학년 : 1, 2학년 * 이수시간 : 6시간(주당 2시간씩 3주교육)	학생들의 환경보전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있다.
3R 운동의 생활습관 정착	순환 클럽활동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학습 현장 적용 및 교과별 환경 관련 단원의 체계적, 심층적 지도로 환경 보전 의식을 고양하고 매월1회 동 학년 학급간의 폐휴지, 우유곽, 빈 캔 모으기 등 실천위주 환경보전운동 실적대비시상, 재생공책 쓰기, 무공해 비누 쓰기 등 재활용품 사용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감량화(Reduct)운동의 생활습관이 정착되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원제활용운동의 생활화	무공해 비누 제조 사용 권장, 재활용품 분리 수거 등 동학년 학급간 매월 환경보전 활동 실적 대비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시상 등 지속적인 실천행동을 강화했다. * 폐 건전지 수거 총량 : 122kg * 우수학급 학교장 표창 : 학기별 1회 3학급	수시로 가정 또는 생활 주변의 재활용, 폐기물, 전전지를 수거해와 전교생이 환경 보전 운동을 생활화 하고 있다.

* 자료 : 대전 성모여고 봉사부, 1994.

IV. 평가 프로그램



사랑 나누기 대회
봉사활동 이미지 촉정

사랑 나누기 대회

우리는 학교나 사회에서 흔히 선의의 경쟁이라 말하며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을 차지하고 더 많은 청송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이러한 경쟁과는 상반되는 가치를 지닌 것이지만 이 활동을 누가 더 잘하나, 더 많이 하나를 재어 본다면 청소년들은 선의의 경쟁이 진정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 활동 과정

목표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손쉽게 할 수 있는 작은 봉사활동에 젊은이다운 참신한 아이디어를 담아 주위의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여 즐거움 속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해 보도록 한다.			
활동 과정	행사계획 행사진행을 위한 총괄적인 계획을 짠다.	포스터작성 및 홍보 활동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포스터를 제작하고 홍보활동을 전개 한다.	봉사지를 향하여 각자의 봉사지에서 활동하면서 활동일지를 작성하게 한다.	시상 및 사례 발표 우수작품을 시상하고 잘된 작품은 그 사례를 발표하게 하여 활동의 확산에 기여하게 한다.

2. 활동 내용

과정 1 행사 계획

행사진행을 위한 총괄적인 계획을 짠다.

- ▷ 우선 진행위원회를 구성한다. 진행을 이끌어 줄 지도자와 청소년 대표들을 선발한다.
- ▷ 행사기간을 정한다. 청소년들의 시간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사시기와 기간을 정한다.
- ▷ 행사절차를 정한다.
 - ▶ 행사명칭 선정
 - ▶ 자원봉사활동 경연대회 홍보
 - ▶ 자원봉사활동 참가신청 접수

- ▶ 활동 및 활동보고서 작성
- ▶ 활동보고서 제출
- ▶ 활동평가 및 활동사례발표
- ▷ 활동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한다.

과정 2 포스터 작성 및 홍보

활동의 취지와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포스터를 제작하고 많은 사람의 참여를 유발시킬 수 있는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 ▷ 정해진 행사명칭과 취지를 알리고 포스터를 공모한다(도움자료 ①).
- ▶ 행사의 취지
- ▶ 경연일 및 장소
- ▶ 신청접수마감일
- ▶ 참가형태
- ▶ 봉사분야(도움자료 ②③)
- ▶ 시상내용

- ▷ 집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시할 포스터를 선정한다.
- ▷ 게시판이나 교내방송, 종례시간을 통해 공고한다.
- ▷ 참가신청을 받는다(도움자료 ④).
- ▷ 신청받은 봉사활동 종류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게시한다.

과정 3 봉사지를 향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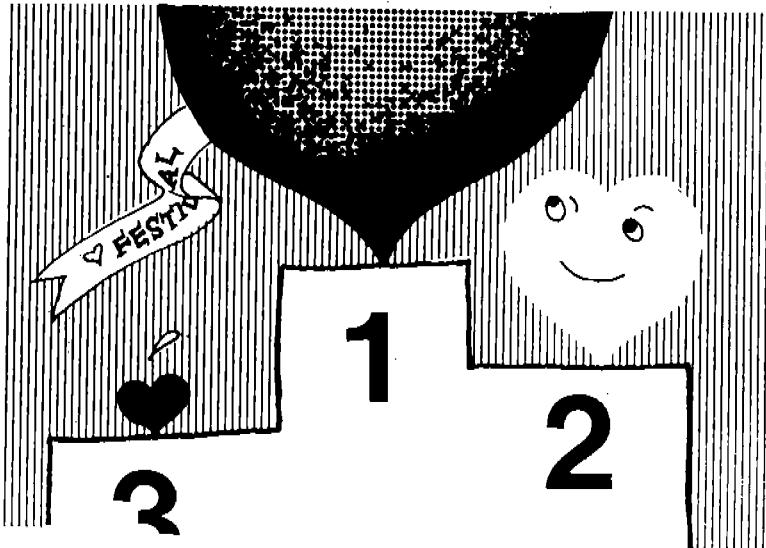
각자 봉사지에서 활동하면서 활동일지를 작성한다.



- ▷ 봉사활동을 떠나기 전에 기록과 사진을 담당할 사람을 정한다.
- ▷ 활동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기록자는 기록한다.
- ▷ 활동후 활동보고서와 행사기록사진을 제출한다(도움자료 ⑤).

과정 4 시상 및 사례발표

활동보고서를 토대로 평가하여 우수작품을 시상하고 몇몇 잘된 사례를 발표하게 하여 활동의 보급에 기여하게 한다.



- ▷ 제출된 활동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 ▶ 지역사회 공헌도
 - ▶ 자원봉사 아이디어의 창신성
 - ▶ 봉사활동구성 및 진행방법
 - ▶ 자원봉사내용의 과급효과
- ▷ 심사위원은 봉사활동 지도자와 활동을 진행하는 청소년 자신들 그리고 봉사활동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 ▷ 선정된 활동에 대한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봉사활동의 질적향상을 도모한다.
- ▷ 상품은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시 사용되도록 한다.

3. 유의사항

- ▷ 각 활동그룹 안에는 봉사활동의 경험이 있는 활동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 ▷ 지도자는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 분야에 대한 정보를

준다(도움자료 ②).

- ▷ 지도자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경우 봉사지와 연결시켜 준다.
- ▷ 봉사활동참여를 승낙하는 부모님의 승낙서를 받아 둔다.
- ▷ 학교나 단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준다.

4. 도움자료

① 팜플렛 제작의 일례

▶ 행사명칭 : 전국 자원봉사 경연 대축제

자원봉사에 대한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의상, 도구, 분장을 재미있게 하여 축제를 연출해 주세요.

• 경연일 및 장소 94년 11월 26일(토) ~ 27일(일)

• 신청접수마감 94년 11월 24일(목) 중앙일보 자원봉사사무국

TEL : 751-9066 FAX : 751-9688

• 참가형태 개인, 가족, 친구, 교회, 사찰, 학교, 기관, 단체, 직장

• 봉사분야 복지, 환경, 의료, 교육, 고통, 보호·선도 등 각 분야

• 시상내용 최우수상 1팀 : 100만원 우수상 10팀 : 각 30만원

장려상 30팀 : 각 20만원

* 단 상금은 수상자가 지정하는 비영리 기관에
기탁토록 함

• 시상 및 자원 94년 12월 20일(화) 오후 2시 정총체육관

봉사자 초청 ◇ 주최 : 중앙일보, KBS, 한국방송공사,

◇ 협찬 : 삼성복지재단, 제일은행

▶ 행사의 취지 :

바로 지금 우리가 봉사에 나설 때입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의 과정을 겪으며
최근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개인주의의 심화,
규범상실, 공동체 해체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사회의 각종 어려운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우리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국민 개개인, 가족, 친구들, 서클모임, 학교, 직장단위로 모두가 이

웃과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해결을 위하여 이날 하루만이라도 나서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손쉽게 할 수 있는 작은 봉사부터 시작해 봅시다.

▶ 행사의 의미 :

자원봉사경연축제는 무슨 행사인가

- 이 행사는 자원봉사의 공적을 가리기 위한 행사는 아닙니다. 이날은 전 국민이 모두 한번 봉사에 참여하여 봉사의 즐거움과 자원봉사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 행사는 자원봉사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유형개발에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 참가대상은 남녀노소, 인원수 등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 개인, 가족, 서클, 친구모임, 단체, 기관, 학교, 교회(각 신도단체), 사찰, 직장 등 다양한 단위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금 어디에선가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은 평소의 봉사를 좀 더 강화된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여 이 축제에 참여하세요.
- 처음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분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멋있고 재미있게 계획하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양한 의상, 분장, 도구를 가지고 재미있게 행사를 꾸며서 봉사의 즐거운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 평가는 봉사내용의 지역사회 공헌도, 아이디어의 참신성, 구성 및 진행방법, 축제 분위기, 그리고 봉사내용의 확산효과입니다.

▶ 자원봉사분야 :

어떤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나

- 지역사회 : 놀이터 시설물 보수, 유적보호, 빈민구제활동, 도시문제활동 등
- 보건·의료 : 진료, 간병, 위생, 예방등
- 오락·체육·문화 : 위문공연, 놀이, 관광안내, 박물관안내 등
- 캠페인 : 교통질서, 범죄, 마약추방, 윤리, 도덕운동캠페인, 소비자운동, 청소년유해시설퇴치 등
- 사무보조 : 공공기관, 복지, 문화기관 등에서의 사무보조
- 사회복지시설방문 : 어린이, 노인, 장애인돕기 및 위문 등
- 거택보조 : 노인, 장애인 심부름 및 가사돕기
- 교육 : 청소년 선도 및 학습지도, 심신훈련지도 등
- 환경 : 청소, 미화, 공해방지활동 등
- 기타 : 긴급구호 등 각 분야

▶ 심사기준 및 시상 :

심 사	<p>1. 평가방법</p> <p>가. 행사 당일의 자원봉사 활동보고서 및 활동스틸사진 5매참조, 평가</p> <p>나. 접수된 활동보고서를 근거로 1차, 2차에 걸친 평가심사후 최종선발</p> <p>다. 평가기준</p> <p>1) 지역사회 공헌도 2) 자원봉사 아이디어의 창신성 3) 봉사활동구성 및 진행방법 4) 자원봉사 내용의 파급효과</p> <p>2. 심사위원 :관련기관 및 단체관계자, 언론인, 협찬사, 청소년지도자, 연예인, 학계인사 등 다수로 구성</p> <p>3. 발표 :중앙일보 12월 10일(예정)</p>
시 상	<p>1. 범위 :최우수상 – 1팀(100만원) 우수상 – 10팀(각 30만원) 장려상 – 30팀(각 20만원)</p> <p>2. 상금은 수상자가 지정한 비영리기관 및 단체에 기증토록 함</p>

▶ 행사참여방법 :

자원봉사경연축제에 참여하시려면

- 94년11월19일까지 참가신청서(소정양식)와 별지에 자세한 봉사 계획, 특기사항 그리고 봉사장소의 약도를 기입해서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세요. 신청서는 뒷면의 양식을 활용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 신청서를 보내주신 분께는 즉시 자원봉사 배지와 스티커, 그리고 활동보고서(소정양식)를 보내드립니다.
- 행사예정 당일 봉사를 마치시고 활동보고서와 함께 꼭, 당일 촬영한 스틸사진(5매이상)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서 마감일 : 1994년 11월 24일(목)
 - 활동보고서 마감일 : 1994년 12월 3일(토)
 - 보낼곳 : 서울시 종로구 순화동 7번지 중앙일보
 자원봉사사무국 우)100-759
 TEL) 02 - 751 - 9066
 FAX) 02 - 751 - 9688

* 자료 : 중앙일보 자원봉사 사무국, 1994.

② 청소년 봉사활동 프로젝트 목록

다음의 목록들은 전국 청소년 지도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만들 계획에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 ▶ 자전거 수리점 : 문제아들에게 젊은이들이 운영하는 수리점에서 자전거 혹은 작은 엔진 등을 고치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것.
- ▶ 큰 형/누나들 : 지지와 지도(guidance)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큰 형들”로서 행동하는 것.
- ▶ 위원회 참여 : 비영리 그리고 정부의 의사 결정 혹은 조언적인 위원회에서 봉사하는 것.
- ▶ 건축 : 집, 공공 설비, 공원, 놀이터, 학교 기재, 혹은 다른 구조물을 건축하는 것. 담장 혹은 다른 일시적인 구조물들을 쌓는 것.
- ▶ 의복 수집 : 사회 단체를 위해서 의복, 음식, 장난감 혹은 다른 물품들을 모아주는 것.
- ▶ 지역사회 교육 교실 : 일반 사람들에게 컴퓨터나 무용과 같은 공연예술들을 가르치는 것.
- ▶ 지역 역사 : 구전 역사 혹은 지역사회를 위한 다른 역사 프로젝트 연구가들은 또한 책이나 비디오 혹은 역사적 사건들을 실연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그 정보들을 제시할 수 있다.
- ▶ 식사 준비 : 무료 배식소 혹은 지역사회 만찬을 위해 식사 준비하는 것.
- ▶ 위기 센터 : 매맞는 부인들을 위한, 혹은 긴급 수용소의 직원들을 도와주는 것.
- ▶ 유아원 : 유아원, 유치원, 매맞는 부인들을 위한 대피소와 같은 시설에서 어린애들을 돌봐주는 것.
- ▶ 응급 서비스 : 적절한 훈련을 통하여, 자원 엔블런스 서비스에서 응급처치원으로서 의료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 산불과 싸우는 것, 홍수를 막기 위하여 제방을 쌓고 모래 주머니를 만드는 것.
- ▶ 환경 연구 : 수질이나 산성비 등 환경적인 연구를 하는 것.
- ▶ 환경 보호 : 강, 호수, 공원, 산 등을 깨끗하게 만들거나 환경을 미화하는 것.
- ▶ 기금 모금 : 자선을 위해, 혹은 다른 프로젝트를 위해 기금을 모금하는 것.
- ▶ 정원 : 지역사회를 위해 정원을 만들고 돌보는 것.
- ▶ 지체 부자유자 : 매일, 혹은 매주 지체부자유자로서 집에 훌로 갇혀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여 그들이 잘 있는지 점검하는 것, 혹은 그들

을 위해 심부름을 해 주는 것.

- ▶ 잡일 해주기 : 혼자사는 노인들, 장애자들을 위해서 집에 페인트 칠 해주고, 화재 방지기 점검하고 갈아주고, 무거운 물건 옮겨주고, 혹은 기타 다른 일들을 해 주는 것.
- ▶ 긴급 통신망 : 긴급 전화 혹은 다른 정보 통신에서 서비스하는 것.
- ▶ 차 배달 :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식사, 장난감, 혹은 구호품 등을 차로 배달하는 것.
- ▶ 해외 봉사자들 : 제 3세계에 가서 곤란한 사람들을 위해 의료 서비스, 학교 세우기 혹은 다른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는 것.
- ▶ 거대한 규모의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젝트들을 조직하고, 자선을 위한 기금을 모으는 것.
- ▶ 동무 도우미들 : 의사소통, 연락처 그리고 다른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한 후:
 - 신입생들에게 학교 오리엔테이션(소개)
 - 학교 상담교사에게 위임을 받아 문제가 있는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것
 - 특수 교육 학생들과 “형아들”로서 짹 짓기
 - 학과목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게 개인 교습 동료로서 역할
 - 길등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
- ▶ 예술 공연 : 아동들을 위해 음악, 연극, 댄스, 인형극 그리고 다른 예술들을 공연하는 것. 이 공연들이 청중들로 하여금 상호작용할 수 있게 만들면 최선인 것이다.
- ▶ 식목 : 나무나 관목, 꽃 혹은 다른 식물들을 심는 것. 야생초 혹은 다른 동물들이 깃들도록 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 ▶ 계몽 : 건강에 관한, 현재 사건들, 공공 안전,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안전들, 학술적 혹은 다른 주제들에 대한 정보를 비디오, 예술, 강연, 책, 혹은 체험적 활동들을 통하여 아동들에게 알리는 것.
- ▶ 대중 매체 : 쪽지, 신문, 유선 TV 프로그램, 혹은 다른 대중 정보원을 생산해 내는 것.
- ▶ 맹인을 위해서 책 읽어주기 : 맹인들을 위해서 인쇄물들을 읽어주는 것.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 ▶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 자기보다 나이 적은 아이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혹은 야외 교육 프로그램을 조직하는 것.
- ▶ 재활용 : 재활용에 대한 홍보와 재활용품들을 모으고 분류하고 재생

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것.

- ▶ **연구 조사** : 비영리조직 혹은 공공단체에 대한 정보들을 연구하는 것.
예) 가구 당 쓰레기나 재활용품 조사, 야생조 세기, 지역사회 범죄 통계 모으기, 그들에게 필요한 봉사활동에 대해서 아동, 노인 혹은 다른 집단을 면담하는 것.
- ▶ **특수 서비스** : 장애자들을 위한 휠체어 정차소와 같은 특수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
- ▶ **장애인 올림픽** : 정신적 혹은 육체적 장애자들을 위한 올림픽 혹은 다른 행사를 주최하는 것.
- ▶ **개인 교습** : 개인 교습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나이 어린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교사들과 같이 협조하는 것. 개인 교습자는 집단, 개인, 혹은 전체 학급을 다 가르칠 수 있다.
- ▶ **희생자 원조** : 범죄 혹은 사고 희생자들의 재활을 돋는 것.
- ▶ **수용된 사람들 방문** : 수인들, 환자들, 양노원, 고아원, 정신지체아, 장애자를 수용한 기관 방문.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과 청소년들을 짹을 지워주는 프로그램 운영.
- ▶ **영상 예술들** : 비영리단체 혹은 공공 정보를 위한 포스터 제작. 공원 혹은 다른 공공 장소를 디자인. 노인들을 위한 카드 혹은 선물 제작.
- ▶ **선거자 교육** : 선거자 등록에 대한 정보 배포. 선거자 등록을 돋는 것.
- ▶ **청소년 기관들** : 캠프 파이어, YMCA, 4-H, 보이 스카우트, 걸 스카우트 등과 같은 청소년 지도 집단들을 지도하는 것.
- ▶ **청소년 지도력** : 청소년 지도력 훈련 행사들을 조직하는 것.
- ▶ **청소년 스포츠** : 청소년 운동선수들은 같은 영역의 나이 어린 운동 선수들을 코우치 할 수 있다.

정보가 더 필요하면, 다음 주소로 연락 : The National Leadership Council

1910 W. County Rd. B
Roseville, MN 55113
(612) 631-3672

* 자료 : R. W. Cairn & J. C. Kielsmeier, 1991.

③ 중앙일보 주최 자원봉사축제 활동사례

▶ 동네 낙엽쓸며 하프연주

서울 폭동 M교회 성가대원 20여명은 26일 오후 5시부터 1시간동안 교회주변을 비롯, 양천전철역 일대의 낙엽을 쓸기로 했다. 대원들은 이날 낙엽청소와 함께 전철역 입구에서 동교회 하프전도대원들이 연주를 하며 전도지도 나눠줄 예정, 자원봉사 경연참가도 하고 전도도 하는 「찧먹고 알먹는」 케이스이다.

▶ 환자 바꿔 돌보아주기

서울 성북구 S병원은 26일 히롯동안 「환자 바꿔 보호하기」 프로그램으로 경연축제에 참가한다. 동 병원은 이날 하루 모든 환자가족이 최소 1시간 이상씩 서로 환자를 바꿔 돌보며 말벗이 되게 할 예정이다. 가족들은 다른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들의 사정을 듣고 자신들의 어려움에 다소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한다는 게 병원측의 아이디어이다.

▶ 「사랑의 편지」 보내기

서울 강남구 W사 50여 임직원은 26일 관내 한 병원과 협의, 회사 직원들이 환자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환자 각각에게 배달될 편지 내용은

「빠른 쾌유를 빕니다… 따뜻한 이웃으로부터」하는 등의 익명성. 동 회사직원들은 이와 함께 조그만 선물을 마련, 경연축제 당일 병원을 방문해 환자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 미술아동들 거리피켓 캠페인

서울 신월동 Y미술학원은 30여 아동으로 하여금 각자 주장하고 싶은 「사회문제」 구호가 적힌 피켓을 제작토록 하고 26일 오후 이를 들고 거리에서 가두 캠페인을 갖기로 했다. 아동들이 제작한 구호내용은 「거리에 침을 뱉지 맙시다」「횡단 보도에선 차를 세워주세요」하는 등 평소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담겨있다.

▶ 고지대 연탄 배달

부산 남구 P종합사회복지관 소속 6명은 26일 관내 고지대에 사는 영세민가정들에 연탄배달과 집을 수리해주기로 했다. 이를 복지관 소속 직원 및 복지센터 자원봉사자들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당일 연탄이 필요한 고지대 가정의 명단을 파악하고 26일 자신들이 직접 연탄을 사서 운반, 빈곤가정도 돋고 연탄배달의 수고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계획하고 있다.

▶ 야구 스타디움 낙서 지우기

모 프로구단은 26일 오후 잠실 야구장에 집결, 훈련을 하다 야구복 차림 그대로 스타디움 주변에 써여진 낙서를 지우는 등 1시간동안 환경정화 활동을 펼 예정이다. 이날 낙서지우기에는 선수들외에 구단측 임직원, 잠실운동장 관리인들도 참가할 계획. 선수들은 물결레 질로 낙서를 지우고 쓰레기를 치워 청소차에 실는 등 일체의 작업을 직접하며 자원봉사의 기쁨을 맛보려 한다는 게 주최측의 설명이다.

▶ 시청 민원안내 봉사

안동시에 사는 서모씨 등 5명은 26일 안동시청에서 민원안내 자원봉사를 하기로 했다. 서씨 등은 이날 안동시청 민원실에서 시청을 찾는 시민들의 안내를 맡아 해당 과로 안내해 주거나 간단한 문의사항에 답변해 주는 등 시행정 민원업무를 덜어줄 예정. 이들은 이같은 활동을 위해 경연날까지 매일 시청을 방문, 민원봉사 업무교육을 받기로 했다.

▶ 국교1년생들 양로원 위문

서울 신정동 이모군 등 국민학교 1학년 6명은 26일 오후 양로원 위문을 위해 15일부터 공동저금통에 저금을 시작했다. 이들은 가능한 한 자신들이 일을 통해 위문품을 마련하겠다며 매일 마당을 청소하고 구두를 닦는데 그들 부모 역시 재경후원자로 동참. 학생들은 양로원에 위문 갈 때도 가능한 한 색다른 옷차림이나 재미있는 여흥프로그램이 없을까 하고 목하 고민 중이다.

▶ 역전 교통정리

경주시 M고등학교 최모군 등 보이스카우트 대원 30여명은 26일 경주역 앞에서 교통정리를 한다. 최모군 등은 이날 2~3명씩 조를 편성, 교차로 등에서 차량소통의 원활을 위해 교통정리를 할 계획인데 당일 활동에 좀 더 축제 분위기를 가미하기 위해 재미있는 프로그램 등을 계획 중이라고 한다.

▶ 노인정 김장 담그기

서초구 잠원동에 사는 최모씨 가족은 27일 중계동 노인정을 방문, 김장을 담가 주기로 했다. 최씨 가족은 평소에도 김장을 담가 자주 노인정에 전달하곤 했는데 이날은 배추를 사다 직접 노인정에서 겨울 김장을 담가드리기로 한 것. 최씨 가족은 이날 중계노인정 김장 담그기 작업에 자신들 외에도 동참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 자료 : 중앙일보, 1994. 11. 21.

④ 참가신청서의 일례

참가신청서

자원봉사경연축제에 참여하시려면 참가신청서를 내셔야 합니다.
보내주신 분들께는 자원봉사 심볼 배지와 스티커 그리고 행사이후 작성할
활동보고서(양식)를 보내 드립니다.
봉사후에 반드시 활동보고서(행사기록사진 5매첨부)를 따로 제출하셔야
하며
주변의 이는
사람들에게 참여를 권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⑤ 활동보고서의 일례

활동 보고서

11월 26일(토), 27(일) 봉사를 하신 후 봉사한 내용을
16절지 1매 분량(6하원칙에 의해 자세한 봉사내용과 특기사항)으로 기록
하여서

팩스나 우편으로 아래의 내용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오직 그날 봉사한 것만 고려되며

봉사 당일 활동상황을 찍은 사진을 5매 이내 동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중앙일보 자원봉사사무국

서울시 종구 순화동 7번지 우)100-759

TEL : (02)751 - 9066 FAX) : (02)751 - 9688

△ 마감일 : 1994년 12월 3일

△ 신청인 :

△ 주 소 :

△ 전 화 : (직장) (가정)

△ 활동하신 분야를 다음 항목에서 하나만 표(V)를 하십시오.

- () 1. 지역사회 : 놀이터 시설물 보수, 유적보호, 빈민구제 활동, 도시 문제활동 등
() 2. 보건, 의료 : 진료, 간병, 위생, 예방 등
() 3. 오락, 체육, 문화 : 위문공연, 놀이, 관광안내, 박물관 안내 등
() 4. 캠페인 : 교통질서, 범죄, 마약추방, 윤리, 도덕운동캠페인, 소비자운동, 자원봉사홍보, 지역사회 문제점 제기, 청소년 유해시설퇴치 등
() 5. 사무보조 : 공공기관, 복지, 문화기관 등에서의 사무보조
() 6. 사회복지시설방문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돋기 및 위문 등
() 7. 거택보조 : 노인, 장애인 심부름 및 가사돕기
() 8. 교육 : 청소년 선도 및 학습지도, 심신훈련지도 등
() 9. 환경 : 청소, 미화, 공해방지 활동 등
() 10. 기타 : 긴급구호 등 각 분야

△ 참여하신 분들은 해당란에 표(V)를 하십시오.

- () 1. 개인 / 가족 () 2. 각종 모임 / 써클
() 3. 직장 () 4. 학교
() 5. 종교단체 () 6. 기타

- △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 △ 단체일 경우 단체명 (혹은 소속은)?
- △ 제출한 사진과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별지에 자세한 내용(6학원칙에 의거)과 특기사항을 작성하세요.

* 자료 : 중앙일보 자원봉사 사무국, 1994.

봉사활동 이미지 측정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우리는 저마다 막연한 상을 갖고 있다. 남이 하는 것을 보면 훌륭하고 대단하고 보람있겠다 생각하면서도 내가 귀한 시간을 들여 하기에는 어쩐지 시간이 아깝고, 매력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재미없는 활동으로 생각하기 쉽다. 봉사활동에 관한 간단한 이미지 테스트를 통해 봉사 활동의 가치를 바로 알게하고 지속적인 참여의욕을 북돋아 준다.

1. 활동 과정

목표	청소년들로 하여금 봉사활동을 통해 막연하게 느끼는 자신의 변화를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참여와 활동학산의 주체가 되게 한다.			
활동과정	1차 봉사활동 이미지 측정 봉사활동 시작전 봉사활동에 대한 이미지를 테스트 해 본다.	봉사활동 참여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한다.	2차 봉사활동 이미지 측정 봉사활동을 다녀온 후 2차 조사를 실시하여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측정해 본다.	나눔의 자리 조사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자원봉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해 보게 한다.

2. 활동 내용

과정 1 1차 봉사활동 이미지 측정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봉사활동에 대한 이미지를 솔직하게 표시해 본다.

- ▷ 조사지를 두 장씩 나누어 주고 한 장은 보관하고 한 장은 2차 조사시 비교를 위해 본인이나 조별로 보관하게 한다.
- ▷ 조사지에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표시하도록 한다.
- ▷ 조사후 서로의 느낌을 나눈다.

귀하는 자원봉사의 이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저	그렇지	전혀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그렇지
				않다

1.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
2. 동정심이 있는 것
3. 매력적인 것
4. 신뢰할 수 있는 것
5. 곁치례인 것
6. 인기가 있는 것
7. 노는 것보다
 재미있는 것
8. 책임감이 있는 것
9. 끌데없이 발견하는 것
10. 보람있는 것
11. 모험적인 것
12. 공부가 되는 것
13. 멋 있는 것
14. 웬지 부끄러운 것
15. 밝고 명랑한 것
16. 성실한 것
17. 없어서는 안되는 것
18.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
19. 곤란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20. 무보수인 것
21. 강제적인 것
22.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
23. 자발적인 것
24. 사회를 개혁
 시키는 것
25. 귀하는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 2) 아니오 ()
26. 귀하의 성(性)은?
 1) 남자 () 2) 여자 ()

* 자료 : 총무처청소년대책본부(일본), 1993.



- ▷ 지도자는 조사자를 수거하여 통계를 낸다.
- ▶ 부정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반응을 심하게 나타낸 이미지들은 무엇인가?
- ▶ 여학생과 남학생의 차이는?
- ▶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차이는?

과정 2 봉사활동 참여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분야

분야 대상	가정방문	시설방문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든 노인 방문 ○ 집수리, 유리창 닦기, 눈치우기 ○ 학교행사에 초대 ○ 3대행사 ○ 결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말벗, 훨체어 외출, 연극공연) ○ 행사참여 ○ 정원가꾸기, 유리창 닦기, 칠하기 ○ 손자역할(초대) ○ 결연

사회복지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캠프 ○ 점자책 번역, 크게 낭독 ○ 수화 ○ 교육감독 ○ 동반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발벗) ○ 삼화만화책 ○ 점자번역, 낭독 ○ 수화 ○ 행사참여 ○ 결연 ○ 둘리치료 보조
	아동 및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클럽, 소년들의 스포츠 모임 감독 ○ 아동과 레크리에이션 교육 ○ 운동장 건설 ○ 위험한 장소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대화, 교육감독) ○ 운동과 레크리에이션 지도 ○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기관과 협동
지역사회봉사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줍기(산,강,공원,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 계몽활동 참가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환경 퇴치 계몽활동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위문 ○ 환자동행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교통정리 	
금품 및 장기 기증	금품 기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기탁 ○ 공공모금기부 ○ 도금캠페인 보조 	
	장기 기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혈 ○ 캠페인 보조 	
국제협력과 난민구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도상국의 의료지원을 위한 현우표 수집 ○ 물질적 원조에 참여(옷, 식품) ○ 친목도모, 서신교환 	

- ▷ 참가자 수와 성격 그리고 시간을 고려하여 활동을 정한다.
- ▷ 활동할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활동계획을 치밀하게 세운다.
- ▷ 봉사활동의 참맛을 느낄 수 있도록 성실한 태도로 준비하고 활동에 임하게 한다.

과정 3 2차 봉사활동 이미지 측정

봉사활동을 다녀온 후 다시 한번 조사를 실시하여 어떠한 변화가 일어 났는지 1차 결과와 2차 결과를 비교해 본다.



- ▷ 봉사활동 후 1차 조사시와 같은 내용의 질문을 다시 조사해 본다.
- ▷ 해당사항을 기입한 후 그래프로 그려본다.
- ▷ 각 개인은 1,2차 조사를 비교해 보기 위하여 2차 조사지에 1차 조사의 결과도 옮겨 그래프를 그려 본다(도움자료 ①).
- ▷ 각자 생각이 바뀐 이미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다.

과정 4 나눔의 자리

조사결과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함께 논의해 본다.

- ▷ 지도자는 조사결과 중 의미있는 내용들을 설명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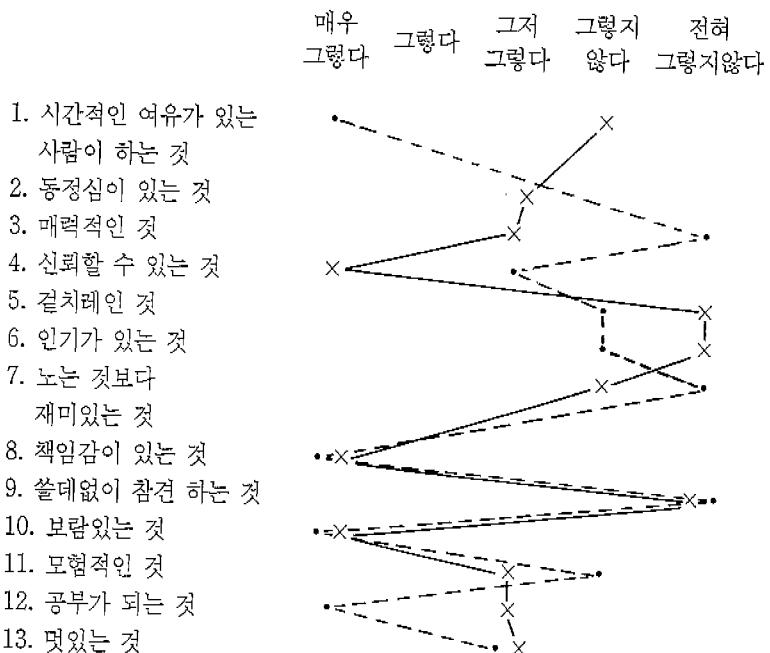
- ▷ 봉사활동의 이미지에 대해 서로가 갖고 있는 의견을 충분히 발표하고 나눌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
- ▷ 봉사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해 본다.
- ▷ 특히 자원봉사활동시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하는 자원봉사를 위해 시간을 내는 방법과 반대하는 부모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의견을 나누어 본다(도움자료 ② ③).
- ▷ 자원봉사활동을 학교에서 필수로 하는 것에 대해 찬반 토론을 벌여 본다(도움자료 ④).
- ▷ 자원봉사활동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를 갖게하여 활동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도움자료 ⑤).

3.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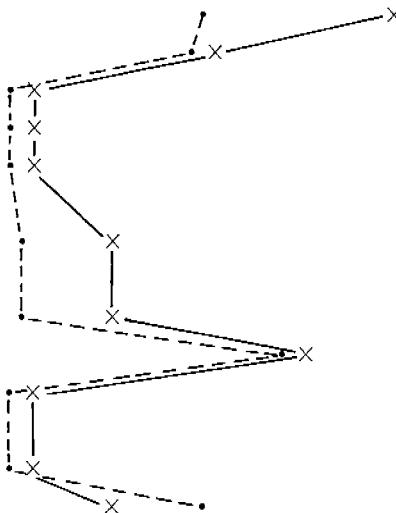
- ▷ 지도자는 봉사활동 시작전에 잊지않고 1차 조사를 실시한다.
- ▷ 1차 조사자는 2차 조사를 위하여 잘 보관해 둔다.
- ▷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조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
- ▷ 지도자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수행한 봉사활동을 스스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게 도와준다.

4. 도움자료

① 1, 2차 봉사활동 이미지 변화



- 14. 웬지 부끄러운 것
- 15. 밝고 명랑한 것
- 16. 성실한 것
- 17. 없어서는 않되는 것
- 18.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
- 19. 곤란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 20. 무보수인 것
- 21. 강제적인 것
- 22.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
- 23. 자발적인 것
- 24. 사회를 개혁
시키는 것



* (•) : 1차측정결과
(X) : 2차측정결과

② 사회봉사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내는 것

어떻게 사회봉사를 위한 시간을 낼 것인가? 많은 임시와 수업과 종 속에
서 어떻게 사회봉사를 위한 시간을 낼 수 있겠는가?

- 1) 학교수업 전과 후 대부분의 경우가 이에 속한다. 많은 사회봉사활동
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이 시간대에 할애되어 있다.
- 2) 수업시간을 조정하여 사회봉사를 위한 시간을 따로 내는 것.
센트럴파크 이스트 중등학교는 일주일에 하루, 혹은 하루의 반을 사
회자원봉사를 위한 시간으로 할애하고 있다.
- 3) 일정 시간을 할당하는 것 : 와싱톤시의 바네커 고등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의 오후를 봉사활동에 쓰게 되어 있다
(이러한 필수는 주말이나 여름방학을 통하여 이수할 수 있다).
사회봉사 학습코스가 일주일에 두 시간의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거
나, 사회과목의 필수조건으로 되어 있다. 사우스 번스워크 고등학교
의 2학년생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학교의 사회봉사활동 현장이나 야
외교육 프로젝트에서 보낸다. 학생들은 직업에 대해서 배우며, 사회
봉사를 하는 동시에 특별한 관심분야를 발전시킨다.
- 4) 팀 : 종종 교사들은 팀을 형성하여 (예를들면 사회과목과 예술 혹은
영어와 사회) 두 학급을 합쳐 두 수업시간을 사용하여 사회봉사 프

로젝트를 시행한다.

- 5) 여름방학 프로젝트 : 많은 학교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지역사회봉사활동에 참가하도록 북돋우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홍보할 수 있다.
- 6) 창조적인 학점 : 어떤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봉사활동 프로젝트에 참가함으로써 사회과목에서 일학점을 따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 7) 고등학교 3학년에서의 마지막 한 달 : 고등학교 3학년에서의 마지막 한 달은 종종 아두 하는 일 없이 보내게 되기 쉽다. 몇 학교들은 이 기간을 의미있는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
- 8) 지역사회와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 : 어떤 학교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나누기 위해 YMCA, 4-H, 청소년연맹 등과 같은 조직들과 함께 일하며 지역사회봉사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 9) 학교의 재구조화 :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평균 15,000 시간이 넘는 시간을 교실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 데 소비한다. 교과지도가 살아있는 것으로, 효과적이고도 적절한 것으로 남아 있으려면, 우리는 그것이 전달되는 스타일이나 환경에 있어서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 (1) 많은 학교들이 다양한 사회봉사학습 기회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간을 다시 조정하고 있다.
 - (2) 어떤 학교들은 21세기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필수 수업시간에 대해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의 많은 중요한 그러나 충족되지 않은 필요들을 채우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필요하다』

* 자료 : R. W. Cairn & J. C. Kielsmeier, 1991.

③ 반대하는 부모를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

- 1) 학부모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봉사활동 학습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 (1) 자원봉사에 대한 경험부족
 - (2) 봉사활동의 혜택에 대한 인식부족
 - (3) 학교의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무력감
 - (4) 아이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 (5) 그 경험의 신체적 안전성이나 정서적 영향에 대한 우려
 - (6) 돈을 받지 않는 서비스는 그들의 아이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믿음

- 2) 당신은 그들의 우려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 (1) 부모들을 관련시켜라. 가능하면 학부모를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실행, 평가에 관련시켜라. 부모를 초기 단계에 관련시키는 것은 그들의 지지를 확보하게 할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의 모범을 제공한다.
 - (2) 봉사활동 학습의 이점과 준거들을 설명하라. 지역사회봉사활동이 학생들의 성격과 학문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식들을 학부모에게 설명하라.
학부모에게 프로그램의 목적을 설명하라.
 - (3) 지역사회봉사활동에 실제적인 이점을 많이 포함하라.
 - 대학 장학금 : 많은 대학들과 조직들은 중요한 사회봉사활동에 관련되어 왔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한다.
 - 경력 명료화 : 지역사회봉사활동은 학생들이 그들의 직업적 관심을 명료화하는 것을 도와준다.
 - (4) 가족의 봉사활동을 복돋우라. 그들의 아이의 흥미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데에 학부모들을 참여시켜라.
 - (5) 유연성 있는 스케줄. 만일 봉사활동이 학생들의 학업이나 아트 바이트에 방해가 된다면, 이러한 것들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스케줄을 조작하라.
 - (6) 성공과 안전에 대한 관심. 학생들을 적절하게 준비 시키고 적절한 보험을 들라. 세심하고 철저하게 위험에 대비하라.

* 자료 : R. W. Cairn & J. C. Kielsmeier, 1991.

④ 사회봉사가 필수가 되어야 하는가

현재 모든 학생들에게 사회봉사를 필수로 하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다. 어떤 사람은 학교가 학생들이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복돋아야 하지만, 사회봉사활동을 필수로 하는 것은 봉사활동에 모순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사회봉사는 모든 시민들의 근본적인 의무—자원봉사자의 이익에 관계없이 곤란한 사람들을 도와줄 의무—이고, 모든 시민들은 사회에 봉사하여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1) 필수가 되어야 하는 이유

- (1) 모든 학생들이 주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봉사활동의 기회가 순전히 자원자에 한정하거나 학교 수업 후로 한정이 된다면, 지원자만이 그 경험으로부터 혜택을 입는다. 프

레드 뉴먼의 연구에 의하면, 오직 20% 미만의 학생들만이 현재 자원적인 지역사회봉사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그들의 가족들이 봉사를 가치있게 여기고 그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받는 것 없이 주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가정에서 온 학생들은 주는 기쁨을 적절적으로 경험해 볼 기회가 거의 없다. 그러나 이와같은 학생들이 그와같은 봉사활동의 경험으로부터 얻는 것이 가장 많은 학생들인 것이다.

(2) 사회의 투자에 대한 보답으로

세금 중 많은 부분이 교육비에 들어 간다. 학생들도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답을 하여야 한다.

(3) 참가자 수를 확장하기 위하여

미네소타주의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가진 560학교 중에서, 대부분은 소수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오직 105학교 정도에서만 25% 이상의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4)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우리 지구에서의 사회봉사가 필요한 곳은 굉장히 많다(소년소녀가장, 전쟁, 집없는 사람들, 환경오염 등). 우리 모두는 해결책을 위해서 지금 함께 일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필수로 하여야 하지만, 어디에서 봉사활동을 할 것인가는 학생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택은 효과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혁신을 이끌어내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5) 더 많은 봉사활동을 제공해 주기 위하여

지역사회봉사활동을 필수로 요구하는 학교에 대한 보고서에 나타난 것을 보면, 학생들이 정열이나 자발성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의무적인 참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회적인 책임성을 발전시킬 수 있게 만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수로 하지 않으면, 지역봉사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는 극히 저조하게 될 것은 경험적으로 보아 자명하다.

2) 봉사활동이 필수가 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

(1) 필수로 만드는 것은 잘못된 쪽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므로

봉사활동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에 제한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관심이 아니다. 요청하고, 방법을 알려주면 학생들은 정열적으로 반응해 왔다. 제한을 하는 요소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부족과 학생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게 만드는 수단의 부족이다.

(2) 정열과 흥미에 기초해야 하므로

자원하는 학생들은 종종 보다 정열적이고 그들 스스로 봉사활동을 계속할 확률이 높다. 이러한 학생들은 봉사하려는 그들의 개인적인 욕망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배우기 쉽다.

(3) 질이 높은 봉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기 싫어 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봉사를 받는 사람이 질 높은 봉사를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도 청소년들로 하여금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데 대해 그다지 달가와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보다 적은 학생들이 참여할 때 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보다 용이할 것이다.

(4) 성공적인 경험을 촉진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단지 그것이 필수 과정이라는 이유 때문에 학생들이 자원 봉사활동에 식상해 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 한다.

* 자료 : R. W. Cairn & J. C. Kielsmeier, 1991.

⑤ 흥미를 가지지 않은 학생들의 참여를 돋는 방법

지역사회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은 열심이지만 약 1/5가량은 흥미를 가지지 않거나 봉사활동을 요구받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한다. 흔히, 다른 사람을 돋는 데 관심이 없는 청소년들은 기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낀다. 이것은 그들의 친구 집단이나 가족이 봉사활동을 지지하지 않거나, 그들이 학교를 가치있게 여기지 않거나, 그들이 실패를 두려워해서 통상 새로운 행동을 피하거나, 혹은 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통제력이 없다고 느끼고 어떤 것을 하라고 요구받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다루기 어려운”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들을 돋는 일에 요구되는 일이 거의 없고, 때문에 그들은 종종 학교의 활동들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낀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접근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1) 흥미를 복돋운다. 그들이 음악이나 스포츠 혹은 기술, 혹은 직업적 관심을 발견하도록 돋는다. 그리고 그러한 특수한 기술 혹은 재능을 사용하여 기여할 길을 발견하는 것을 돋는다.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봉사활동을 확인한다. – 도움이 필요한 더 어린 학생들, 소외된 듯 느끼는 전입생, 혹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 특별한 필요들을 가진 학생들 –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요청한다. 학생들에게 무엇이 그들에게 의미있는 일인가를 확실하게 묻고, 그들의 독특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라. 문제아들이 필요로 되어지는 특수한 상황들이 있다. 한 학교에서는 과거에 정학을 받았던 학생들로 하여금 정학에서 돌아와서 정규 학교 진행에 들어가는 데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원조하는 일을 하게 한다.

- 2) 친구 지지를 발전시켜라. 어떤 친구 집단은 참가를 방해한다. 정규 적인 학교 밖에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흥미없는 학생들을 그들의 참가를 지지할 집단의 학생들과 관련시키는 것을 고려해보라.
- 3) 적절한 준비. 이러한 학생들은 종종 낮은 자기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서 종종 자신이 기대대로 살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참여하기를 주저 한다. 그들의 성공 확률을 최대로 하기 위하여 그들이 경험할지도 모르는 역할수행 상황에서 그들의 역할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그들을 도우라. 아주 어린애들을 돌보는 것은 그들에게 자신감을 느끼게 하며 공부에서의 결합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
- 4) 만일 한 청소년이 한 나이 어린 학생과 일하고 있다면, 그 관계가 발전되도록 허용하라. 이러한 종류의 학생은 종종 위험을 감수하기를 주저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끊임없는 격려와 대화가 현재의 행동을 강화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 5) 선택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형성하는데 청소년들을 관계시켜라. 청소년들로 하여금 다양한 선택 사항들을 검토하도록 허용하고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그들의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되게 하라. 학생들에게 무엇이 그들에게 의미가 풍부한 것인가를 묻도록 하며, 그들의 독특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도록 하라.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관련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 없는 반면, 그 프로그램들이 전달하고 있는 필요들이 그들에게 진실한 것이라면, 그들은 점점 더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다른 학군들은 위기의 청소년들을 국민학교 학생들과 연결을 시켜주는 개인지도 프로그램을 발전시켰다. 참가자들은 어린 학생들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커다란 책임감을 갖게 되었으며 학문적 성공을 경험하였다.

* 자료 : R. W. Cairn & J. C. Kielsmeier, 1991.

참고문헌

단행본

- 강명순(1985), *빈민여성 빈민아동*, 아침.
- 강세윤 편저(1988), *장애예방과 치료,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 권명자(1991), *유치원 교수·학습을 위한 활동영역별 지도자료, 보육사*.
- 김영호(1992), *자원봉사 이론과 실제, 흥익재*.
- 김옥라·김현자 역(1989), *자원봉사 : 사랑의 공동체, 희성출판사*.
- 박태경·최경익 역(1993), *자원봉사활동조정자, 도서출판 은익*.
- 이가옥 외 3인(1991), *가정봉사원제도의 정착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창희(1992),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의 이론과 실제, 흥익재*.
- 장인협 외 1인(1984), *아동·청소년 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주성민(1988), *한국의 지역사회학교운동, 한국지역사회학교후원회*.
- 천명기(1985), *자원봉사의 이론과 실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출판부*.
- 한국농아복지회 편저(1991), *수화교실, 수험사*.
- 한국복지연구소 편역(1987), *사회복지의 사상, 이론과실천*.
- 한완상(1973), *현대사회와 청년문화, 법문사*.

연구논문 및 자료집

- 고경애(1989), *한국청소년의 노인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실 외 3인(1986), *자원활동자 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영자(1989),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영아, 육아시설을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정 외 8인(1985), *자원활동과 사회발전, 한국여성개발원*.
- 김정명 외 4인(1991), *청소년 활동 동기부여 방안, 한국청소년연구원*.
- 김진이(1992), *도시재가복지서비스의 평가와 개선방안 –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한YMCA연맹(1993), 전국 YMCA가 함께 전개하는 환경보전생활실천지침
– 환경 우리들의 제안, 대한YMCA연맹.
- 박광수(1991), 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사업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일(1992), 지역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박찬옥(1994), 청소년의 봉사에 대한 태도와 실천에 관한 조사연구 – 청소년
적십자 단원과 비단원의 비교연구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사회복지문제연구소편(1990), 자원봉사자론, 사회복지문제연구소.
- 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1994), 환경보전과 시민운동, 서울YMCA.
-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1987), 도시 무허가 정착지의 성격과 생활
실태 –서울 사당동 재개발지역 사례연구 –,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
- 서초구청 문화공보실(1994), 서초 생활안내, 서초구청 문화공보실.
- 송광성 외 2인(1992), 도시농촌교환봉사활동, 한국청소년연구원.
- 신동성(1993), SBS 비디오 가이드, SBS 프로덕션.
- 신인숙(1989), 시설아동의 집단활동 프로그램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육아시설 중학생 중심으로 –,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순덕 외 4인(1988), 영세지역 아동보호 및 환경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
원.
- 양인기(1980), 자원봉사활동 개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경원(1991), 도시형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동대문구 거주
노인들의 의식을 중심으로 –,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명주(1982), 가정탁아제도 정착을 위한 기초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은평천사원 출판부(1993), 우리들이 뛰어놀기 적당한 하늘, 은평천사원출판부.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1984), 자원활동의 이론과 실제, 이화여자대학
교 한국여성연구소.
- 자원봉사자 씨클협회(1980), 자원봉사사례집, 한국사회복지협의회출판부.
- 정승용(1990), 한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 조희일(1990), 한국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행동과 관련된 개인 및 조직특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홍식(1990), 도시빈민가족문제에 대한 사회사업실태에 관한 연구－생태체계적 관점의 문제조정도구 개발과 적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지역탁아연합회(1992), 게임놀이 자료집, 지역탁아연합회.
- 지역탁아연합회(1992), 탁아자원 활동이란, 지역탁아연합회.
- 채준안(1990), 정신지체아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례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진 외 1인(편)(1993), 청소년활동론,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윤희(1990), 가정봉사 서비스에 관한 연구－노인을 대상으로하는 가정봉사원을 중심으로－,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영(1991), 한국의 가정복지봉사원 활동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걸스카우트연맹(1992), 대활동 우수프로그램자료집, 한국걸스카우트연맹.
- 한국교육개발원(1992), 사회와 시민(중학교 민주시민 교육자료),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1994), 한국노인복지사십년사,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 한국복지정책연구소(1985),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비교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한국사회복지관협회(1992), 사회복지관 현황조사 보고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1992), 재가봉사센터의 기능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_____
(1993), 재가복지봉사센타 : 자원봉사자교육교재,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_____
(1994), 제2회 전국사회복지관 직원교육 : 빈곤대책의 전환과 사회복지관의 역할,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부산지회(1992), 재가복지봉사활동 사례모음집 : 만남,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부산지회.
- 한국사회복지학회(1991),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한국사회복지학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1988), 자원봉사활동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

사회복지협의회.

_____ (1991), 한국사회복지총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_____ (1992), 지역복지봉사의 이론과 실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어린이재단(1987), 사회복지관사례연구(3), 한국어린이재단.

_____ (1988), 사회복지관사례연구(4), 한국어린이재단.

한국여성개발원(1987), 사랑으로 복지활동 참여 – 자원활동현장 사례집 –, 한국 여성개발원.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1990), 자원봉사의 길잡이,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 연구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1991),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1991), 청각장애편람,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한국청소년개발원(1994), '94 청소년수련광장 참고자료집,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1987), 청소년활동 프로그램백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연맹(1986), 한별활동사례집, 한국청소년연맹.

_____ (1993), 시청각자료목록집, 한국청소년연맹.

한재란(1991), 청소년적십자 활동과 사회적 특성 발달과의 관계연구, 한국외국 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현대사회연구소(1984),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연구, 현대사회연구소.

KBS 영상사업단(1994), '94 KBS 비디오가이드, KBS.

MBC 프로덕션(1994), '94 프로그램가이드, MBC.

외국문헌 및 자료

Association des Amis de Notre-Dame-de-Lure(1994), *Activités du Chantier, Association des Amis de Notre-Dame-de-Lure.*

Australian Award Office of the Duke of Edinburgh's Award(1977), *Manual of Programs*, Birgina Balmain, Australian Award Office of the Duke of Edinburgh's Award.

Centre d'Information et de Documentation Jeuness(1993), ACTUEL CIDJ – *Chantiers de travail volontaire*, Centre d'Information et de Documentation Jeuness.

Chantiers de Jeunes(1994), *Faites le Mur*, Chantiers de Jeunes.

- Giles Darvill & Brian Munday(1984), *Volunteers in the Personal Social Services*, Tavistock Publications.
- Marie Pierre Baudry(1993), *Comprendre et restaurer un monument – De l'étude à la réutilisation*, REMPART.
- Maryland Student Service Alliance(1992), *Draft Instructional Framework in Service – Learning for Middle School*, Maryland Student Service Alliance.
- Maryland Student Service Alliance(1993), *Special Education Service – Learning Guide*, Maryland Student Service Alliance.
- Maryland Student Service Alliance(1993), *High School Service – Learning Guide*, Maryland Student Service Alliance.
- National Youth Leadership Council(1994), *Learning By Giving*, National Youth Leadership Council.
- REMPART(1986), *Organisation d'un chantier*, REMPART.
- Rich Willits Cairn & James C. Kielsmeier(1991), *Growing Hope : A Sourcebook on Integrating Youth Service into the School Curriculum, 1st edition*, National Youth Leadership Council.
- Volunteer Center(1994), *Teen Times – Spring Semester*, Vol. 1, No. 1, Volunteer Center, Inc.
- 東京ボランティア・センター(1992), ボランティア ハンドブック, 東京ボランティア・センター.
- 総務廳青少年対策本部(1993), 青少年のボランティアに関する調査報告書, 総務廳青少年対策本部.

